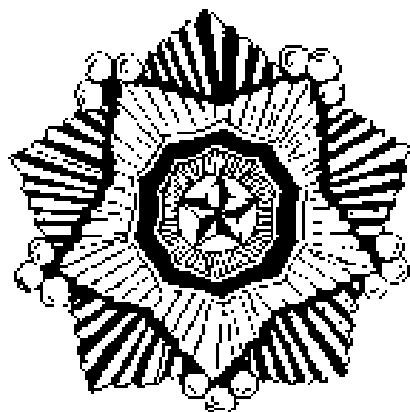




9

주체 93 (2004)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8(2004)년 제9호

(루계 제 683 호)

## ◆◆◆◆◆◆◆◆◆◆ 차 례 ◆◆◆◆◆◆◆◆◆◆

사랑하는 나의 조국 .....	3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조국과 문학적형상 .....	4
냉 이 .....	6
신기한 발자국 .....	14
끝나고 시작된 6.15 의 노래 .....	17
그 밤은 아침이었다 .....	17
내 삶의 푸른 6 월 .....	18
아, 6 월 15 일!.....	18
풀어주신 물문제 .....	19
통열기념비 .....	19
선군정치로 빛나는 조국에 대한 찬가.....	20
9 월의 하늘 .....	25
눈 오는 날에.....	26
백두산의 어머니 .....	32
관 통.....	33

조국애와 관련한 경애하는 <b>김정일</b> 장군님의 명언.....	44
설봉산기슭에서 .....	45
어머님은 오늘도 수풍언제에 계신다.....	46
명언해설 .....	47
국기와 국장을 볼 때마다 .....	47
태양의 빛을 받아 설레이는 푸른 거목.....	48
신념의 노래 .....	52
선군의 덕이라오.....	55
붉은단풍 .....	56
내 조국의 《선군 8 경》 .....	57
아, 동지여 .....	58
군대식이 우리는 좋아.....	58
광명에 대한 생각.....	59
사랑의 힘 .....	61
사랑과 조국.....	64
그들은 열일곱명이였다.....	66
위훈과 처녀시절 .....	67
교정의 수삼나무.....	69
《어린 싹을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하오.》 .....	80

# 사랑하는 나의 조국

신문경

이 땅의 산과 들에  
절로 열매맺히고 무르익는다면  
오늘처럼 그대를 사랑할수 없으리  
오늘처럼 그대의 아름다움이  
이 가슴에 사무치게 젖어들수 없으리

조국이어  
해빛처럼 공기처럼  
스스럼없이 받아온 그대의 사랑  
피어린 대가를 다 모르고 살아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은 나에게서 언제 끝났던가

항일의 로투사 매여준  
붉은넥타이 날리며  
훈장많은 아버지의 레복을 끌어보던  
그날부터였던가

백두의 천지물을  
가슴에 안고  
빨찌산의 전장길 따라걸던  
답사길이었던가

새해의 아침  
숫눈우에 첫 자욱  
다박솔초소로 새겨가신  
장군님의 자욱자욱 이어져있어  
어디서나 가뻔게는 디딜수 없는 이 땅

전선길 차안에서 《애국가》를 들으시며  
장군님 떠나신 그날의 첫 새벽  
이 나라 산천을 깨치던 야전차의 동음이  
락원으로 안아일으켜세운 내 조국강산이어

오, 조국은  
나의 조국은  
오성산 칼벼랑에 지켜내리던  
최고사령부의 야전차  
멈춰선 그 차바퀴자욱을  
가슴조이며 쓰다듬어안던  
그 한치땅

그 한치한치가 모여  
나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여기  
가장 값비싼 헌신의 무게가 실려와  
가뻔게는 단 한자욱도 옮길수 없는 이 땅

물러설 길 없는 결전의 전호에  
사생결단 각오없인 들어설수 없기에  
적진앞에 나서신 령장의 모습을  
조국이라 부르며 따른 귀중한 나날이어

사랑하는 법을 내 그날에 배웠노라  
고난속에 지켜낸 조국의 산과 들에  
푸른빛을 더해가며 깨달았노라  
한그루 나무가 그렇게 귀중한줄  
한줌의 흙이 그렇게 소중한줄을

포화를 뚫고온 병사와도 같이  
선군의 길에서 내 조국을 알았노라  
총대로 찾고 총대로 지킬 행복  
총대로 열어야만 할 우리의 미래임을

무심치 않아라  
무심할수 없노라  
그대의 물결우에 떠가는  
야영의 노래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대의 산천을 밝히는 눈부신 불빛들  
그대의 하늘가에 날아에는  
저 못새들의 지저귂소리

사람도 산천도 새 모습이 된 나라  
총대 그것 없인 이 세상에 없을  
조선은 선군조선  
내 조국은 선군의 조국

사랑하노라  
억세인 공화국이어  
천만년 미래가 숨쉬는 땅이어  
너의 한치땅에 불구름 드리운다면  
이 몸이 천조각 만조각 되어서라도  
그대의 하늘을 창창히 열리라

너의 바다 한이랑 물결우에  
검은 파도 밀려든다면  
내 한몸의 붉은 피 다 뿌려서라도  
그대의 푸른빛을 지켜내리라

오, 사랑하는 나의 조국  
존엄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어  
굽이굽이 선군길이 피출되어 이어저간  
이 땅 이 강산을 빛나게 하리라  
장군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반들어올리리라

##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조국과 문학적형상

최길상

선군조선, 이 짧은 말속에 얼마나 많은것이 담겨져있고 이 말은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울리는것인가. 여기에는 수백수천권의 책에도 다 담을수 없는 하많은 사연,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우리 조국력사에서 처음으로 불리워진 선군조선, 이 말이 우리 민족사에서 오늘처럼 위대한 시대어로 존엄있게 울린적은 없었으며 힘있고 당당하게 메아리친적이 일찌기 없었다.

오늘 선군조선은 가장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높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기의 힘과 지혜로 기적을 창조하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존엄높은 민족이 사는 나라의 대명사로 되었다.

참으로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조국에서 사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은 인민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담력과 기상, 배짱과 의지대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세기적인 비약을 일으켜 민족적번영과 룡성을 이룩해나가는 민족,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을 헤치고 당당히 일떠서 세계의 한복판에 거연히 서있는 존엄높은 우리 인민이다.

격동의 20세기를 투쟁과 승리의 세기로 장식하고 새 세기의 진군길에 들어선 우리 인민은 선군조국의 존엄과 기상을 떨치며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신심드높이 용기백배하여 전진하고있다.

시대정신의 대변자이고 생활의 선도자인 우리 작가들이 선군조국의 위대한 현실과 그를 창조해나가는 선군민족의 불굴의 기상을 형상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선군혁명위업실현으로 힘있게 고무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고 우리 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의세게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선군으로 빛나는 조국에 대한 예술적형상에서 최대의 창작적탐구와 사색을 기울여 형상하여야 할 기본과제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위인상이다.

오늘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선군혁명문학건설의 핵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주체문학은 확고히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주선으로 하여 힘있게 건설되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선군령장의 위대성형상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에서 장편소설들인 《총대》, 《총검을 들고》를 비롯하여 문학의 모든 형태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다양하고 품위 있게 형상하였다.

우리 작가들앞에는 지난 기간의 창작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선군령장의 형상을 창조하는 기수로서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문학작품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사상을 깊이있게 반영하여야 하며 그 진리성과 독창성,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강조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 위대한 전략, 위대한 선군령도예술을 깊이있게 그려내어 선군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장군님의 품모를 격이 있게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서사시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는가》는 우리 공화국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로 빛난다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과 강화발전에 깃든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업적을 폭넓게 보여주면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격정적인 시형상으로 일반화하여 부각함으로써 대작의 품격을 가지고 위대한 선군령장의 모습을 품위 있게 형상하였다.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조국에 대한 예술적형상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숭고한 조국애를 심장깊이 간직한 주인공, 혁명적군인정신을 지니고 선군혁명위업실현에 몸바쳐 투쟁하는 선군시대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것이다.

주체시대에 태어나 선군조국에서 사는 선군민족이라는 높은 자각과 더없는 긍지로 부풀어오른 뜨거운 심장을 지니고 선군정치를 받들어가는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투쟁하는 선군시대 주인공들의 형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끝없는 조국애를 가지고 빛나는 위훈을 세워나가도록 고무하는데서 커다란 감화력을 발휘한다.

단편소설 《스물한발의 포성》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전투명령을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결사관철한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의 형상

을 통하여 그들이 지닌 혁명적군인정신이야말로 선군시대인간들의 전형적인 성격적특질로 된다는 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였다.

단편소설 《생활의 격류》는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혁명적군인정신을 지니고 엄혹한 자연과의 투쟁을 벌리며 제염소를 건설한 돌격대원들의 투쟁을 통하여 선군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생활의 참다운 보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이러한 형상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선군조국에서 사는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강성대국건설에서 공민적자각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데서 큰 감화력을 가지는것이다.

선군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닌 시대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 우리 작가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창작실천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성격의 핵을 어떻게 잡는가 하는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에 기초한 숭고한 혁명정신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굽이치고있는것은 수령결사옹위와 결사관철의 정신을 신념과 의리로, 량심과 도덕으로 간직하고있는 시대의 숨결이다. 이것은 우리 선군문화으로 하여금 삶의 순간순간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가득 채우며 빛나게 사는 감동깊은 형상, 시대의 전형을 창조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의 가장 엄혹한 시련의 나날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며 결사의 각오로 천길지하막장에서 진심을 묵묵히 바쳐가고있는 로동계급의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한 단편소설 《꽃강냉이》, 지구의 서반구의 숨막히는 105리 주로에서 걸음걸음을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어가며 결승선에 들어선 세계《마라손녀왕》의 뜨거운 마음이 흐르는 장편소설 《결승선》 등 작품들에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그리움의 세계를 안고 사는 선군시대 참다운 애국자들의 전형적인 성격을 진실하게 창조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숭고한 애국심, 깨끗한 공민적량심을 지니고 그 어떤 공명파와 명예, 보수를 바라지 않고 조국을 위한 길에서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선군시대인간들의 전형적형상을 더욱 감동깊게 형상하여야 한다.

새 세기에 사는 사람들의 참다운 애국심은 과학기술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정보산업시대가 요구하는 높은 과학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바치는데서도 발현된다.

우리 작가들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내나라, 내 조국을 세계 최첨단과학기술의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해 모든 지혜와 창조적열정을

바쳐가는 새로운 성격을 창조함으로써 형상을 통하여 새 세기에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조국애와 삶의 가치가 위대한 사상과 함께 풍부한 과학기술적자질을 갖출 때라야 담보된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요구의 견지에서 단편소설 《해저무는 백사장》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은 일련의 형상적부족점이 있으나 최첨단과학기술에 접근하기 위하여 피타는 탐구와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는 과학자들의 형상을 통하여 선군시대가 배출하는 새로운 시대적성격을 형상적으로 론증하였다. 이러한 형상은 우리 시대의 인간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첨단기술을 정복해야 하며 바로 여기에 참다운 애국심이 있다는것을 사람들에게 힘있게 심어주고있다.

선군조국에서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고 사는 우리 시대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는 형상의 근본바탕에 주체성과 민족성이 뜨겁게 고동치게 하는것이다.

주체성과 민족성, 이것은 우리 문학형상의 생명이다.

우리 작가들은 민족생활, 민족적풍습을 잘 그릴 때 대한 당의 의도를 창작실천활동에 구현하여야 한다.

민족의 고유한 생활은 민족문화의 토양이며 원천이다. 우리의 사회주의민족문화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에 토대하여 발전하며 따라서 자기의 민족성과 독자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우리 민족문화는 세계문화발전에도 적극 이바지한다.

우리 사회주의민족문화의 특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살려야 하는것은 지금 세계의 《일체화》를 떠벌이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해서도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우리 작가들은 민족의 고유한 생활을 떠난 민족문화이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문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감으로써 우리 문학의 자체발전은 물론 세계문화의 보물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위대한 선군으로 빛나는 조국에 대한 예술적형상은 오늘 우리 문학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모든 작가들은 우리 당정책의 대변자이고 철저한 옹호자라는 높은 자각과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선군시대사람들이 지닌 참다운 조국애와 민족적긍지와 영예를 다양한 예술적형상으로 창조함으로써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 넌 이

김영희

새벽 3시경이었다.

중요한 문건을 보신후 깜박 쪽잠에 드시였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인쇄잉크의 특유한 향기를 느끼며 눈을 뜨시였다.

집무탁우에 신문과 통신들이 가지런히 쟁겨져있었다.

그이께서는 《로동신문》을 펼쳐드시였다.

새날의 첫 일과가 시작되는것이다.

1면의 사설로부터 빠른 속도로 읽어가시던 그의 시선이 4면 귀퉁이에 있는 손바닥만 한 로동통신원의 글에 멈춰서시였다.

《〈할매령의 로병〉

…지난 조국해방전쟁참가자인 백승제동무는 전연부대 부대장으로 사업하다가 뜻하지 않은 일로 더는 군사복무를 할수 없게 되였다.

영예군인이며 전쟁로병인 제대군관 백승제동무는 공로자대우를 받으며 편히 쉴 응당한 권리가 있었으나 마음의 군복은 벗을수 없었다.

그는 할매령끝안에 축산기지를 꾸리고 집짐승을 기르기 시작하였다. 애쓴 보람이 있어 첫해에 수백키로그램의 고기를 생산하였으며 지난 20여년간 근 30톤이나 되는 고기를 병사들에게 보내주었다. 병사들의 전투사기를 높이는데 기여한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이밖에도 부대의 위훈속에 속속들이 숨배여있다…

조국은 이런 로병을 잊지 않을것이다.》

(백승제?! 듣던 이름인데…)

그이께서는 이어 군보, 청년보… 두툼한 통신의 마지막장을 넘기신후에 다시금 당보를 끄당기시여 자그마한 그 기사를 더듬으시였다.

군대를 위해 자기를 바치는 사람들이 혈육처럼 느껴지는는 그이시였다. 그래서인가? 아니, 어디서인가 만났던 사람이였다. 어디서인가?

**김정일** 동지께서는 몸을 일으키시고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어쩐지 창박이 흰하였다.

벌써 날이 밝는것인가? 아니였다. 눈이 내리고있었다. 정원의 푸른 전나무가지에, 간간지런히 다듬어진 교양목 생울타리우에, 너무나 정갈하여 선뜻 발을 내짚기 저여되던 산뜻한 포석우에 눈은 스스럼없이 내려와 쌓인다. 아득한 하늘 저 끝에서 먼길을 떠난 눈송이들이 마침내 그리던 종착점에 다달은듯 기쁨에 겨워 사뿐히, 혹은 소복소복 창턱에 내려와 앉는다.

문득 추억의 한귀가 들리며 가슴이 뜨끔 아파나시였다.

백승제, 분명 잊을수 없는 추억과 련결된 이름이였다. 그게 무슨 일이더라?...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선율을 타고 다섯점을 칠무렵 그이께서 타신 야전승용차는 최전연초소로 달리고있었다.

하얀 스눈길우에 또렷이 새겨지는 두줄기 차바퀴 자욱이 유난스러웠다.

X

새로 건설한 닭공장으로 가는 길은 석비레다짐을 어떻게나 알뜰하게 하였는지 포장도로가 울고 갈 지경이였다. 하얀 닭공장건물이 마주 달려오고있었다.

《군단장의 손탁이 세구만.》

**김정일** 동지께서는 맑은 안색으로 동행한 총정치국일군을 돌아보시였다.

《예, 차병철군단장이 부임되어 오자마자 장군님께서 자주 오가시는 전선길을 새로 닦는것으로부터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질질 끌어오던 닭공장건설도 그 동무가 제쳤습니다.》

《산하구분대들도 아예 때벗이를 시켰더구만. … 훈련장, 교양실, 강의실, 침실, 세목장, 야외휴식장들이 아주 특색있게 꾸려졌소.》

《부대가 몇쟁이 새 군단장을 닦아 간다는 반영입니다.》

《음, 이 령길마저도 군단장처럼 미남이요.》

새로 꾸려진 현대식닭공장에서 그이의 기쁨은 잡절로 커지시였다. 쏟아지는 닭알의 흐름…

《좋구만.》

그이께서는 짙 버그라진 군단장의 어깨를 쓸어주시였다. 차병철의 부리부리한 눈에 물기가 뿔 어리는것을 띄여보신 그이께서는 그의 손을 힘주어 잡아주시며 더없이 친근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부대들이 닭공장가까이에 있으니 전연병사들이 금방 낳은 따끈한 닭알을 먹게 되였구만.》

《그렇습니다. 할매령밑에 있는 포려단을 내놓구는다.》

《할매령?!...》

급히 몸을 돌리시는 그이의 안광에서 이름모를 빛이 번쩍이였다.

《여기서부터 300리길입니다.》

《그 부대에 가봅시다.》

다급히 울리는 그이의 말썬에 붉게 상기되었던 차병철의 얼굴이 한순간 희뻗혀졌다. 멀고 외진 곳에 있는 그 부대에 자주 나가보지 못한 그였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차병철이 관심밖에 두었던 그

려단으로 가보자고 하실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군단장의 우뚝한 코마루에는 송골송골 진땀이 내배였다.

야전차는 닭공장을 에돌아 그 뒤쪽에 서슬푸르게 솟은 북연봉령길을 뚫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차가 몹시도 들추었다.

《이크, 닭알이 다 깨지겠군.》

운전사와 총정치국일군이 그이께로 동시에 얼굴을 돌리었다. 무슨 닭알말입니까, 휘둥그런 눈들은 이렇게 묻는듯 하였다.

《어째서 우리가 닭공장으로 온 길과 닭공장에서 부대로 가는 길이 이렇게 판판 다릅니까?》

총정치국일군은 그이의 근엄하신 시선에 눈길을 떨구며 어물어물 대답올린다.

《장군님께서 자주 넘나드시는 전선길부터...》

《최고사령관이 다니는 길이야 울퉁불퉁하면 뭐라고. 병사들에게 닭알을 실어갈 길부터 먼저 닦아여야지.》

높지는 않았으나 더없이 준절하신 음성이었다.

구분대식당에서였다.

일일창고를 돌아보시던 장군님께서 수행원들 뒤편에 서있는 차병철을 손짓으로 부르시었다. 그이께서는 새파란 남새가 무드기 담긴 쟁반을 손에 드신채 그에게 말씀하시었다.

《이게 냉이가 아니요.》

냉이였다.

《이 겨울에 어떻게 냉이가 다 있소?》

《...》

차병철은 공연히 냉이있만 만지작거렸다. 썩갓이나 배추라면 비닐박막온실에서 기르겠지만 이른봄 들나물인 냉이가 이 겨울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도시 짐작이 가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정황판단이 빠른 구분대지휘관이 청정한 목소리로 보고올렸다. 《부업장의 려단장아바이가 가져오군 합니다. 냉이를 기른다고 합니다.》

《려단장아바이가 냉이를 기른다?》

그이께서는 냉이를 유심히 들여다보시었다.

콩나물을 기른다는 말은 있어도 냉이를 기른다는 말은 듣느니 처음인 차병철이었다. 그는 얼른 말머리를 돌리었다.

《오래전에 이 부대에서 려단장을 하던 동무가 려너머에 부업기지를 꾸리고 돼지를 길러 병사들에게 보내주는 좋은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백승제가 아니요?》

다우쳐 물으시는 그이의 안광에서 또다시 이름모를 광채가 번뜩이었다.

차병철은 얼굴이 불깃해져서 구분대장을 쳐다보았다. 구분대장도 당황한 눈길을 어디다 두었으면 좋을지 몰라 허둥거리더니 《저희들은 그저 려단장아바이라고 부르곤 해서...》 라고 뒤말을 얼버무리었다.

차병철은 가슴에서 무언가 푹 부러져나가는것 같

았다. 할매령부업장에 올라 가봐야겠다고 생각은 했어도 종시 가보지 못한채 장군님앞에 서게 된것이었다. 허술한 푹이 먼저 터진다는 격이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냉이를 한웅큼 집어드시고 그 신선한 향기를 맡아보시었다. 쌀쌀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폐부로 흘러들자 가슴이 찌르르해지시었다.

봄냄새, 고향집정취, 어머니의 체취...

앓는 어머니를 위해 눈속에서 딸기를 얻어왔다는 전설은 있어도 냉이를 캐왔다는 전설은 들어보지 못했으리라. 겨울냉이의 사연을 아는 사람, 그 사람 뿐이다. 쇠덩이같은 인상에 부드러운을 주던 녀성적인 입술을 가진 사람, 그 입술에서 포알처럼 튀겨져나오던 구령소리는 얼마나 웅글차고 박력있었던가.

《돌격 앞으로!》

저 사람이야말로 군인에게 절맞는 목청을 가졌다고 수령님께서도 감탄하신 구령소리였다.

냉이의 사연을 오늘까지도 잊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다. 대좌 백승제.

30여년전 그이께서는 군부대를 현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보좌하여 전연초소를 찾으신적이 있었다. 그날 수령님께서 부대들의 시범전술 훈련을 참관하시었다.

망울진 진달래포기들을 다칠세라 에도시며 산중턱의 참관대로 오르시던 수령님의 땀발이 배이신 존안이 지금도 눈에 삼삼하신 그이시었다. 꽃샘을 하는 봄바람이 어리광치듯 수령님의 봄의투자락을 잡아 젖히었다. 그때 가슴줄이던 심정...

훈련은 포들의 일제사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뢰같은 타격이 앞산에 등우리를 틀고앉은 《적》 화점들과 화력진지들에 들부어졌다.

쌍안경을 드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지우측 칼롱선굴인돌이쪽의 《적》 화점들과 화력진지들은 지형상 철저히 소멸하기가 어렵다는것을 간파하시었다.

땅크들이 돌입하고 보병들이 내닫고있었다.

만약 칼롱선 굴인돌이 쪽에서 은폐되어있던 《적》 화력이 아군을 바짝 끌어당겨 놓고 직사로 갇힌다면... 그이께서는 손에 땀을 쥐시었다. 훈련마감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었다. 보병들은 기를 쓰고 고지정점으로 치달아오고있었다. 모두가 안도의 숨을 쉬는 순간에 예상치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

《나는 <불새>, 1대대장 들으라. 2중대가 칼롱선을 우회하여 xx목표를 타격하게 하라.》

류달리 찌렁찌렁한 목소리가 확성기에서 울려왔다. 《불새》란 포려단장의 대호였다. 한숨 돌리고있던 포좌지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부르렁거리는 포차들, 포가를 들어올리는 포병들의 시뻘건 얼굴들, 중대장의 새뉘소리가 울려왔다.

《건인차 교장.》

잠시후 려의 그 찌렁찌렁한 목소리가 울렸다.



《<불새> 2중대에서 말한다. 1포 우측 룡선으로, 2포 좌측 룡선으로, 돌격 앞으로!》

병사들과 어울려 포를 밀고 달려나가는 러단장의 다부진 어깨가 그이의 시야에 안겨왔다.

일순 참관대가 술렁거렸다. 시계를 보며 황황히 마주보는 총참모부 장령들, 부른 배를 힘껏 줄라맨 젊지 않은 중장이 다급히 뛰어내려가며 팔을 흔들며 대는 모습이 보였다. 당장 중지하라고 고함치는 듯 싶었다. 포려단장은 여전히 돌진하고있었다.

그가 바로 대좌 백승제였다.

...

그의 나이가 이제는 칠순이 가까울것이었다. 펄떡펄떡 하던 그 성미에 한적한 산속에서 집집승과 씨름한다는것이 미심쩍게 여겨지기도 하시었다. 그 이끼에서는 아직도 좁은 쥐고 계신 냉이를 물끄러미 들여다보시었다.

마당으로 나서시면서 그이께서는 병실이 들어왔을 뒤산을 가리키며 차병철에게 물으시었다.

《저 산이 할매령이요?》

《그렇습니다.》

《령너머에 가봅시다.》

차병철은 서산으로 기울어지는 해를 흘깃 바라보고 나서 강잉한 어조로 말씀드리었다.

《장군님, 거기로는 가실수 없습니다. 차길이 없습니다.》

《원래 땅우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길이 된다고 옛사람들도 말했습시다.》

그이께서는 차병철의 걸음으로 다가서시여 사뭇 조용하고 낮으나 의미심장하게 속삭이시었다.

《오늘 나하고 꼭 할매령에 가봅시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성큼성큼 산등성으로 오르시었다. 가파롭고 좁은 오솔길에 일행이 길게 늘어섰다.

×

령마루에 올라서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마전에 흥건히 내배인 땀을 닦으시며 숨옷 앞깃을 터놓으시었다.

눈앞에는 예상외로 대짜배기 합지를 련상케 하는 분지가 펼쳐져있었다.

쨍하게 맑은 겨울의 하늘아래 동화의 세계같은 은빛분지의 전경이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왔다. 산경사지를 따라 다락을 지어 규모있게 늘어선 집집승우리들, 토지정리한 논배미들마냥 네모반듯하게 구획지어진 사료포전들, 골아래 안침진 곳에는 회벽칠을 하얗게 한 산뜻한 집 한채가 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활달하신 걸음새로 눈을 말끔히 쳐낸 소로길을 따라 집쪽으로 내려가시었다.

길 양옆에 촘촘히 파놓은 호박구덩이에서는 금방 거름을 채워넣었는지 뜬김이 서러 오르고 눈덮인 포전에 거뭇거뭇 쌓인 거름더미에서도 김이 문문

피어오르고있었다. 그러나 인적기는 어데서도 느껴지지 않았다.

집앞에서 차병철이 나직이 주인을 찾았다.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다.

뜻밖에 집뒤에서 겹겹 고아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살찐 계사니 두마리가 뿔뿔거리며 나타나 문앞에 버티고 서는것이였다. 거드름스레 목을 빼든 그것들은 록보석같은 눈망울을 굴리며 낮선 사람들을 수상쩍게 여겨보는것이였다. 차병철이 문앞으로 다가서자 계사니들은 꺾꺾 위세를 돋구며 사납게 덤벼들었다.

《이놈들 봐라. 장령별도 모르는군. 안하무인이요. 파수병으로는 제격인걸.》

그이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유리알같이 맑은 대기속으로 메아리쳐갔다.

이때 집집승우리쪽에서 머리가 반백인 몸매 작은 녀인이 팔을 휘저으며 꽤 청청한 목소리로 소리치는것이였다.

《령감, 벌써 오셨수? 1호가 새끼 낳았시오. 열두 마리나...》

낮선 사람들임을 느꼈는지 녀인은 말을 삼켜버린다.

계사니들이 새로운 정황을 제 먼저 안주인에게 보고하려는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겹겹거리며 똥기작걸음을 재우친다.

장군님께서는 함뿔 웃음을 담으시고 집집승우리쪽으로 향하시었다.

웬 사람들인가 하여 마주 내려오던 녀인이 그만 오탁하니 그 자리에 못박혀버린다.

《이제야 찾아뵈여 정말 안됐습시다.》

따뜻한 인사말을 하시며 금시 주저앉을것 같은 녀인을 부축해주시는 그이의 얼굴에 봄빛같은 미소가 피어났다. 녀인은 넋을 잃고 우리들뿐이였다.

《장군님께서 어떻게 이런 힘지엘...》

그는 꼭 꿈을 꾸는것만 같은지 자꾸만 눈을 슴벅이였다.

《주인은 어데 있습니까?》

《방금 저 아래동넨, 새끼날이 돼지가 심상칠 않아서 수의사한테 가느라고... 어쩌나.》

《그새 무난히 열두마리를 낳았던 말이지요? 오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기쁘시겠습니까.》

《장군님께서 이런델 오실줄이야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새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물도 없는 산정에서 년세많은 로인님네들이...》

산중호수의 수면처럼 잔잔하게 울리는 정깊은 음성이지였다.

《제야 뭘... 바가지나 굶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령감이 절더러 변절자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늘 적적하게 지내던 녀인이 그지없이 다정하신

그이께 속생각을 죄다 터놓기 시작하였다.

《저희들이 예와서 보통이를 풀었을 때 여긴 새초만 설령대던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전기불이 있나, 텔레비를 보나, 령감이 날 한생 나무계짜 지워서 이산골, 저 골짜구니 끌고다니다 늑마에 이런 무인지경에까지 데려왔구나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걸 군관의 안해가 이래서야 되나 하고 강심을 먹고 령감 뒤바라질 했습니다. 집짓고 밭일 구고 취낸 돌로 축사짓고 돼지시중, 염소시중, 토끼시중 들고나면 막...》

너인은 불시에 입귀를 비죽거리며 눈물을 쭈르르 흘리었다.

그이께서는 가슴이 몽클하시여 눈길을 돌리시었다.

크고 작은 돌을 맞물려 다락을 만들고 알뜰하게 지은 집짐승우리들을 무심히 보실수가 없으시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드시었다.

《작식들이 여럿되겠습니다.》

너인은 주책없는 자기를 다잡으려는듯 바빠 눈언저리를 문지르며 주름진 얼굴에 웃음을 지었다.

《6남매나 됩니다. 딸아들은 평양에서 중앙기관 간부를 하구 둘째, 셋째는 군관들입니다. 서루 다 부물모시겠다구 애를 태웁니다. 딸들은 예와서 보고는 고만 눈물을 팡팡 쏟습니다. 저마끔 모셔 가겠다고 별의별 사정을 다하지만 령감이 어디 말을 듣습니까. 제가 참다못해 한번은 울러댔습니다. 령감, 이젠 시중 못들겠시요. 우리 나이레 얼마줄 알우? 죽기전에 며느리가 챙겨주는 밥상 받아보구 손주녀석들 궁둥이를 두드려 보며 살아왔으믄 원이 없겠시요. 령감이 정 뻔대면 나혼자라도 가고 말테니 그리 아시우. 그랬더니 내 손바닥에 꼭꼭 글자를 쓰지 않겠습니까. <변> <절>

<자> 하구 말입니다.》

《저-런, 한생 혁명군대의 작식대원으로 살며 받들어준 동지인데 어쩌면 그럴수가 있습니까?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처벌을 줘야 하겠습니다.》

짐짓 엄한 기색을 지으시는 그이이시었다.

《아이고, 처벌이야 무슨...》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런게 아니구, 실은 령감이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큰 별을 네개씩 달고 차를 타던 량반이 군복벗구 뜨물초롱을 들고 새벽마다 젊은 군관들의 집집을 찾아다니자니 오죽했겠습니까.》

《이 령너머에 가서 뜨물을 날라온단 말이지요.》

《바가질 굶긴 했지만서두 령감의 속이야 모르겠습니까. 그는 여길 못떠납니다. 군대결을 떠나질 못합니다. 한번은 절보고 죽어서도 이 령에 묻히자고 하는것이 아닙니까. 군대들이 훈련하는거랑 내려다보며 누워있으믄 좀 좋은가고 하면서...》

너인은 꼭 붙들고있던 그이의 말에 얼굴을 묻는다. 들먹거리는 너인의 어깨를 쓰다듬으시듯 따뜻하나 갈리신 음성이 울리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불상사가 있는 모양인데...》

《령감말입니까? 아직 단단합니다. 그런데...》

집짐승우리쪽에서 돼지가 꿀-꿀 소래기를 질러댔다.

그이께서 물기어린 눈가를 쪼프리시며 기꺼우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새끼를 열두마리나 낳든 1호가 속이 텅비었다고 룡성을 합니다. 같이 가봅시다.》

《아이구, 거긴 장군님 가실데가 못됩니다. 내 얼른 먹이를 퍼주고 오겠습니다.》

너인은 팔팔한 걸음새로 집쪽으로 종종걸음을 쳤다.

장군님께서 그를 따라하시었다.

구새통으로 연기가 몽글몽글 솟구치는 그 집은 들어 가보니 살림방이 아니라 창고겸 사료조리실이였다. 주련이 매단 덕대에는 룡가마니들과 말린 사료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었고 바닥을 까고 들여앉힌 저장탱크에는 풀김치가 가득차있었다. 간막이를 한 곳에 커다란 쇠가마를 두개 건 조리실이 있었는데 뜬김이 자오룩하였다.

도대체 로인량주는 어디서 숙식할가 하고 생각하시며 그이께서는 창고안을 휘둘러보시었다. 덕대밑으로 나들문이 보였다. 허리를 굽히시고 문을 열어보신다. 그 구석에 작은 살림방이 잇달려있었다.

너무나도 간소한 살림살이가 첫눈에도 알리는 비품들과 부엌세간들이었다.

그이께서는 시렁 한끝에 매달린 등잔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었다.

이어 갓낳은 새끼돼지들이랑 집짐승우리를 일일이 돌아보신 장군님께서서는 그 뒤켠에 있는 태양열 온실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피곳 뒤를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목책에 몸을 실은채 심각해진 낮빛으로 우두커니 서있는 군단장을 손짓으로 부르시었다.

《군단장동무, 여기 온실이 있소.》

차병철이 달려올라와 그이앞에 차렷자세로 섰다.

무엇인가 토설하고 싶어하는 기색이었지만 그이께서는 짐짓 못본체 하시며 그를 앞세우시고 성에가 하얗게 불린 온실문안으로 들어서시었다.

밖에서는 그닥잡아 보였는데 안에 들어서니 희한하게 푸른 세계가 일행을 마주하였다. 흙이 있는 곳이면 벽에도 바닥에도 공중에 매달려있는 화분에도 푸른 식물이 자라고있었다. 온실은 작은 뽕기들로 구획지어있었는데 노르므레한 새싹이 뽕조름히 돌아난 곳이있는가 하면 팔뚝같은 오이가 달린 곳도 있고 푸르고 불그레한 도마도가 달린 구획도 있었다.

봄과 여름, 가을이 사이좋게 공존하는 신비의 세계였다.

하얀꽃이 한창인 딸기밭뽕기조차 있었다. 거기에는 《오영진(2. 25)》 라는 표말이 꽃혀 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엇비스듬히 깎아내린 벽면에서 교예사들처럼 누운 자세로 싱싱히 자라는 쑥갓을 뽑아드시고 뿌리가 내린 곳을 유심히 살펴보시었다.

《이것보오. 군단장동무, 흙담벽에 사선으로 구멍을 파고 부식토를 채워넣은 다음 쑥갓씨를 박아넣었구만. 군인정신에서만 나올수 있는 기발한 착상이요.》

**김정일** 동지께서는 쑥갓이 가득찬 벽면을 마치 진귀한 명화라도 감상하시는듯 가까이서 혹은 멀찍이서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여기서는 한줌흙이 얼마나 가치있게 리용되고있는것인지 피를 쏟고 생명을 바치면서 한치의 땅, 한줌흙의 귀중함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이것도 남새요?》

《풀갈구만.》

누군가 수군대는 소리에 장군님께서는 그쪽으로 몇걸음 옮기시었다.

거기서는 들판이나 산기슭의 물같은 키가 꺾충한 식물들이 자라고있었다.

《이건 복수초로구만. 항간에서는 복풀이라고 하지.》

노랑꽃이 입술을 벌리는 식물앞에 오금을 꺾고 앉으시며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이였다. 그 식물에는 《리성남》이라고 쓴 마분지표쪽이 걸려있었다. 표쪽을 이쪽저쪽으로 돌려보시던 장군님께서 그 의미를 물으시는듯 차병철을 올려다보시었다.

《관리자의 이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끝을 우물거리는 그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그런 표쪽은 긴 꽃대우에 적자색꽃이 피어난 식물에도 있었고 들깨이파리같은 너부죽한 잎이 어긋맞게 붙어있는 식물에도 매달려있었다.

《복수초는 심장병에 쓰이는 약초이고... 이건 깨물, 저건 속단, 속단의 뿌리는 짓쪼어 뼈가 부러지거나 타박상을 입었을 때 쓰면 효험이 있소. 언제인가 수령님께서 자신께서는 못자셔본 풀이 없다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오. 산에서 싸울 때 풀이란 풀은 다 식량이였구 약이였다고 하시였소.》

나직이 하시는 말씀이시였으나 멀기치는 파도처럼 일행의 심장벽을 두드리었다.

《깽쟁이풀에는 <김기태>, 짚신나물에는 <김진세> 라.》

혼자말씀처럼 외우시던 그이의 안색이 환히 밝아지시었다.

《깽쟁이풀은 눈병치료에 쓰는 약초요. 그러니 김기태병사에게 눈병이 있다. 그 뜻이구만. 김진세에게는 조충증이 있는 모양이요.》

장군님께서는 마냥 즐거워하시며 차병철의 손을 잡아끄시여 팔기발뽀기로 가시었다.

《이젠 <오영진 (2.25)> 이 표쪽의 의미를 알만하지 않소?》

《아마 오영진병사의 생일이...》

《그렇단 말이야. 생일상에 딸기를 놔주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이의 열기띤 안광이 유난히 빛나시었다.

《장령동무들, 보시오. 이 할대령에 어떤 군인이 있는가를 보시오. 우리 군대에 어떤 당원이 있는가를 보란 말입니다.》

순간 문쪽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너져내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었다.

너무나 오래 입은탓인지 하얗게 색바랜 누비솜옷을 입은 사람이 퍼더앉아 백발을 떨며 흐느끼고있었다. 다부진 어깨가 세차게 오르내렸다.

그가 다름아닌 백승제일것이라고 누구나가 짐작하였다.

인간의 마음은 바닥을 알수 없는 심연이라고 한다. 인간애의 뜨거운 심장을 지니신 위대한분만이 그 심연까지도 속속들이 헤아릴수 있으리라.

《백승제동무입니까?》

다급하신 그이의 음성.

《...》

성성한 백발이 천천히 쳐들리었다. 눈물에 젖은 구리빛얼굴이 그이를 우러른다.

갑자기 장군님의 안색이 변하시었다. 쪼프리신 안광으로 그를 이윽도록 바라보시었다. 그이의 뇌리에 새겨진 백승제와는 어쩐지 다른 모색이였다.

흘러간 세월탓인가? 아니, 분명 모색이 달라졌다. 쇠쪽같은 인상에 부드러움을 가미하던 선명한 입술이 아예 달라져버렸다. 그이께서는 어깨를 알릴듯 말듯 움칠 떠시었다.

《백승제동무가 옳습니까?》

불안스레 울리시는 그이의 낮은 음성.

《...》

《포려단장 백승제동무가 옳은가 말입니다.》

또다시 안타까이 되뇌이신다.

《...》

아연해서 바라보는 차병철의 당혹한 눈빛, 더는 자제할수 없는듯 로인의 팔을 감사납게 움켜쥐며 부르짖는다.

《아바이.》

이때 구석쪽에서 녀인의 울음섞인 목소리가 나직이 울리었다.

《장군님, 우리 령감이 말을 못합니다.》

정하니 고막을 울리는 정적, 이윽하여 비통하신 그이의 음성이 정적을 깨치었다.

《어쩌다 그렇게 되였습니까?》

《강행군훈련을 한날에 중대병원에 불이 났습니다. 화독결에다 말리우던 신발에 불이 당긴 모양이였습니다. 마침 병실을 돌아보던 령감이 제때에 발견하여 다들 무사했는데 위병소에 누워있던 전사만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령감이 불속에 뛰어들어가 업어내오다가 그만 불을 삼켜서...》

그이께서는 쿡 쏘는듯 한 아픔에 호흡이 가빠지  
시였다. 화상을 입어서 모색까지 변하였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와작 저려나시였다.

《대좌동무!》

목메여 부르시며 로병을 와락 그리안으시는 그이  
의 안광에 핑그르르 고이는 눈물.

그이께서는 로병의 백발을 아프게 내려다보시였  
다. 이 한오리, 한오리가 오직 병사들을 위해 희여  
졌을것이다. 세상에 이런 값있는 백발이 또 어데 있  
을것인가!

《목청을 잃었다니 그게 정말입니까? 그 우렁차고  
기백있던 돌격구령을 이제 더는 들을수 없단 말입  
니까? 수령님께서도 생전에 잊지 않으신...》

갑자기 목안에서 찢릿하고 뜨거운것이 꿈틀하고  
치미시였다. 눈굽이 화끈해지시였다.

전투장에서 군집단의 혼연일체, 행동일치는 지휘  
관의 구령으로 이루어진다.

《돌격 앞으로!》

피어린 전장에서 그가 웨치던 이 돌격구령은 전  
사들을 참호에서 일떠세웠고 비발치는 탄우속으로  
서슴없이 뛰어들게 했었다.

전연부대 부대장으로 사업하던 나날에도 전조선  
에 찌렁찌렁 울리던 그의 목소리.

《동무들의 훈련성과를 축하합니다.》

그러면 병사들은 심장으로 화답하곤 했었다.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

그 뜨거운 심장의 화답을 더는 주고받을수 없음  
을 알았을 때 그의 심정이 얼마나 찢겼으랴! 이제  
더는 군사복무를 할수 없다는것을 알았을 때 그가  
체험했을 고뇌, 살을 저미는것 같은 아픔을 속속들이  
느끼시며 그이께서는 가슴이 터지는듯 하시였다.

《어찌자구 이런 무인지경에 숨어계신단 말입니  
까? 대좌동무야 공로자대우를 받아야 할분이 아닙  
니까. 자식들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도 쓰린데...》

목이 꺾 메이시며 말끝을 맺지 못하시는 그이의  
흐릿해진 안광에 맑은 눈물이 글썽하시였다.

백승제는 숨웃주머니에서 자그마한 수첩을 꺼내  
었다.

그리고는 거기에 매달려있는 원주필로 수첩장에  
글을 쓰는것이였다.

《마음의 군복은 벗을수 없었습니다.》

그랬을것이다. 그가 어찌 락동강가에 쓰러진 전  
우들을 잊을수 있으랴. 심혼을 다바쳐 사랑해 온 살  
불이들인 병사들의 결을 떠날수 있었으랴...

**김정일** 동지께서는 나무등결같은 그의 손을 꼭 그  
려주시였다. 포화에 절고 흙과 거름에 절고 물에 부  
풀고 찬바람에 튼 크고도 억센 손이였다.

그 손이 다시 수첩장에 톱박톱박 글을 새기는것  
이였다.

《냉이를 키웠습니다. 그날의 냉이씨를 받아서.》

장군님께서서는 불시에 온몸이 찢터해나시였다.

부르르 떠는 백승제의 손이 그이를 이끌어간다.

희미한 저녁빛속에서 파란 주단처럼 보이는 포전  
앞에서 그이께서는 우뚝 걸음을 멈추시였다. 순간  
그이의 격하신 음성이 온실안을 콕 채웠다.

《냉이요. 여기서 겨울냉이가 자라고있소.》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무릎을 꿇고 앉으시여 기름  
기가 자르르한 냉이발을 어루쓰다듬으신다.

조심히 한포기를 뽑아드니 풍성하지도 호할지  
도 못한 보잘나위없는 들나물이였다. 쌀쌀하면서도  
상긋한 냄새를 폐부로 깊숙이 들이키시는 순간 또  
다시 가슴노리가 서서히 아파나시였다.

가슴을 치며 밀려드는 추억의 물결.

...

훈련은 백승제의 돌발적인 돌격명령으로 예정시  
간보다 20분이나 늦어져서 끝났다. 치차처럼 맞물  
려있는 수령님의 일과에서 20분이란 결코 작은 시  
간이 아니였다.

덧쌓이는 파로로 해서인지 수령님께서서는 늦은 점  
심도 수저를 들다 놓으시였다. 훈련장에서 찬바람  
을 맞으신것이다. 지체된 20분이 **김정일** 동지의 심  
중에 딱 걸리는것을 어찌할수 없으시였다. 어떤 일  
이 있어도 수령님께 휴식을 드려야 한다. 급히 평양  
으로 돌아가셔야 한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며 그  
이께서는 수령님께서 계신 렬차칸으로 가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총참모부일군과 담화하고계시였다.

총참모부일군의 느긋한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왔  
다.

《그 동무는 전쟁때 보병지휘관으로 안동해방전  
투와 락동강도하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락동강  
을 건느면서 소대장에서 대대장으로 도약승진을 하  
였는데 그때 포와 운명적인 인연을 맺었습니다.

도약승진도 포덕이라고 합니다.》

《강 하나를 건느면서 소대장에서 대대장이라...  
중대장들이 희생되고 대대장도 희생되었을테지. 락  
동강도하전투가 그렇게 치열했소.》

물이 아니라 피가 사품쳐 흐르던 락동강을 회억  
하시는지 수령님의 미간에 깊은 굽이 패이시였다.

화제의 인물이 문제의 포려단장이라는것을 그이  
께서는 대뜸 집작하시였다.

《그때 그 동무는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을 이끌  
고 강대안의 교두보를 점령할 임무를 끝까지 수행  
하였습니다. 적들이 대안의 높은 벼랑우에서 포를  
썩대고 기관총을 휘둘러 대는 바람에 대대는 희생  
만 내면서 도무지 강을 건널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백승제동무가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적들이 내버리고간 포를 끌어다가 부상당한 포병에  
게서 포쏘는법을 배워가지고 돌격전에 나갔습니다.  
폐목에 포를 태운 그는 폐목을 밀고 나가면서 연방  
소리쳤습니다.

<돌격>, <돌격>, 구령이야 어쨌든 포는 철새없이 불을 뿜었고 교두보는 점령되었습니다. 그때 부상당했던 포병이 지금 군사대학에서 교원을 하는데 전쟁경험을 강의할 때는 늘 그 일을 화제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승제동무가 포려단장으로 제발되었을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들으신 기억이 있었던지 느슨한 미소를 지으시며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그게 그 사람 일화였구만. 그 동무는 오늘도 락동강의 그 돌격정신으로 살고있구만. 훈련을 해도 실전으로 여기면서 한단 말이요.》

수령님께서는 못내 흥분하신듯 렬차안을 거니시었다.

《<수령을 위해 돌격앞으로!>

전쟁때 우리 인민군대는 이 구호를 웨치면서 돌격로를 열어나가기 하엿소.》

수령님의 열띤 안광에서 번개같은 빛이 날리였다. 총참모부일군이 돌아간 후에도 수령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천천히 렬차안을 오가시었다.

수령님께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한없이 부드러우나 크나큰 힘이 느껴지는 자애로운 음성이 울리였다.

《포려단장한테 갔다와야겠구만.》

**김정일** 동지께서는 경건히 수령님을 우러렀다.

《최고사령관이 그를 리해한다고 말해주고싶구만. 그 동무의 변함없는 돌격정신을 지지한다고 말이요.》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몽클하시여 묵묵히 서계시었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막중한 파로상태가 아니신가 말못할 피로움과 안타까움, 절절한 마음이 한가득 고이신 그이의 애뜻한 시선을 담담히 받으며 수령님께서는 부드럽게 이르시었다.

《나는 일없소. 룩신의 아픔이야 마음의 아픈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제가... 포려단장한테 다녀오겠습니다.》

백승제는 그때까지 훈련장의 포자지에 열없이 앉아있었다.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해가 측은히 돌아다보고있었다. 그의 부드러운 입술이 탈탈 말라가물때 눈바닥처럼 터갈라져있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엄격하게 질문하시었다.

《포자지를 옮겨서 적화력을 소멸하느라 훈련시간을 어기게 된다는것을 생각했습니까?》

《생각했습니다.》

《어떤 훈련이라는걸 설마 잊지아 않았겠지요.》

그걸 잊을수 있느냐는듯 백승제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고뇌가 끊은 눈에서 불이 펴갯하다 꺼져버렸다.

《보병들에게 포사격지원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엿습니다. 사전에 예견했어야 하는건데...》

그는 가슴을 쥐어뜯었다.

《하지만 <적> 화력에 병사들이 쓰러지는것을 보

고만 있을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이께서는 가슴을 치는 그의 주먹을 따듯이 감싸쥐며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 그 심정을 알고계십니다.》

《예?!》

백승제는 울었다. 역센 사나이답게 소리없이 울었다. 군복입은 사나이에게도 그렇게 눈물이 많았던가. 이런 때는 혼자 있고싶을것이라고 생각하시며 그이께서는 봄별이 호듯호듯 내려쬰이는 산자드락질을 천천히 걸으시었다. 식사때 수저를 들었다 놓으시던 수령님의 모습이 떠오르며 가슴이 와작저러나시었다.

발밑에서 묵은 덩불이 부스럭거리였다. 누렇게 마른 해묵은 풀잎사이로 파릇파릇 돌아나는 봄나물들이 빠금히 울러다보고있었다. 그옆에 발긋한 냉이가 모록이 돌아난것을 띠여보신 그이께서는 앉은 걸음으로 냉이를 캐기 시작하시었다.

《냉이는 무엇때문에, 캐십니까?》

아직도 물기가 습배인 툇한 목소리가 곁에서 울렸다. 백승제였다.

《수령님께서 아침도 몇술 뜨다마셨는데 점심은 아예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 언제인가 이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산에서 싸울때 내가 몸살이 와서 입맛을 잃은적이 있엿소. 그때 정숙동무가 냉이를 토장에 끓여온걸 들고 입맛을 돌렸소. 정숙동무가 양지쪽 눈더미를 헤치고 냉이를 캐오느라고 손끝에 피멍이 졌댔지.>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묵이 콧 잠겨들이 뒤말을 잊지 못하신다. 문득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만경대에 다녀오시다가 논둑에서 냉이를 캐시던 일이 생생히 떠오르시었다. 다정스런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시었다.

《뿌리채 먹는 이 냉이는 열대림약으로 쓰인단다. 이건 말냉이라고 하는데 씨는 눈을 밝게 하는 약재이고요 다닥냉이씨는 오줌내기약으로 쓰이지.》

백승제가 그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드렸다.

《저기... 조금 더 가면 참기름내가 나는 냉이가 있습니다.》

그의 짓물린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끓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이파리에 기름기가 잘잘 도는 냉이를 담뿍 캐가지고 렬차로 돌아오시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그 냉이국을 드시고 정신이 든다고 하시며 또다시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그 냉이가 30여년의 세월을 넘이 눈덜인 이 겨울에 예서 파랗게 자라고있는것이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직도 잠안에서 파들거리는 어린 냉이를 물끄러미 들여다보시었다.

캐온 냉이를 맑은 물에 행구고 또 행구시던 일이며 곱돌장사귀에서 맛갈스럽게 보골보골 끓던 그날의 냉이토장국이 눈앞에 선하시었다. 구수하고 향

그런데 그 독특한 냄새마저 그리웁게 풍겨오는듯 싶으시었다. 냉이국을 뜨신 수령님의 숟가락이 가늘게 떨리었었다. 한모금, 두모금 애써 넘기시던 수령님의 안팎에 평 어리시던 물기...

아- 못잊을 추억과 함께 어머니의 체취를 불러오는 이 냉이가 봄들판에 흔한 한갓 나무만일가? 헌신, 자기희생, 불같은 동지애라고 하는 그 모든것의 응결체가 아닐가. 비바람 몰아치나 눈보라 지동치나 시련에 찬 조선혁명의 길에 훗훗한 봄향기로 싹과 용기를 백배케 해주던 그 원천이 아닌가.

사랑은 소리가 높지 않아도 심장을 친다. 백승제는 오늘도 병사들과 대화를 하고있다. 그의 언어는 냉이이다. 그것으로 오늘도 돌격구령을 웨치고있다.

《수령을 위하여 돌격앞으로!》

《장령동무들, 병사들에게 바친 사랑이 없는 돌격구령을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건 마지막 판가리싸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백승제동무처럼 한생을 깡그리 바치고 한마디 돌격앞으로를 웨칠줄 아는 지휘관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병사들은 구령소리가 낮아도 아니, 아예 들리지 않는다 해도 그런 지휘관을 따라 죽음도 주저없이 맞받아 나갈것입니다. 핵분열때보다 핵융합시에는 더 엄청난 에너르기가 얻어진다고합니다. 사랑이 화합될 때는 **그**에 대비조차 할수 없는 위력이 얻어집니다. 승리는 그 힘이 떠반들어 올릴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걱정으로 떨리는 손을 백승제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었다.

《동무는 오늘도 대화시절보다 더 우렁찬 목소리로 최고사령관이 치고싶은 돌격구령을 전군에 웨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 니... 다.》

속삭임같은 음성이 모래불에 물이 잦아들듯 가슴 가슴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차병철에겐 그이의 차분하진 음성이 심장을 치는 함마의 메칠소리같이 몸을 흠칠 떨었다.

(그런데 나는 백승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듣고 그저 제대군관들에게 흔히 있는 미담으로 생각했었지.)

심장을 깨우는듯 한 아픔에 그는 전율하였다.

백승제가 군복을 벗을무렵에 군관학교로 떠나갔던 차병철이었다. 그후 남달리 빠른 속도로 군단장으로까지의 승진일로를 걸어왔었다. 하지만 어깨 위에 별은 없으나 병사들의 마음속으로 한치한치 톨아들어간 백승제의 인생길이 진정 장군님 가까이로 다가선 길이었음을 그는 사무치게 깨닫는것이였다.

밝은 별씨 어둑해졌다.

산촌의 겨울밤은 급작스레 덮쳐든다. 검푸른 밤하늘에 파랗게 눈뜬 별들이 아직도 저들만이 아는 사연을 소곤대는듯 싶었다. 후더워지는 가슴들은 바늘끝처럼 스며드는 냉기를 감촉하지 못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백승제와 힘들게 작별하시였다.

그의 나무등걸같은 손을 잡으시고 오래동안 놓지 못하시던 그이께서는 숨웃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시여 그의 손에 끼워주시었다. 그것은 어느 중학교의 녀학생이 편지와 함께 떠보내올린것이였다.

령마루를 내려서시기전에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분지쪽을 내려다보시었다.

골안에는 깊이를 모르는 어둠이 깔려있었다. 자꾸만 따라서던 백승제부부의 모습도 어둠에 녹아진듯 더는 보이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었더라.》

그이께서는 입속말로 외우시며 어둡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시었다.

그때 차병철은 거센 숨소리를 힘들게 다스리며 가슴을 그물그물 태우던 생각을 말씀올리었다.

《장군님, 저는 오늘에야 장군님께서 자욱자욱 정과 애를 쏟으시며 병사들을 찾고 또 찾으시는 선군장정의 길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안것 같습니다. 최후의 돌격구령 그 한마디를 위해서라는것을... 오늘은 저의 인생에서 특별한 날입니다. 제 꼭 인생의 새 출발을...》

《아, 됐소. 그만하오.》

그이께서는 불쑥 치미시는 이름할수 없는 친근감을 어찌지 못하시며 젊은이의 싱싱한 혈기가 넘쳐나는 어깨를 힘주어 그리안으시었다.

《할매령에 전기를 끌어올릴수 없을가?》

《전기를 끌어올리겠습니다. 수도공사랑.》

《그래주오.》

그러나 그이께서는 이윽도록 골안 어둠속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

《그 사람이 정말 용하오. 한생을 그렇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

《영웅내신을 하려고 합니다.》

《음.》

그이께서는 총정치국 일군을 손짓으로 부르시더니 《군대는 물론 사회적으로 그 동무에 대해 널리 소개하고 실효모임도 조직하도록 하시오. 아 참, 로인부부를 평양에 데려다가 검진도 다시하고 틀이도 해드려야겠소.》

그에게 목소리를 되돌려줄수는 없을가?...》

그런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인가 미진하신듯 선뜻 걸음을 떼지 못하시었다.

이윽하여 령을 내리며 얼마쯤 걸으시던 그이께서 다시 무춤 멈추어서시며 갈린 음성으로 조용히 되뇌이신다.

《냉이, 냉이... 겨울날에 봄철냉이라! ... 우리가 그동무에게 무엇을 더 줄수 있을가?》

## 신기한 발자국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곳이면 안도땅이건 장백땅이건 그 어데라없이 이런 노래가 돌아갔다고 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에 새별도 밝다  
백두산 끝짜기는 얼마나 깊은지  
왜놈들 들어가면 못나온다

작사자나 작곡가는 알수 없으나 노래는 생겨났고 널리 불리워졌다고 한다. 백두산에는 크고작은 봉우리들과 끝짜기들이 천인지 만인지 모른다. 그 헤아릴수 없이 많은 끝짜기들과 봉우리들에서 왜놈들 《토벌대》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죽어났는지 그것은 더욱 알수 없다.

매복에 걸려 죽어나고 기습을 받아 풍지박산이 되고 따라오다 전멸되고 도망치다 그대로 황천객이 되고...

실로 백두산의 끝짜기들은 그대로 왜놈들의 《합정굴》이 되고 봉이들은 그대로 왜놈들의 《죽음터》였다.

어찌보면 울울창창하게 펼쳐진 천고의 밀림이 무사태평하게 설레이고있는것 같지만 그 푸르고 무성하고 무한대한 백두의 밀림은 자기의 깊고 넓은 품안에 얼마나 위대하고 거세차고 뜨겁게 타번지는 혁명의 불길을 감싸안고 자기의 성스러운 끝짜기들과 봉우리들에서 《토벌》에 미쳐날뛰던 왜놈들에게 파멸의 불벼락을 안기군 하였는가.

령산의 끝짜기와 봉우리와 비탈들은 왜놈의 군대이든 경찰이든 할것없이 자기의 신성한 땅에 어지러운 발길을 들여놓는 놈들이면 그 불손한 침입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하군 하였다.

때문에 일제군정들은 《토벌》에 나서기는 했지만 울창한 수림속 어느 나무뒤에서 명중탄이 날아와 자기의 가슴을 뚫을지 몰라서 늘 소타고 얼음판을 건너가는 심정이였다.

오죽했으면 한때 《토벌대》를 이끌고 만주의 산발을 메주밟듯 했다는 스와가 게이조라는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겠는가.

《〈토벌〉이란 실상 쫓겨 다니거나 피해다니는 과정의 연속이였다. 무서움에 시달리면서 〈토벌〉을 한다는것은 벌써 거짓말이였다. 나는 〈토벌대〉대장을 3년동안 지내고나니 심장이 작은 바람에 조차 바르르 떠는 종이장마냥 얇아졌다.》

이것은 솔직한 고백이였다. 《무적황군》이라 떠든것은 허세였다.

술가지에 스치는 바람소리는 **김일성** 장군 유격대

가 눈에 보이지 않게 지나가는것 같고 떨어져내리는 술방울은 당장 수류탄이 되어 《땅》 하고 터질것만 같아서 질겁을 하군 하였다.

더구나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천변만화의 전범으로 때로는 하늘의 번개를 휘몰아다가 적병들의 머리에 불소나기를 들썩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잣송이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기여드는 원썩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군하신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우뢰소리가 우렁땅땅 거려도 그것이 **김일성** 장군의 노하신 호령소리로 들리고 폭우가 쏟아져 사태가 무너져내리고 사나운 돌개바람이 휘몰아쳐 나무가지들을 와지끈 지끈 분질러버려도 그것이 꼭 **김일성** 장군님께서 일으키시는 천지조화같이만 생각되어서 등골에 얼음물이 흘렀다.

어느 겨울날이였다.

일제 《토벌대》 대장 나가시마라는자는 졸병들을 거느리고 백두산의 산발들과 끝짜기들을 뒤지고 있었다.

유격대를 《토벌》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도무지 승산이 가지 않았다.

《숲속에서 바늘찾기》라는 말이 있듯이 무변광대한 이 밀림속에서 유격대를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어느 목재소가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헬레벌떡 달려가면 그때는 벌써 유격대는 종적없이 사라지고 또 어느 끝짜기에서 유격대가 숙영하는걸 보았다는 소리를 듣고 천방지축 달려가면 천막을 쳤던 자리만 남아있을뿐이다.

꼭 눈감고 술래잡기를 하는것 같아서 맥이 빠지고 지쳐버린 나머지 잠시 숨을 돌리려고 머물거리면 그때엔 또다시 번개같이 나타나서 총알소나기를 들썩워 송장무대기를 만들어놓고는 또 바람같이 사라져버린다.

얼어맞으면서도 따라다니는 신세... 보이지도 않고 손에 쥘수도 없는 바람을 잡으려고 헤매는것과도 같은 허무맹랑한짓에 맥이 빠지고 신물이 났지만 어쩔수가 없는 일이었다. 군인에게는 《명령》이라는것이 있었던것이다.

그저 어느 어둑시근한 숲속 어데선가 《땅》 하는 야무진 총소리와 함께 불줄기가 쏟아져나올것만 같은 그 불안만 없었으면 좋으련만...

눈보라가 사정없이 휘몰아쳐 와서 불파귀를 쫓아드리기도 하고 목덜미에 차거운 눈가루를 끼얹기도 했다.

어떤 때에는 눈사태가 무너져내려서 온 부대를 눈구덩이속에 처박기도 했다.



깊은 눈속에서 두더지처럼 기여다니다가 하얀 눈사람이 되어 겨우 뚫고나오면 이번엔 진대나무가 앞을 막았다.

《이것도 **김일성**장군이 도술을 쓰는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갈마들어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다.

하루종일 이렇게 헤매던 나가시마는 어서 해가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는 이 하루도 하느님이 도와주어 별일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런데 시간은 왜 그리도 굼뜨게 가는지...

나가시마는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가까운 부락에 내려가 쉴 작정으로 느릿느릿 산비탈을 내려왔다.

그런데 이런 속상한 일이라구야... 눈치없는 한 줄병놈이 이상한 발자국 하나를 발견하고 펄쩍 놀라서 소리쳤다.

《대장님, 여기에 이상한 발자국이 있습니다.》

(벌어먹을 자식... 못본척 할것이지...)

나가시마는 낯을 찡그리고 그리로 걸어갔다. 눈우에는 방금 지나간 발자국이 찍혀있었는데 놀랍게도 송아지가 누웠던 자리만큼이나 큰 발자국이였다.

나가시마는 그것이 설괴를 신은 유격대원들이 한 줄로 서서 자욱을 덧찍으며 행군해간 흔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발자국을 따르라. 기껏해야 여라문명이다.》

나가시마는 병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대장님, **김일성**장군 유격대는 천명, 만명이 행군해 가도 발자국은 하나뿐이라는데 일없을가요?》

줄병놈 하나가 겁에 질린 소리를 했다.

나가시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속이 떨리던 참이었으나 대장체면에 그런걸 내색할수 없어서 큰소리를 쳤다.

《왜 겁이 나는가? <대일본제국> 의 젊은 병사가 그렇게 비겁 해서야 무슨 군공을 세우겠는가?》

줄병놈은 찹소리를 못했다.

가도가도 발자국은 한사람이 걸어간듯 하나뿐이였다.

지형을 살피며 발자국을 따라가던 나가시마는 《좋아》 하고 무릎을 쳤다. 발자국은 《마지막골》이라고부르는 외통골짜기로 들어갔기때문이다.

랑쪽에 깎아지른듯 한 벼랑이 솟아있는 이 골짜기로 들어가면 마지막에는 또 깎아지른 벼랑으로 막혀버렸다. 때문에 더는 어디로도 빠질수가 없어서 그 이름도 《마지막골》이라 부른다.

이제 골짜기어구만 봉쇄하고 추격해들어가면 유격대는 틀림없이 잡을수 있다고 확신한 나가시마는 행군속도를 높였다.

《대장님! 저거...》

발자국을 발견했던 줄병놈이 또 놀란 소리를 하

며 앞을 가리켰다.

굉장히 긴 유격대의 행렬이 골짜기로 들어가고있었다.

유격대 행렬은 골짜기의 마지막이 막혔다는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가시마네가 뒤를 따르고 있다는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태평스럽게 자기 갈 길을 가고있었다.

대오의 맨앞에는 붉은기가 펄펄 날리고 대원들의 잔등에서는 백포자락들이 큰 새의 흰 날개인양 펄럭이였다.

(천명 만명이 행군해가도 발자국은 하나라는 말이 옳구나!)

나가시마는 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자기네 힘만으로는 자신이 없었던것이다. 그는 서둘러 유격대를 건드렸다가 오히려 제편에서 소멸당하는 그런 바보짓을 하고싶지 않았다.

나가시마는 유격대가 다른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골짜기어구를 봉쇄하는 한편 증원부대를 요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때로부터 두어시간이 지났을 때 우끼나헌병대장이 이끄는 증원대가 말을 타고 질풍같이 달려왔다.

《유격대가 어디 있는가?》

우끼나헌병대장은 말잔등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황급히 물었다.

《저기...》

손가락으로 벼랑쪽을 가리키던 나가시마는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방금전까지 벼랑밑에 모여앉아서 쉬고있던 유격대가 가뭇없이 사라졌던것이다. 참 귀신이 곡을 하다가 기절할 노릇이였다.

나가시마는 그만 꿀먹은 벼어리가 되어 눈만 꺼부럭거렸다.

《도대체 유격대가 어디로 갔느냐 말이다.》

헌병대장이 또 호통을 쳐서야 나가시마는 변명하듯 지금까지 있는 일을 자초지종 설명하였다.

《개자식! 거짓말쟁이같은놈... 당장 유격대를 찾아내라!》

헌병대장은 약이 올라서 소리쳤다.

나가시마는 헌병대장이 당장 군도를 뺏을것만 같아서 황황히 유격대의 행처를 찾아나섰다.

유격대원들이 쉬고있던 벼랑밑으로 달려가서 살펴보니 송아지가 누웠던 자리만큼이나 큰 발자국이 두개 있을뿐 다른 흔적은 하나도 없었다.

분명 몇백명의 유격대원들이 벼랑밑에 앉아서 쉬는것을 똑똑히 보았는데 무슨 도깨비조네데를란드 말인가. 자기 혼자 보았다면 혹시 잘못 볼수도 있겠지만 눈 가진 자들은 모두 함께 보았는데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이때였다. 처음 발자국을 발견했던 그 줄병놈이 또 놀라운 소리를 질렀다.

《대장님, 저기...》

그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깎아지른 듯 한 벼랑중턱에 커다란 발자국이 여러개나 찍혀 있었다. 그것은 눈우에 찍혀진 발자국과 크기나 모양새가 신통히도 꼭 같았다.

나가는마는 유격대원들이 벼랑우로 올라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날개라도 달렸단 말인가!)

나가는마는 두려운 생각이 휩쓸어 드는것을 어쩔 수 없었다.

《빨리 벼랑우로 올라가보라.》

현병대장이 또 호통질을 했다.

나가는마는 할수없이 허둥지둥 골짜기어구로 되돌아나와서 산기슭을 에돌아 벼랑우로 올라갔다.

그러나 유격대원들은 그곳에도 없었다.

《도대체 유격대원들이 어데로 갔단 말인가?》

아찔한 벼랑우에서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던 나가는마는 저도 모르게 《앗, 장수발자국골이다!》 하고 비명을 질렀다.

벼랑우에서 내려다보니 현병대장을 비롯하여 자기네 군대들이 몰려있는 골짜기는 신통히도 커다란 발자국모양이었다.

《장수발자국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있는 나가는마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사지가 얼어들었다.

그 이야기인즉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땅을 주름잡고 하늘을 휘저어서 벼락을 내리고 풍우를 휘몰아가 천만대적을 가랑잎 날려보내듯 하시는데 장군님의 발자국이 한번 찍힌 골짜기는 그 모양이 발자국형으로 변해버려 이런 골짜기를 《장수발자국골》이라고 부른다는것이다.

이런 골짜기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천명이건 만명이건 상관없이 일만군경모두가 몰살을 당한다는것이였다.

나가는마는 지금까지 《토벌》을 다니면서 늘 이런 《저승골》에 빠지지 않으려고 윈심을 쓰면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먼저 골짜기의 모양새부터 살펴보고 들어서군 하였는데 그만 이번에는 제스스로 《장수발자국골》에 들어섰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날벼락이 떨어지기전에 벼랑우로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벼랑우에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나가는마는 당장에 총알소나기가 저아래 골짜기로 쏟아져내릴것만 같아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세라 하늘이 깨지고 땅이 뒤집히는것 같은 요란한 총소리가 몰방으로 터졌다. 벼랑아래 골짜기에서 쉬고있던 현병대장과 졸병들은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어 갈팡질팡하다가 몽땅 시체로 변하고말았다.

그 모양을 제눈으로 직접 내려다본 나가는마는 자기가 골짜기에서 벼랑우로 빠져나오게 된것을 참

으로 하늘이 도왔기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냥 그곳에 있었다라면 어떻게 될번 했는가.

나가는마는 조선천지는 물론 중국땅에까지 널리 퍼진 《장수발자국골》에 대한 소문이 진짜였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산일대는 말할것도 없고 멀리 조선국내와 드넓은 만주땅에 이런 신기한 발자국을 무수히 새기신다니 《토벌》이 곧 《지옥》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나가는마는 지금까지 계속해온 《토벌》의 발걸음이 마지막에는 어디에 이르겠는가를 생각해보았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나가는마는 아득히 펼쳐진 수림의 바다를 바라보다가 눈이 커졌다.

천리만리로 펼쳐진 밀림의 바다우로 붉은기를 휘날리며 유격대의 행렬이 흘러가고있었던것이다.

방금 저아래 《장수발자국골》에서 현병대를 몰살시킨 그 유격대가 분명하였다.

《<**김일성**장군 유격대는 밀림의 바다우를 룽지 걸어다니듯 한다>는 말이 사실이었구나.》하고 나가는마는 얼빠진놈처럼 중얼거렸다.

나가는마는 그런 생각을 겨울이 다 지나간 어느 봄날에 더욱 굳히었다.

그날도 《토벌》에 내몰린 나가는마는 유격대행렬이 밀림우로 흘러가던 그곳에 가보게 되었다.

(저렇게 아찔하게 높이 자란 수림우로 어떻게 걸어갈수 있을까?)

아찔하게 높이 자란 이빨나무와 분비나무들을 새삼스레 올려다보던 나가는마는 그 우듬지에 유격대의 낡은 신발들이 걸려있는것을 발견하고 더욱 놀랐다.

그놈은 그 신발들이 분명 지난 겨울 천리수해에 굶이쳐가던 유격대의 행렬이 잠시 쉬면서 낡은 신을 벗어던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실 그것은 눈이 하도 많이 왔던 지난 겨울 유격대원들이 눈우에서 쉬면서 낡은 신을 벗어던진것인데 눈이 녹으면서 나무우듬지들에 었힌것들이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한번 자욱을 찍으시면 <장수발자국골>이 되고 장군님의 유격대원들은 밀림우로도 척척 걸어다니는다는 말은 내가 직접 본 사실이다.》

나가는마는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그 《신기한 발자국》은 장군님을 우러르는 인민들의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겨졌다.

**지홍길**

## 끝나고 시작된 6.15 의 노래

김성희

이제는 가버렸다  
외세의 길에 찍혀  
동강난 강토우에 흐르던  
그 세월은 영영 가버렸다

비명에 간 아버지를 찾아  
저세상에 갔다왔다는 전설은 있어도  
살아있으면서도 서로 만날수 없던 이 땅에  
우리 장군님 6.15의 노래로  
한해가 백년의 기쁨을 안아오는  
전설의 새 시대 펼쳐주셨다

그리움의 반세기를  
상봉의 기쁨으로 적시는 겨레여  
오늘이 며칠인가 묻지를 말자  
이제는 가버린 세월  
서로 찾고 부르며 가슴태우던  
그 세월은 대답하리라, 6월 15일이라고

철조망을 밀어제끼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로 이어지는 길  
묻지를 말자,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바야흐로 개통의 기적소리에 젖을  
삼천리는 대답하리라, 6월 15일이라고

평양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평양으로 오가며  
통일대회의 장을 펼친 꿈같은 날들  
구태여 력사에서 찾지 말자  
그 모든 날과 날들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6월 15일!

그렇다, 이날속에 다 있더라  
피타던 그 세월에 우리 소원한 모든것  
주의도 신앙도 가림없이  
온 겨레를 통일의 한길에 불러세우며  
이 땅에 굽이쳐온 6.15여!

온 겨레가 알자, 온몸으로 새기자  
끝나고 시작된 6.15의 노래  
우리 장군님  
백두산에서 처음 불러오시여  
우리 겨레에게 안겨주시였음을  
통일의 대교향곡으로 높이 울려주시였음을!

## 그 밤은 아침이었다

김태룡

사랑이란  
시간을 모르는 뜨거움인가  
우리 장군님  
남녘의 한 재력가를 찾아주신 때는  
자정가까운 깊은 밤

날밝은 아침에 오셔도 되시련만  
참된 인생의 길을 찾아  
백발을 이고 평양에 온 재력가  
한시빨리 만나주시려  
머나먼 현지도의 길에서  
힘한 밤길 한달음에 오신 장군님

과거를 덮어주시는 넓으신 도량  
통일을 위해 좋은 일 하라고  
민족공조의 앞장에 서라고  
겨레를 위한 길에 값높이 세워준  
새 출발의 은혜로운 축복이여

황금과 재부는 있어도  
겨레와 민족을 떠나 살아온 지난날에  
그 무슨 공지가 있었던가  
애국의 참된 길 찾을수 없어  
번민속에 방황해온 밤과 같은 한생  
장군님은 그 인생의 밤을 일시에 가셔주셨다

통일에 살아 어둠에 묻히지 않을  
밝은 인생길 열어주신 밤  
억만금으로도 살수 없는  
영광의 삶을 안겨주신 밤

아, 그 밤은 밤이 아니었다  
남녘의 한 재력가 백발인생이  
위대한 태양의 빛발속에 다시 태어난  
새삶의 아침이었다  
민족공조의 려명이 밝아온  
통일시대의 새 아침이었다

## 내 삶의 푸른 6월

-한 비전향장기수가 부른 노래-

전광철

6월은 푸른 계절이여도  
40여년 감방속에서  
나는 모르고 살았다  
한조각 푸름마저 잃고살았다

고문으로 피멍든 내 눈에  
철창너머 하늘은 피빛이었고  
주린 배 그러안고 쓰러졌을 때  
푸른 산천마저 노오랑던 6월이었다

강대마냥 말라버린 내 몸에서  
마지막 땀방울까지 짜내던 6월  
화독처럼 달아오른 먹방속에서  
차라리 겨울이 그립던 고역의 계절

언제부터나, 그 6월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찾아온것은  
광복년의 그날 내 머리위에  
가없이 푸르게 열렸던 그 하늘이  
다시금 내앞에 펼쳐진것은

그날은 6월 15일!  
숫구치는 눈물속에  
공동선언의 구절구절을 새겨안을 때  
이 가슴속에서  
6월의 푸르름이 물결쳐설레고  
고목인생이 청춘인생으로 환생했나니

봄, 여름, 가을, 겨울  
가고오며 계절은 바뀌어도  
생의 은인이신 장군님 계시여  
언제나 푸르른 6월에 사는  
내 마음에 계절이 따로 있었던가

바치리라  
내 인생의 푸른 6월을  
가꾸어주신 장군님께  
6월처럼 청청하게 충성을!  
6월처럼 무성하게 충성을!

## 아, 6월 15일!

리호근

모란봉기슭  
북남로동자통일대회장  
서로 부둥켜안고 함께 노래부르는 저 모습  
누가 북이고 누가 남인지 알수는 없어도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  
저 울밀대의 추녀도 들썩하게  
한목소리로 뜨겁게 웨치는 함성  
아, 이것이  
이것이 6. 15가 아니던가

북남대학생들의 통일련대모임  
언니야 동생아 다정하게 부르며  
서로 껴옥 잡은 손 놓지 못한채  
함께 《통일!》, 《통일!》  
몸부림치며 웨치는 저 소리  
아, 정녕 하나되어 웨치는 저 소리  
6. 15, 6. 15의 숨결이 아니던가

그렇다 6. 15!  
너는 장장 반세기 차갑던 분열을  
숫구치는 통일화염으로 날려보낸  
이 땅의 통일화산  
외세며 분열주의자의 숨통을 찢른 통일총창  
백두산의 무게로 솟아오른 이 땅의 존엄  
이 겨레 어깨결고 한목소리로 함께 부르는  
이 민족의 오늘의 《통일아리랑》 이노니

아, 6. 15, 6. 15!  
그래서 너를 민족의 생명철학이라 부른다  
그래서 너를 겨레의 통일표대라 부른다  
오, 그래서 너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한 통일태양으로 우러른다!

## 풀어주신 물문제

주체89(2000)년 8월 어느날이었다.

은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비행사들을 위한 현대적인 휴양소건설을 발기하신 후 강력한 건설부대까지 동원하여 휴양소를 건설하여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곳에 또다시 찾아오시였다.

이때로 말하면 휴양소건물은 세상에 보란듯이 훌륭하게 건설되었지만 물만은 다른 단위의 급수망을 통하여 공급받게 되어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휴양소에 필요한 물이 보장 못되는것도 아니였다.

그러나 비행사들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체육관 내부를 돌아보시고 나서 일군들에게 휴양소의 물보장대책을 어떻게 세웠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으로부터 수도관이 없기때문에 당면하게는 다른 단위의 급수망을 통하여 물을 공급받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휴양소의 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았다. 먼곳에서 물을 끌어오는 일도 수월치 않았지만 방대한 량의 수도관이 당장 없었던것이다. 이런 문제를 놓고 일군들이 은근히 속근심을 할 때

였다.

군인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휴양소에는 하루 24시간 물이 계속 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물이 없어 필요한 설비도 제대로 리용하지 못하는 휴양소를 비행사들에게 줄수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결연하신 어조로 빠른 기간에 물원천을 찾아내어 휴양소의 걸린 물문제를 풀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휴양소물문제를 푸는데서 제기되는 자재들은 자신께서 해결하여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비행사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사로운 사랑에 의하여 휴양소에는 사랑의 물줄기가 흘러들게 되였다.

하기에 밤낮으로 흘러드는 맑은 물을 마음껏 쓰게 된 군인들은 행복에 넘쳐 저저마다 이렇게 말하고있다.

휴양소의 맑은 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그 시작점을 두고 솟구치는 사랑샘이라고.

**박봉운**

## 통일기념비

**김용남**

경탄을 터치며  
환호성을 터치며  
백두산정에 오른 남녘겨레들  
격정에 겨운 그 모습 보며  
내 가슴에 안는 생각

아느뇨  
장엄함에 반하여  
숭엄함에 목매여  
분단세월의 아픈 상처  
순간에 백두바람으로 가셔버리는  
그대들의 기쁨  
어디서 오고있는것인지

정녕 아느뇨  
겨레의 운명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이 산정에 오르시여  
삼천리 한끝까지 굽어보시며  
통일의 새 아침  
6. 15의 위대한 구상을 펼치신줄을

그날의 장군님 숨결어린  
저 폭포수의 메아리  
통일의 힘찬 발걸음소리되리  
그날의 장군님기상이 비낀  
저 만년설의 천봉만악  
통일의 역센 기둥으로 세워지리

7천만의 가슴에 애국의 불을 지펴  
민족통일의 열풍을 안겨주는 백두산  
장군님의 위대한 통일경륜 수놓아져  
삼천리를 하나된 통일로 이어주는 백두산!

아, 통일의 그날  
못잊을 6.15통일시대를 추억하여  
그 무슨 탑을 따로 세우랴  
통일의 높은 뜻 어린  
저 숭엄한 백두산이  
그대로 장군님 세워주신  
통일기념비로 민족만대에 빛나리라!

주체 93(2004). 6. 9

## 선군정치로 빛나는 조국에 대한 찬가

-서사시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는가》에 대하여-

류만

조국, 이름만 불러도 신성함과 숭고함이 가슴벅차게 안겨오는 그 조국을 두고 또 한편의 서사시가 창작되었다.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조국을 두고 시상을 가다듬었으며 그 시들마다에 펼쳐진 조국에 대한 생각은 또 얼마나 다양하고 의미깊은 것이었던가. 얼핏 더듬어보아도 조국이란 무엇인가, 조국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하는 철학적인 문제로부터 조국과 어머니, 조국과 사랑, 조국과 청춘, 조국과 삶 등 조국을 두고 느끼는 구체적인 사상감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작품들에 펼쳐진 조국에 대한 서정세계는 참으로 다양하면서도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었다. 그 모든 서정세계에 젖어있는 우리들의 가슴에 서사시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는가》(김만영작)는 또 새롭고 의미깊은 조국에 대한 노래로 뜨겁게 안겨진다.

서사시는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하는 문제를 전면에서 제기하고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파고들어 심오하고 풍만한 시형상으로 감명깊게 노래하였다.

자기 조국의 빛남에 대한 궁지, 자랑은 결코 그 자체에 대한 격조높은 주정토로로만 그칠 문제가 아니다. 서사시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는가》에서 생활이 있고 철학이 있는 심오하고 풍만한 형상으로 사회주의의 보루로 굳건히 솟아 온 세계에 빛을 뿌리는 우리 조국, 공화국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을 깊이있게 감동적으로 노래한 것으로 하여 주체시문학의 귀중한 성과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작품창작에서는 종자를 바로잡는것이 기본입니다. 좋은 작품을 창작하려면 먼저 종자를 바로 쥐고 그다음에 예술적으로 형상을 잘하여야 합니다.》**

서사시는 처음부터 종자가 안고있는 기본문제인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하는 문제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작품전반에서 그것을 반복강조하여 형상으로 진지하게 파고들면서 조국의 존엄과 위용의 참다운 원천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였다.

작품은 앞부분에서 《나의 조국이며/너는 무엇으로 빛나는가》라는 수사학적물음을 제기하고

내 머리들어  
창공에 나뭇기는 공화국기를 바라보니  
이 무엇이나  
람홍색 그 기폭에서  
해살처럼 쏟아져 내리는  
총대의 빛  
총대의 빛발

그렇더라, 공화국이며  
나의 조국이며  
너는 총대의 광휘로 빛나는구나  
백두산총대로 빛을 뿌리는구나

라고 주정을 토로하였는가 하면 중간부분에서 다시 우리 조국이 백두산총대로 그 위용 떨친다고 정서적으로 힘있게 강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부분에서 또다시 《정녕 우리 공화국은 무엇으로 빛나는가》고 하면서 축적되어 온 감정을 격동적으로 뽐아올리었다.

아, 공화국이며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며  
너는 장군님 높이 드신  
백승의 선군기치로 빛난다  
장군님 안겨주신 애국의 심장으로 빛난다  
만민이 떠받들고 원썬들이 벌벌 떠는  
절세의 애국가  
**김정일**, 그 이름으로 빛난다

보는바와 같이 우리 조국, 공화국이 존엄높이 찬란히 빛나는것이 《총대의 빛발》, 《백두산총대》, 《백승의 선군기치》, 《김정일, 그 이름》이라고 노래한것은 그 표현이 서로 다르지만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백두산총대정신을 이어 선군정치를 펼치시는 **《김정일, 그 이름으로 빛난다》**는 이 하나의 서정으로 관통되어있는것이다. 바로 인구도 많지 않고 령토도 크지 않은 《우리 공화국이/ 력사의 폭풍을 헤치며 백두산대국으로 높이 솟아/ 누리에 찬연히 빛을 뿌리는것은》 전적으로 백두의

총대 높이 드시고 선군정치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시기때문이라고 노래한 여기에  
이 작품이 제기한 문제의 철학적심오성과 의의가  
있으며 새로운 높이가 있다.

하많은 조국찬가중에서도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  
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는 그 자체도 새롭거  
니와 조국의 빛남을 두고 그것을 전적으로 선군정  
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으로 노  
래한것은 작품이 제기한 문제와 사상도 새롭고 의  
의있을뿐아니라 형상도 보다 독창적이며 심원한것  
이다.

작품창작에서는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  
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형상으로 훌륭히 실현하  
는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를  
포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제기예 그치거  
나 형상으로 실현되지 못하면 작품으로서의 존재가  
치를 가질수없다. 작품에 제기된 문제가 새롭고 의  
의있는것만큼 형상도 더 참신하고 깊이있게 되어야  
작품은 심오한 사상에술성을 구현할수 있다.

서사시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는가》에는 새롭  
고 의의있는 문제를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기  
위한 시인의 탐구적노력과 열정이 여러 측면에서  
엿보인다.

작품에서는 조국이 백두산총대로, 선군정치로 빛  
난다는 사상적알맹이를 격조높이 토로하면서 그것  
을 구체적이며 폭넓은 체험세계와 생활을 통하여  
훌륭히 천명하였다.

여기서 《백두산총대로 빛을 뿌리는》 공화국을  
우러르며 공화국이 걸어온 길의 《갈피갈피를 더듬  
어》 보는 시인의 사색의 세계는 그대로 서사적화폭  
을 체험의 열정으로 정서적으로 승화시킨 감동적인  
시형상으로 승엄하게 안겨온다.

우리는 여기서 작품에 펼쳐진 《공화국이 창건된  
그날 그 밤》의 못잊을 추억을 가슴뜨겁게 되새겨  
본다.

《력사의 대양에/ 총대로 공화국이라는 배를 무어  
띄우시고/ 온 하루 걱정으로 들끓던 조국을 돌보시  
느라/우리 수령님/ 밤이 이슬해서야/ 댁으로 돌아  
오시였》을때 《손에 공화국기를 들고/ 대문앞에  
까지 나오시여 기다리시던/ 김정숙어머님과 어리신  
장군님/ 만면에 환히 웃음지으시고/ 반겨맞으시》  
던 그 밤.

그 밤 공화국창건을 두고 바쳐오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뜨겁게 돌이켜보시며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젖어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던 백두산3대장군의 모  
습은 얼마나 승엄하게 안겨오는것인가.

오늘은 나라가 선 기쁜 날인데  
집안보다 박이 더 좋다며  
토방에 앉으시는 수령님께  
김정숙어머님  
조용히 울리는 말씀

-수령님  
압록강을 건느시며 다지신 그 맹세가  
오늘은 저 공화국기로 펄럭입니다  
손에 총을 잡고 헤치신  
백두의 혈전만리우에  
나라가 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더 뜨겁습니다

어머님께서 울리는 인사는  
그리도 소박하고 평범했건만  
그 진정의 한마디 말씀속에  
수령님 겪으시고 헤쳐오신  
천만고생이 다 어려있고  
백두설한풍이 다 비껴있어  
수령님 가슴속에서 처음으로  
충충이 쌓였던 그 모진 시름과 아픔의 얼음장이  
삽시에 녹아내리었다

순간  
가슴이 뜨거우시여  
잠시 아무 말씀도 없으신 수령님  
나직하나 절절히 말씀하시여라

-고맙소  
정숙동무도 고생이 많았소  
이제 우리는 첫 걸음을 땀 공화국과 함께  
백두산에서 든 총을 더 높이 들고  
먼길을 가야 할것ियो!

공화국이 창건된 력사의 그날, 기쁨과 환희에 넘  
쳐 추억하며 나누시는 백두산장군들의 력사의 대화.  
그것은 단순한 기쁨과 감격에 넘친 대화만은 아니  
다. 거기에는 총대로 개척되어 온 항일혁명의 준엄  
하고도 영광스러운 력사가 집약되어있으며 총대로  
만 공화국을 일떠세울수 있고 총대로만 공화국을  
지켜나갈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 위대한 총대철학  
이 집약되어있다.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총대로 조선혁명을 개척하  
시고 총대로 공화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공화국창건의 그  
밤에 나누신 대화인것으로 하여 그것은 진정 조국



청사에 길이 아로새겨질 력사의 대화이며 세기와 세기를 두고 길이 전해질 불멸의 노래로 되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공화국창건의 그날, 그 밤에 나누신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의 사연 많고 뜻이 깊은 대화를 시형상으로 훌륭히 재현함으로써 백두산총대로 빛나는 조국, 그것은 곧 백두산총대로 항일대전의 승리도 조국창건의 새 력사도 마련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과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존엄 높은 공화국이 탄생하고 온 세계에 빛나는 조국으로 될 수 있었다는 것을 형상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였다.

바로 여기에 조국의 빛남을 두고 백두산총대를 궁지높이 자랑한 시세계의 사상정서적지향의 높이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작품에서는 백두산총대를 두고 그 력사적 연원과 계승속에 정서적으로 생활적으로 심오하게 밝히는데 사색을 집중하여 시적일반화의 폭과 심도를 훌륭히 보장하였다.

여기서 《아침에 있었던 국기계양식장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시여》 《한탄에 그토록 보고 또 보시고도/아직도 더 보고싶으신들/ 별빛어린 공화국기를 바라보며/ 국기계양대주위를 몇번이고 돌고도 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생각속에 떠오르는 《붉은 천에 정히 쓴 두자루의 권총》에 대한 세부와 《어리신 장군님의 눈가》에 비낀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모습에 대한 시적형상은 매우 뜻깊고 추억깊은 형상적화폭으로 된다.

이것은 백두산총대는 《김형직선생님이 유산으로 넘겨준/그 두자루의 권총으로 백두산을 무장시켜》 이루어진 것이며 동시에 그날 그 밤 수령님과 어머님의 모습에서 공화국의 모습을 을 보시고 《공화국기발의 펄럭임소리에서... 수령님과 어머님의 숨결소리/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심장에 높이 고동친것은 《총대의 전통으로 력사를 개척해온/ 우리 혁명의 총대울림이였고/ 우리 혁명의 총대메아리였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노래함으로써 백두산총대로 개척되고 일떠선 공화국의 력사와 존엄은 선군정치를 펼치시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령도로 하여 누리에 찬란히 빛나고 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작품은 이처럼 공화국창건의 그날 그 밤에 있었던 백두산3대장군의 숭고한 모습과 아름답고 숭고한 내면세계를 마치도 한쪽의 선명한 조선화 화폭처럼 정서적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이면서 백두산총대로 개척되고 빛나는 공화국의 력사를 시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공화국이 지닌 높은 존엄과 영예,

그것이 무엇으로 빛나는가 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훌륭히 보여주었다.

백두산총대로 세워지고 빛나는 조국에 대한 찬가는 이처럼 작품의 전반부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혁명활동력사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력사적사실에 기초하면서 그것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깊은 체험세계와의 련관속에서 감동깊게 울렸다면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백두산총대의 전통을 이어 선군정치, 선군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여 조국은 더욱 빛난다는 사상감정으로 보다 폭넓고 웅심깊게 일반화하였다.

보느바와 같이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공화국창건의 그날 그 밤 백두산3대장군의 숭고한 모습에 대한 형상이 화폭의 중심에 놓이면서 시적 일반화를 보장했다면 후반부에서는 화폭적인것보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로 빛나는 조국에 대한 숭고한 체험세계의 개괄적인 주정토로써 시적일반화를 하고있다.

작품에는 《총대의 빛발로 혁명을 구원하고/조국과 민족을 구원한/운명의 전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을 빛내이신데 대한 숭고한 체험세계가 노래되었다.

《나라의 국상을 기화로/ ...제국주의무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 때/ 공화국이 생사위기에 처해있을 때》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 뜨겁게 고동친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안된다

빨찌산의 아들

이 **김정일**이 있는 한

공화국기발은 더 높이

더 세차게 휘날릴것이다

아, 공화국기의 펄럭임소리를

자신의 심장에 더 깊이 새겨안고

금수산기념궁전계단을 내리실 때

그이의 어깨우에는

공화국이 실려있었다

조국이 없혀져있었다

작품은 《백두의 선군정치》, 《**김정일**, 그 이름》으로 빛나는 조국을 노래하면서 예리한 극적정황속에서 다양한 체험세계를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펼치고있다.

여기서는 공화국기발을 더 높이, 더 세차게 휘날릴 결사의 각오를 지니시고 어깨우에 공화국, 조국의 운명을 떠메시고 선군혁명의 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이 이처럼 특징적인 세부적 형상과 보다 상징적인 형상수법으로 노래되고있다. 생활반영의 이러한 특성은 작품의 후반부의 시형상에서 보편적인 특징으로 되고있다.

장군님 천리전선길을 헤쳐가실 때  
이 나라 고지와 고지마다에서  
공화국기가 높이 휘날리었어라  
장군님의 발걸음에서  
공화국기의 펄럭임소리가  
세차게 울리었어라

오로지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민족의 운명을 위해  
끊임없이 가고 또 가신  
선군혁명 천만리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욱으로 다져지고  
장군님의 뜨거운 숨결로 숨쉬고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으로 고동치는  
내 나라 내 조국!

그렇다

**김정일**동지는  
우리 공화국!  
우리 공화국은  
**김정일**동지!

뚜렷한 표상을 주는 감동적인 생활현상들과 결부된 상징적인 감정의 이 토로는 선군령도의 나날을 되새겨주고 그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면서 바로 그 위대한 선군정치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꾀쌍이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공화국은 끄떡없이 사회주의보루로 우뚝 솟아 빛나고있음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하였다.

선군정치로 빛나는 조국에 대한 사색의 세계를 펼치는데서 보다 심화된 경지를 보여준것의 하나는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훌륭한 사상정신적품모를 선군정치의 생활력으로 힘있게 노래한것이다.

조국은 말로 빛낼수 없고  
공화국은 저절로 빛나지 않거니  
우리 심장  
장군님 지니신  
애국의 숨결로 높뛰게 하자

이것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다.

작품에서 노래된바와 같이 《애국으로 높이 고동치는/ 우리 장군님의 그 숨결소리/ 심장의 고동소리》가 그대로 《철령과 오성산/ 351고지와 1211고지》에 메아리치고 《김광철, 길영조영웅들의 심장이/ 활동전야에서 공장에서 막장에서/ 묵묵히 공화국을 받들어 가는/ 선군시대영웅들의 심장》에 맥박쳐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이처럼 위력하고 불패인것이다.

작품은 이처럼 마지막부분에서 조국을 끝없이 빛내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충성의 한길에서 공민적량심과 의무를 다해 가며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한몸이 그대로 《칼날이 되어 번쩍이고/ 육탄이 되어 터》 질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사의 각오, 불굴의 혁명적신념과 투지, 혁명정신을 격조높이 안받침함으로써 위대한 선군령장의 두리에 한마음한 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대한 통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영예는 더욱 빛난다는것을 긍지높이 노래하였다.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고는가... 생각할수록 뜻이 깊고 할 이야기도 많을 의미심장한 문제를 제기한 작품은 백두산총대로 세워지고 빛나는 조국의 어제와 백두산총대 높이 선군정치로 세계에 더욱 빛을 뿌리는 오늘을 두고 거기에 깃든 백두산3대장군의 숭고한 뜻과 불멸의 업적을 폭넓게 일반화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세계에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김일성**조국,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으로 영원무궁하리라는것을 웅심깊은 서정으로 칭송하였다.

온 누리에 존엄과 위용을 펼쳐가는 빛나는 조국을 노래한 이 작품은 예술적으로도 매우 품위있고 정서적으로도 다양하고 풍만한 시형상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작품에서는 새로운 양상의 서사시로서의 특성을 적극 살려 시적일반화를 특색있게 실현하였다.

작품의 전반부의 중심에는 공화국이 창건되던 그 날 그 밤 백두산3대장군의 숭엄한 모습이 아름답고 숭고한 화폭으로 펼쳐져 다정하고 친근하면서도 숭엄한 느낌을 준다. 여기서 시인은 심장의 뚫는 분화구를 터쳐 백두산3대장군의 모습을 깊은 정서로 그리면서 여기에 시인의 체험과 느낌의 정화로 울리는 주정토로를 잘 배합함으로써 그 회복이 주는 의미와 여운을 형상적으로 한껏 승화시키였다. 그런가 하면 작품의 후반부는 많은 사건적인 내용이 담겨지면서도 어느 하나도 화폭으로 펼쳐보인것이 아

니라 시인의 체험속에서 그것이 《용해》되어 주정화된 시형상으로 노래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선군시대의 가지가지 이야기들, 사실들이 담겨지면서도 그것이 서정의 즐기찬 흐름속에서 표상적으로 재현되면서 시공간적인 폭과 깊이를 가지고 선군시대와 현실, 인간에 대한 서정적화폭으로 안겨오는것이다.

그리하여 작품은 서정의 밀도와 흐름, 격조 등에서 조화가 이루어지고 속도감도 보장됨으로써 서사시로서의 폭과 깊이를 잘 보장하였다.

이와 함께 서사시로서의 시적일반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이 작품에서 좋게 느껴지는것은 시인이 주정화의 높은 경지에 서서 시적화폭을 전개하고있는 것이다. 때문에 작품에서 때로 감동깊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경우에도 시인은 단순한 객관적인 전달자로서 그것을 그리고있는것이 아니라 내면적체험자의 개방으로서 정서적으로 노래함으로써 시형상전반에서 서사적인것을 느끼게 하면서도 서정성의 일관한 흐름속에서 그 모든것이 안겨오게 하는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이미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에서 독창적으로 탐구되고 결실을 맺었던것으로서 이 작품에서 보다 새롭게 훌륭히 구현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서사시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는가》의 시형상은 시적세부의 탐구, 새롭고 참신하면서도 특색있고 깊이있는 언어표현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서사시작품창작일반에서 그러하지만 특히 새로운 양상의 서사시창작에서는 하나의 세부가 귀중하며 언어표현 하나하나가 보다 새롭고 세련될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양상의 서사시에서는 세부나 언어표현들이 드림없이 다 제자리에 들어서고 한결같이 하나가 열, 백을 대신해야 하기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서사시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는가》는 또 하나의 새로운 탐구와 발견을 남기었다고 말할수 있다.

명절의 하루는 홀리  
거리도 마을도 다 잠들었는데  
오직 한채의 집만이  
온밤 잠들지 못하고 설레었거니

마치 공화국이  
이 한 집에 있는듯  
마치 공화국이  
이 집에서 다 숨쉬는듯

...

불길은 사랑을 지닌 어머니  
등에 업은 제 자식  
무거운줄 모르듯이  
자식을 키우느라 천반공을 들이고도  
그 고생 생각해본적 없듯이

그이는 그렇게 걸어가시였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 없듯이  
조국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 없더라

허나  
조국을 선택하라 한다면  
내 백번이고 전번이고  
우리 공화국을 선택하리라  
...

우리 공화국을 없애려는것은  
하늘을 땅에 끌어내리겠다고 하는것  
설사 하늘을 끌어내리는 힘이 있다 해도  
선군총대우에 쫓힌  
공화국기발은 절대로 내리 우지 못한다

이 얼마나 조국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신념이 뜨겁게 흐르는 시어들인가. 우리는 여기서 어느것이 세부이고 어느것이 언어표현이라고 갈라서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깊은 사색과 체험의 터전에서 뿔어올린 이 주정토로에 의의깊은 생활의 세부도 있고 언어표현의 심오성도 있는것이다. 여기에 새것, 발견이 있고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보여주는 형상의 참의미가 있는것이다.

이런 시형상은 단순한 창작적재능에 앞서 시인의 심장에 고패치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투철한 충성심, 선군정치 승리에 대한 확신, 선군조국에 대한 사랑이 낳은것이다.

서사시 《조국은 무엇으로 빛나는가》는 선군시대 시인들의 심장은 무엇으로 끓고 높뛰여야 하고 고동쳐야 하는가를 참다운 시형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 시인들은 시대의 복판에서 선군시대의 주도적인 서정을 찾아내고 새롭고 참신한 시가작품들을 창작하여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우리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시대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 9 월의 하늘

김윤걸

그날따라  
하늘은 류달리 맑고 푸르렀다  
우리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모신 그날은

장군님을 변함없이 받들어  
인민의 마음들이  
모이고 합쳐  
더 높이 들어올린것만 같은  
9월의 하늘은 눈뿌리 아득히 푸르렀다

오, 9월의 하늘이여  
전선으로 달리시는  
우리 장군님 야전차의 차창가에  
파랗게 비졌던 하늘이여

때로 한모금의 샘물로  
우리 장군님 피로를 푸실적에도  
정갈한 웅달샘 그 맑은 물에도  
푸르게 비껴졌던 하늘이여

아, 그 하늘은

장군님 한분만을 굳이 믿어 받드는  
우리 인민의 절대적 신뢰로 푸르고  
장군님 계시기에  
세상에 긍지높이 자랑을 떨쳐가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존엄으로 더 높거니

한점 불구름인들  
어찌 감히 비길수 있으랴  
그토록 맑고 푸른 저 하늘가에  
장군님 받드는  
인민의 념원이 비껴있는 저 하늘가에

그 하늘에  
선군의 총대로  
억년 드눌지 않을 강성대국의 기둥을  
세워주시며  
우리 장군님은  
오늘도 전선길에 계신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우리 장군님은  
인민의 천만년 미래가 비껴있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창창히 열어가시여라

# 눈 오는 날에

리하성

광복된 강산에 흰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전차길과 줄지어 늘어선 가로수들, 높고낮은 건물들이 온통 흰눈으로 단장되었다. 가로수 우듬지 위에서 까치가 즐겁게 우짖는다.

해종일 평양시안의 교육기관들에 나가시여 일을 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날이 저물어서야 저택으로 돌아오고계시였다. 눈이 펄펄 쏟아지는 겨울날의 풍경... 까치의 우짖음... 어쩐지 어머님께서는 그 모든것이 류달리 정답고 소중하게 안겨오면서 반가운 일이라도 생길것만 같은 느낌이 드신다. 아닐세라 저택가까이 이르시자 애젊은 보초장이 기다린듯 뛰어나와 거수경례를 하며 말씀드리는데였다.

《좀전에 웬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소년이요? 어디에서 왔어요?》

《신갈파라는데서 왔답니다.》

《신갈파?!》

어머님께서는 무중 놀라시였다. 이름만 들어도 잊지 못할 추억의 파도가 가슴을 설레게 하는 고장이다. 항일전의 나날 신갈파에서 인연을 맺으신 수많은 얼굴들과 가지가지 사연들이 한꺼번에 떠오른다. 거기에서 소년이 오다니? 누구일가...

어머님의 안색을 살피던 보초장이 위병소로 열른 뛰어가더니 소년을 데리고 나왔다.

《이 앵니다.》

어머님께서는 소년을 여겨보시였다. 한 열두어살 되었을가. 먼지가 뿌옇게 오른 더벅머리, 람루한 행색과 께진 신발... 무척 먼길을 류랑걸식하며 왔다는것이 알린다. 어머님께서는련민의 정이 북받쳐올랐다.

《그래 나를 찾아왔느냐?》

소년은 보위색숨저고리에 김정치마차림이신 어머님을 말뚱말뚱 올려다보더니 의아쩍은 표정을 지었다.

《저... 김정숙고모를 찾아왔는데요.》

《내가 김정숙이다.》

그래도 소년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기색이였다.

《저... 우리 아버지가 김정숙고모는 백두산녀장군이라우 했는데요 뭐.》

행색은 람루해도 여간 당돌한 애가 아니다. 보초

장이 민망스러워 일깨워주었다.

《이분이 바로 김정숙녀장군이시다. 어서 인사를 드려라.》

그제서야 소년은 꾸벅 인사를 하더니 왼쪽가슴노리에 손을 넣으며 말씀드렸다.

《여기 편지를 갖고 왔어요.》

《편지라니? 어서 보자꾸나.》

소년은 토스레웃앞섰을 해쳤다. 어찌나 든든하게 께냈는지 소년은 손톱으로 실밥을 뜯다못해 이발로 뜯어냈다. 안주머니에서 얇은 천주머니를 꺼내더니 그안에서 기름종이로 몇가풀 싸고 또 싼 작은 종이쪽지를 뽑아 어머님께 드리였다. 자기의 운명이 거기에 실려있는듯 종이쪽지를 드리는 소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머님께서는 한줄밖에 안되는 글을 들여다보시였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를 찾아가거라. 1938년 x월 x일.》

어머님께서는 어쩐지 필체가 눈에 익어보이시였다.

신갈파의 《광선사진관》 주인이였던 리순원의 필체와 비슷했다. 그러니 이 애는 혹시 무일이?!

어머님께서는 짐짓 떨리는 목소리를 누르시며 물으시였다.

《아버지이름이 뭐냐?》

《리순원입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만 걱정을 터치시며 소년을 와락 그러안으시였다.

《네가 무일이로구나. 무일이... 그렇지?》

소년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너를 업고 다니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구나. 용타, 제발로 찾아오고... 그래 어머니까지 잃구 혼자 어떻게 살아왔니? 이 편지를 누가 주더냐?》

어머님께서는 목이 메여 목소리가 갈리시였다.

소년은 《고모!》 하고 그이의 품을 파고들며 울음을 터치였다. 한참 울고서야 눈물을 씻으며 떠들떠들 말씀드렸다.

《엄마가 감옥에 면회갔을 때 아버지가 주었어요.

엄마는 농작안에 깊이 전사했다가 지난해 봄 사망하기전에 저한테 주면서 평양으로 찾아가라구 그랬어요.》

어머님께서서는 가슴이 쓰리여 더 말씀을 못하시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항일전장에서 쓰러졌던가. 그들의 자식들은 광복된 오늘에도 고아로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고... 그 애들을 다 찾아내려고 수령님께서 동북각지에 사람들을 파견했지만 아직도 못 찾은 애들이 수도룩하다. 무일이라도 그중의 하나였다. 얼마전 어머님께서는 량강도일대에 나가있는 송동무로부터 현지에 가보니 《광선사진관》 주인의 안해 정현옥은 사망하고 어머니를 잃은 무일이가 집을 떠나 방랑하는데 아직 찾지 못했다는 전화를 받으시였었다. 그때 애석한 마음을 금치 못하시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일이를 꼭 찾아오라고 신신당부했었는데 이렇게 제발로 평양에 나타나다니...

어머님께서서는 무일이가 기특하고 대견하시여 섬약한 그의 어깨를 자주 쓸어주시였다.

《자. 이젠 그만하고 들어가자.》

어머님께서서는 무일이의 어깨를 껴안고 집안으로 들어서시였다. 목욕을 시키고 새옷을 갈아입히신 다음 저녁밥을 먹이시였다. 그 애를 침실로 데리고 가신 어머님께서서는 눈내리는 창밖을 내다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무일아, 너는 아버지가 어떻게 싸웠는지 아느냐?》

《잘 모릅니다.》

《그때는 나이가 어렸으니 잘 모를게다. 하지만 알아야 해 너의 아버지는 유격대에 들어와 총을 잡고 싸우는것을 최대의 소원으로 삼았단다. 그러나 끝내 총을 잡아보지 못하고 지하활동을 하다가 놈들에게 잡혀 희생되셨어. 그건 너의 아버지가 하시는 사진관일이 총을 들고 유격대에서 싸우는것보다 못지 않게 중요했기때문이란단다.》

어머님께서서는 못잇을 추억을 더듬으시며 담담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정말 그때 리순원을 그의 소원대로 유격대에 입대시켰더라면 것처럼 가슴아픈일이 생기지 않을수도 있지 않았을가... 그래서 광복된 조국땅에서 더 큰일을 할수도 있고...

어머님께서서는 무일이를 이렇게 마주하고보니 애국의 정열로 끓던 리순원의 얼굴이 삼삼히 떠올라 자주 말씀을 끊곤 하시였다.

...간밤에 폭우가 내렸다. 큰물이 진 압록강이 좌좌- 격랑을 일으키며 용용히 흘러내렸다. 사나운

강물을 헤치며 작은 배 한척이 신갈과쪽으로 건너가고있었다. 배에는 장보러 가는 여러명의 사람들과 함께 김정숙동지께서 계시였다. 도천리에서 30여리, 찌는듯 한 무더위를 무릅쓰고 허위단심 달려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시바삐 리순원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급하시였다. 어제 공작원 송동무가 뜻밖의 편지를 가지고 달려왔었다.

《김정숙동지! 전번에도 청원하였지만 저를 꼭 입대시켜주십시오. 보천보를 친 **김일성**장군님부대가 더 멀리 가기전에 따라가 총을 잡고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적들의 경계가 심해 움직일수 없는 형편이므로 동태를 보아가며 속히 압록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올해 스물다섯살인 리순원, 지난해 여름 서울에서 사진 강습소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들어와 사진관을 차려놓은 청년이다. 반일감정이 강하고 활발한 성격에 의협심이 높아 동무들도 많다. 그래서 어머님께서서는 장차 신갈파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오고 그곳을 지하활동의 거점으로 꾸리는데서 리순원의 위치를 자못 중요하게 보고계시였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짐이 지워져있는가. 그런데도 자기 할바를 잊고 흥분에 떠서 유격대를 따라가겠다고 하다니... 어머님께서서는 빨리 사태를 수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압록강을 다시 건너오시는 것이였다.

자그마한 국경마을 신갈과는 살벌한 분위기에 싸여있었다. 보천보전투에서 퇴타격을 받은 적들은 더 많은 병력을 증강하여 엄중단속을 하는것이였다. 어머님께서 몇몇하게 《도강증》을 내보이는데도 《어디 가는가?》하고 포대앞에 서있던 수비대 병졸이 양갈진 소리를 내질렀다.

《장을 보러 갑니다.》

병졸은 태연한 표정으로 되받아넘기시는 어머님 앞에서 어정쩡해졌다. 뒤따라오던 도천리반일부녀회원이 단속을 모면하려는듯 그이의 옆을 날쌔게 빠져나가자 적병의 눈살이 그쪽에 쏠렸다.

《서라!》

그 틈을 타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유유히 포대앞을 지나시여 거리에 들어서시였다. 농립모를 쓰고 었괘작을 등에 진 송동무가 엇가위를 절걱거리며 그이의 뒤를 따랐다.

《리순원동무가 집에 있어요?》

송동무가 그옆을 지나 앞서갈 때 김정숙동지께서 얼른 물으시였다.

《예, 오늘은 일요일이여서 사진관이 무척 붐빌겁

니다. 조심하십시오.》

송동무는 저쪽 골목으로 꺾어들어가며 가위질소리를 크게 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사진관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표적을 궁리하시며 장마당에 들어서시었다. 봄비는 사람들속을 헤집고나가다가 자신의 등뒤에 와닿는 지점은 눈길을 룩감으로 느끼시었다.

풍을 친 어물전의 바글거리는 장보는 사람들뒤에 몸을 숨기고 돌아보시니 아니나다를가 《도리우찌》를 쓴 사나이가 사방을 연방 두리번거리고있었다.

밀정임을 알아보신 어머님께서는 마침 무거운 합지를 이고 차라목이 되어 지나가는 젊은 녀인에게 말을 건네시었다.

《집이 무거운데 애를 인주세요. 제가 업어드리지요.》

긴장이 느껴지는 어조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눈치챈듯 녀인이 김정숙동지를 보더니 눈이 화등잔 처럼커졌다. 그이께서는 눈을 끔쩍하시었다. 그제서야 녀인은 정신을 차린듯 《예에... 이런 고마울테라우야.》 하고 동당지 않는 말을 중얼거리며 옆집 울바자안으로 들어섰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인의 머리에서 합지를 받아로방에 내려놓으시고 아이를 넘겨받아 업으신 다음 녀인의 머리수건까지 쓰시었다.

《무일이 아버지가 지금 뭘하고있어요?》

녀인은 리순원의 안해 정현옥이었다. 현옥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통 생각은 산에만 가있어요. 오늘은 영업도 안하고 공공 앓고있답니다.》

《?》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일이를 업고 대문을 나서시었다. 정현옥에게는 일을 마저 보고 뒤따라오라고 이르시었다. 그이께서는 무일에게 엇가락 하나 사서 쥐여주시며 사진관으로 향하시었다.

거리의 중심 옛 짜전자리에 《사진관》 이라고 명판을 붙인 2층건물이 우뚝 솟아있고 그앞으로는 사람들이 수없이 오갔다. 목수였던 리순원의 아버지가 원래 짜전이던 단층집을 2층으로 증축하여 사진관을 차려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유리로 된 넓은 창문에 《오늘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라고 쓴 표어를 보고 유지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혀를 차며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출입문앞을 지나 뒤골목으로 들어서시었다. 별다른 정황이 없는것을 확인하시고

후문으로 조용히 들어가시었다.

리순원은 뒤마당의 사랑채에 찻상을 활짝 열어놓고 누워있었다. 마당에서 울리는 발자국소리와 무일이가 엿을 빨며 캐득거리는 소리를 듣고 안해가 들어오려니 했겠는지 무심히 얼굴을 돌리던 그는 김정숙동지이심을 알아보고 화닥닥 뛰쳐일어났다.

《아니?! 김정숙동지...》

리순원은 어쩔바를 몰라하며 밖으로 나가 후문을 닫아걸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초라한 방안을 휘둘러보시었다.

구름노전과 앓은뱅이책상... 책상우에는 방금 리순원이 보다만듯 한 신문이 접혀져있었다.

그이께서는 신문을 집어드시었다. 리순원이 붉은색갈로 밀줄을 친 기사의 글줄이 눈에 안겨드시었다.

《**김일성**장군은 20대의 청년... 지리에 능통하고 신출귀몰...》

그때 밖에 나갔던 리순원이 들어와 김정숙동지의 손에 들려있는 신문을 보며 흥분을 터치었다.

《김정숙동지, 장군님께서 이렇게 젊으신분이시란 말입니까. 난 신문을 보고서야 장군님께서 소문에 들던바와 달리 청년장군이시라는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저 웃음으로 대답하시었다.

리순원은 한없는 기대와 희망이 빛나는 눈으로 김정숙동지를 쳐다보며 물었다.

《저의 입대문제는 수락하시겠지요?》

그이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못하시었다.

그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그이이시었다.

리순원의 하나밖에 없는 누이동생 귀옥이는 올해 초에 일본군 《로벌대》 놈들한테 무참히 피살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백두산 서남부에서의 맹렬한 정치군사활동에 당황망조한 일제는 압록강의 국경지대에 철통같은 경비진을 치고 경찰대, 수비대와 일본군의 역량까지 들이밀었다. 신갈과일대를 어슬렁거리던 한개 소대가량의 일본군놈들이 야학방에 물려들어 야학생들을 내쫓고칠 차비를 했다. 용모가 뛰어난데다 혁명열에 젖어 도교하기 이룰데 없는 야학의 처녀선생 귀옥이는 치를 떨며 놈들에게 항의했다. 강도들에게 론리나 정의가 통할리 없다. 놈들은 귀옥이를 야학방에 가두고 겁탈하려고 시도했다. 귀옥이는 소대장놈의 귀뺨을 치고 이발로 놈의 팔을 물어뜯었다. 악에 받친놈은 권총을 뽑아들고 귀옥이를 쏘아죽였다.



그때로부터 리순원의 눈에서는 적의의 불이 펄펄 일었다. 김정숙동지의 영향으로 장차 믿음직한 지하공작원으로 준비되어가고있던 그는 귀옥이의 철천지원썬을 갚겠다며 유격대입대를 열렬히 지망하기 시작했다. 홀몸도 아니고 처와 자식까지 거느린 가장의 처지에서 입대를 청원한다는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만큼 그의 복수심은 극도에 이르렀던것이다. 더우기 신갈과에서 멀지 않은 백두산밀의 보천보전투소식은 리순원의 가슴을 한없이 흥분시켰다. 이러한 그에게 생나무 꺾듯 유격대에 입대하는것도 좋지만 여기 일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차마 말씀하실수 없으시였다. 아니, 그이께서도 리순원의 소원을 풀어주고싶으시였다.

하지만 그럴수 없는것이 혁명의 요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다잡으시며 물으시였다.

《어디가 아픈가요?》

순원은 김정숙동지의 등에서 무일이를 뽑아안으며 꺾꺾 웃었다.

《제가 앓긴 왜 앓겠습니까.》

《그런데 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까. 사람들이 제 일 많이 찾아드는 장날인데.》

리순원은 무일이를 안고 노전우에 올방자를 틀고 앉았다.

《정숙동지, 오늘 경찰서장놈의 아들이가 돌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오후시간에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귀옥이가 이 오빠를 원망하며 막아서는 것만 같아...》

리순원의 목소리는 비감에 젖어있었다. 그이께서는 가슴아픈 눈길로 묵묵히 리순원을 응시하시였다. 너무죽하고 잘 생긴 얼굴이 몹시 짝이우고 고뇌의 흔적이 뚜렷이 드러나보이였다.

《그러니 가지 않을 작성이었군요.》

《예, 아프다는 구실을 붙여 아침부터 문을 닫아했습니다. 일반손님봉사는 하구 제 아들 봉사는 안한다구 경찰서장놈이 트집을 잡을것 같아...》

리순원은 어깨를 떨어뜨렸다.

《순원동지, 자신을 이겨내야지요. 지금 사령부에서는 보천보전투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려는 적들의 대규모적인 공격기도의 구체적인 비밀을 요구하고있어요. 돌잔치와 같은 기회가 얼마나 좋은가요. 아마 거기에는 신갈과지역의 거두들, 수비대, 헌병대의 우두머리들이 다 모여들수 있어요. 그런 기회에 사진도 찍으면서 비밀을 내탐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제 미쳐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구 오전영업을 안한것은 돌잔치때 사진을 더 많이 찍어야했는데 필름을 아끼느라 그랬다고 적당히 돌리세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있을수 있는 정황에 대처할 구체적인 방도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이때 정현옥이 방안에 들어섰다. 무일이가 제 어머니를 보자 팔을 내뻗치며 배기였다.

《엄마, 고모가 옛 사췌다.》

《그래, 이리 온. 여보, 점심참이 지났는데 어서 고모를 모시구 내려오세요.》

아래방의 두리반우에 농마국수가 쟁겨져있었다.

정현옥이 미안한 빛을 지었다.

《전번에 식사 한번 대접 못해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국수를 좋아하십니까...》

《언니, 왜 그렇게 서고만 있어요. 함께 들자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정현옥의 손을 잡아끄시였다.

리순원이 즐거웁듯 찡찡 웃었다.

《당신도 앉소. 정숙동지, 변변치 않지만 많이 드십시오. 산에서야 국수같은건 구경두 못하겠지요?》

투명한 유리그릇에 담긴 하얀 농마국수사리...

가늘게 썰어 얹은 노란 닭알지짐과 실고추를 톡 톡 불깃불깃한 꾸미...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국수를 대하고 보니 불현듯 장군님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였다. 산에서는 마음뿐이지 장군님께서 좋아하시는 국수 한번 변변히 대접해 드리지 못하시였다. 언제인가 장군님께서 국수를 마주하신 자리에서 평양랭면이 참 유명하다고, 이제 조국을 광복한 다음 평양에 가서 맛보자고 대원들에게 말씀하시였었다.

그때 장군님을 모시고 그러보시였던 조국광복의 그날을 위해 그이께서는 총을 들고 혈전만리를 헤치시였고 압록강, 두만강을 수없이 넘나드시며 국내깊이 진출하시여 인민들의 가슴속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시였다. 그 길은 일제의 삼엄한 총검의 숲을 헤치며 무수한 땀과 피를 뿌려야 하는 사생결단의 길이였을뿐아니라 걸음걸음 막아서고 쌓이는 심중의 피로움과 고통을 이겨내셔야 하는 길이기도 하였다.

지금 국수를 맛있게 들고있는 리순원이라도 그렇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나타나신 때로부터 벌써 내심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얼굴이 환해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며 눈치를 살피는 리순원을

대하시면서 그의 기대를 속시원히 풀어주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과 싸우고계시었다.

《이렇게 성의를 다해주니 고마와요. 몇년만에 친 오빠네 집에 온것 같군요.》

김정숙동지의 사의에 리순원이 빙글거리다가 간절히 말했다.

《정숙동지, 이번 걸음에 저를 꼭 데려가주십시오. 요즈음은 꿈에도 유격대군복을 입은 제모습이 나타나군합니다. 저 사람과도 다 토론이 있었습시다. 어찌겠습니까. 내가 없으면 저 사람 혼자 무일이를 데리구 고생이 막심하겠지만 광복위업을 위해 그쯤한 거야 못참겠습니까.》

정현옥은 무일이를 안은채 고개를 푹 숙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남편을 떠나보내야 하는 애달픔과 그것을 이겨내려는 정현옥의 모습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일별하시었다.

리순원이 신갈과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는것, 백두산지구를 중부조선의 산악지대는 물론이요, 함흥, 원산 등 동해안의 공업지구와 연결시키는 교두보라는것을 몰라서 그러는것이 아니였다. 이미 그에 대해서는 알아들을만큼 깨우쳐주시였던것이다. 아는것으로, 이해하는것으로 혁명을 할수 없다. 혁명은 진심을 바쳐, 사랑을 바쳐 심장으로 하는것이다. 그렇게 될 때 리순원도 유격대에 입대한것과 같은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신갈과를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항일의 지하전구로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을것이다.

식사를 마친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사진관을 돌아보지며 리순원을 앞세우고 촬영실에 들어서시었다.

2층의 촬영실은 야외나 다름없이 밝았다. 지붕에는 동기와대신 출입문만 한 판유리를 잇대여 없었고 앞뒤벽에도 넓은 창문이 있어 눈부신 해빛이 그대로 흘러들었다. 밖을 내다보시니 신갈과시내가 한눈에 굽어보여 적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데도 유리하였다.

현상실은 캄캄하였다. 고조력한 정적이 깃든 현상실에는 현상약냄새가 서리어 딴 세계에 들어선듯한감도 드시었다. 어느모로 보나 사진관은 술한 사람들이 찾아드는 장소여서 연락원들과 지하공작원들이 드나들기 수월하고 외부인원출입금지로 되어있는 현상실까지 있어 비밀회합장소로도 더없이 적중한 곳이었다. 이처럼 유리한 점이 있어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찌기 이 사진관에 깊은 주의를 돌리시고 사진관주인인 리순원을 손잡아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암실에서 나오시여 건조기구에 널린 사진들을 집어보시었다. 첫장은 신혼부부의 사진이였는데 얼굴에는 웃음대신 앞날에 대한 근심과 걱정의 쓸쓸한 빛이 어려있었다 사진뒤면에는 크기가 서로 다른 두개의 원에 가로 건너간 《봉선화사진관》이라고 쓴 명판이 찍혀있었다. 부부초상의 쓸쓸한 표정과 어울리는 가냘픈 사진관이름이었다. 그께서는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시었다.

《순원동지의 심정이 리해되는 사진이군요. 기쁨도 락관도 없는 이런 사진을 찍자니 가슴인들 오죽 아프겠어요.》

《정숙동지, 그렇습시다. 사진이야 기념으로 찍는것인데 돈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제 헤어지면 언제다시 만나겠느냐. 영영 다시 볼수 없겠는데 보고싶을땐 사진이라도 남겨 보자꾸나 하며 눈물흘리며 사진기앞에 설 때면 이 가슴에도 피눈물이 흐릅시다. 거기에다 호의호식하는놈들, 경찰놈들과 수비대놈들이 희희낙락 거들먹거리며 나설 때에는 치가떨려 사타를 누를수 없습니다. 저의 이런 심정을 누가 알아주거나합니까. 예?》

《그래서 이 사진관을 적과의 결전장으로 만들자는것이 아닙니까. 일체를 몰아내고 광복된 내 나라에 《행복하게 사는 우리 인민의 모습을 마음껏 찍어볼 그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자면 이 사진관에서 사진찍고 가는 사람들이 광복의 그날을 신심에 넘쳐 내다보며 웃으면서 나가도록 해야 하지않을가요. 순원동지가 서울에서 눈물흘리며 불렀다는 <봉선화> 노래대신 백두산에 솟아오른 태양의 빛발을 받아안고 광복성전에 펼쳐나서라는 뜻을 담아 사진관 이름도 <광선사진관>이라고 하던지... 그리고 명판도안도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상징하여 백두산태양을 중심으로 열가닥의 해살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조선지도를 휩싸 안는것으로 한다면 어떻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를 깨우쳐주시면서 자신께서도 북받치는 혁명의 열정에 잠기시여 저으기 흥분되시었다. 리순원은 묵묵히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젠 오후시간도 퍼그나 지났군요. 경찰서장이 데리러 오기전에 어서 가보세요. 거두들의 확장도 찍어 별도로 뽑으세요. 장차 신갈과의 전경과 적들의 주요 통치기관의 위치와 구조도 찍어야 해요. 이 건 다 장군님께서 구상하시는 작전에 귀중한 자료로 될거예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나들이웃차림을 하고 사진기

받침대를 둘러메는 리순원의 일을 거들어주며 경각성을 높이고 몸조심하라고 거듭 이르시었다. 출입문을 나서는 리순원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번쩍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가 무엇인가 말할듯말듯 망설이다가 밖을 나서는것을 보시었다.

리순원이 나간 다음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시 무일을 업고 정현옥의 옷과 머리수건으로 변장을 하시고 거리로 나가시었다. 정현옥이 어찌실려구 밖에 나가시는가고 만류했지만 한시도 앉아계실수 없으셨다. 지하조직원들을 만나 통신을 입수해야 하시었으며 신갈과회를 한시바삐 결성할 준비를 하셔야 했다. 그이께서는 《석전양복점》을 비롯한 신갈과 일대는 물론 멀리 수십리 떨어진 비밀련락소까지 다녀오시다나니 긴긴 여름날의 해가 서산에 떨어지고 땅거미가 질무렵에야 사진관에 들어서시었다.

간이 콩알만해서 기다리던 정현옥이 반겨맞았다.

《무일이 아버지는 안왔어요?》

《네, 아직...》

정현옥은 근심스레 어두워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일이를 현옥에게 넘겨주시고 세수를 하시었다. 먼길을 아이를 업고 걸었더니 다리맥이풀리고 피로가 엄습했다. 그속에서도 리순원의 일이 어찌되었는지 근심을 덜수 없으시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자그마한 국경마을에 적막이 드리웠다. 압록강의 물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집집에서 벌써 모기쑹을 태우는 냄새가 창문으로 흘러들고 가끔 개짖는 소리, 경찰의 호각소리가 고요를 깨치군 했다.

밤이 퍼그나 깊었을 때 뒤마당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리순원이 상형된 얼굴로 들어섰다.

《정숙동지,... 무사하셨군요. 빨리 여기를 떠나셔야겠습니다.》

리순원이 급해맞아 어쩔줄 몰라했다.

《무슨 일이에요?》

《야단났습니다. 정숙동지, 오후에 무일을 업고 어디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경찰서장네 집에 모인 헌병대장, 수비대장과 경찰서장놈의 입에서 나온 소립니다. 오늘 도천리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하고 아이를 업은 낯선 젊은 녀자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서장놈이 래일새벽 집집을 가택수색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때문이에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태연 자악하시었다.

《그리구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만취되어 호언장담하는 놈들의 입에서 라남 19사단의 함흥련대가 간삼봉지구로 출동한다는 비밀이 튀어나왔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이 급보를 가지구 빨리 떠나십시오.》

김정숙동지께서는 침착히 물으시었다.

《그밖에 다른 정보는 없어요?》

《예.》

《수고했어요. 라남 19사단 출동정보는 이미 사령부에서도 알고있습니다.》

리순원은 깜짝 놀라하였다.

《그럼 김정숙동지께서 여기로 오신것은?》

《그야 순원동지가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예?! 아니 그럼 저때문에?》

리순원은 어리병병한 태도로 김정숙동지를 주시하다가 신음비슷한 소리를 내며 머리를 움켜잡았다.

《정숙동지! 저같은놈이 뭐라고 그 험한 길을 오셨단말입니까. 오시지 않아도 되실 길을... 예? 저때문에 사진관에 귀중하신 몸 내대시다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리순원은 가슴을 치며 통탄을 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성장한 그를 보시며 더없이 기쁘기도 하시고 가슴이 쓰리기도 하시었다.

《순원동지, 고마와요. 정말...》

김정숙동지께서는 말쑤를 잊지 못하시었다.

《정숙동지, 제 일은 근심마시구 빨리 떠나십시오. 다시는 철없는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격대에 입대한 심정으로 신갈과지구를 보이지 않는 보루로 다져나가겠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정녕 기쁘시었다.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랑을 주시고 진심을 주시고 아껴주신 평범한 사람들이 장군님의 전사로 성장하는것을 보실 때가 제일 기쁘시었다. 혁명하는 삶의 보람을 뿌듯이 느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리순원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순원동지, 고맙습니다. 그것이 장군님의 뜻입니다. 이제 며칠후에는 조국광복회 신갈과지회 결성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여기 현상실에서 말입니다. 장군님의 신임에 의해 순원동지는 장차 신갈과지회 회장으로 사업하게 될거예요. 앞으로는 신갈과의 상인, 기업가들로 특수분회도 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준비를 잘해주세요. 그때 다시 오겠어요.》

그럼 전 순원동지를 믿구 마음놓고 떠나겠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밤으로 리순원의 바래움을 받으시며 나루배를 타시고 어둠속에 물소리 소연한 압록강을 다시 건너가시였다.

그후 리순원은 《광선사진관》을 거점으로 항일 유격대를 물심량면으로 원호하며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잘 싸웠다.

창밖에서 여전히 눈이 펄펄 내리고있었다.

깊은 추억에서 깨어나신 어머님께서는 창턱에 쌓이는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너의 아버지는 <혜산사건> 때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선봉으로 체포되였단다. 교형리들의 야수적인

고문에도 끄떡없이 조직의 비밀을 지키다가 옥중에 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조국광복회 신갈파지회는 광복되는 날까지 활동을 계속했단다. 너는 아버지가 어떻게 싸웠고 어머니가 어떻게 아버지의 혁명 사업을 묵묵히 뒤받침해주었는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너의 아버지는 소원이 유격대에 들어가 총을 잡고 일제와 싸우는것이였다. 너는 커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총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나도 한시름 놓겠구나.》

며칠후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무일이를 데리고 만경대혁명학원으로 향하시였다.

## 백두산의 어머님

리창식

그리운 고향집 추억할 때면  
가슴가득 차오르는 어머님생각  
백두의 밀림속 우리 고향집에  
봄날처럼 웃으시는  
아 어머님모습

생각깊어라  
그 품을 잊지 못함은  
그 손길 남달리 따스해서던가  
눈보라 헤치며 언제 한번 두손이  
더워질새 없었던 어머님

쏟고싶은 사랑은  
그 어느 어머니보다 뜨거웠어도  
그 사랑 총대에 채워 안고  
피어린 전장을  
달리며 사신 어머님

못잊어  
초연이 서린 군복차림으로  
승전의 희열안고 고향집에 들어서시던  
어머님 모습

뜨거웁구나  
고운 꽃 없어주고싶은 어리신 장군님께

오각별 군모를 선참 씌워주신 그 마음  
봄노래를 주고싶은 가슴에  
혁명가요를 먼저 배워주신 그 뜻

사랑이었어라 그것은  
백두산어머님의 남다른 사랑이었어라  
모진 광풍에도  
우리의 고향집을 지켜주신분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라고  
빨찌산 숫눈길우에  
이 나라 어머니사랑의 자욱을 내신 어머님

그 사랑 불갈아  
빨찌산우등불로 더운 피 끓여주었다  
그 사랑 강철같이  
백두산정을 흔들던  
혈전의 충성으로 천만심장을 버려주었다  
그 품이 펼쳐든 붉은 기폭에 안겨  
선군조국의 오늘이 태어났나니

아 뜨거운 정  
다심한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가 다 줄수 있어도  
총대의 빛을 안겨준 어머니는  
이 세상 오직 우리 어머님 한분

## 관 통

-한 검사원의 수기-

김성희

내가 그를 다시 만난 곳은 통원리 3작업반 근로구간에서였다.

대한을 앞둔 1월의 날씨는 무척 추웠다. 그날 늦도록 강추위속에서 물길측량을 하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밖에서 왁작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쩐지 나를 두고 하는 말같아 귀를 강구었다. 이러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여기 설계원이 있소? 룡중굴 담당설계원 말이요.》 하는 거치른 목소리가 찬바람에 앞서 쨍-하니 울리었다.

나는 아직도 녹지 않은 몸을 동싯대며 피곳 상대를 보았다. 체대가 크고 호방해보이는 50대 후반기의 아버지가 성난 눈길로 방안을 두릿두릿 살피었다.

검은 눈썹이 유난히 수북하고 등이 휫사한 아버지는 룡중굴 담당설계원을 찾아내면 당장이라도 요정낼듯한 자세였다. 그 기상이 하도 엄엄해서 방안에 있던 사람들은 문을 닫고 들어오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나의 눈치만을 살피었다.

나는 영문을 모른채 아버지앞에 나섰다. 온 종일 강추위에 열대로 언 몸이 제살이 아닌것처럼 얼얼하기도 하고 저려들기도 하여 겨우 몸을 가누었다.

《접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는 될수록 틀지고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나의 젊음을 소홀히 여기고 제멋대로 하대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에서였다. 그 침착성이 가뜩이나 성난 아버지의 얼굴을 더 이그러뜨렸다. 아버지의 유난히 수북한 눈썹이 꿈틀거렸다.

《<왜 그러십니까.>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소? 우리 려단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는데 왜 시공할 주인을 찾지 않고 그냥 지나쳐? 왜 말목(측량점)을 인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가 말이요?》

너무나 격한 탓인지 발작적인 기침이 터졌다. 그 기침은 한참이나 련발되었는데 그의 분노를 더 보태는상 싶었다.

(그럼 저 아버지가?..)

듣는 사람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 기침소리를 듣는 순간 이 아버지를 오늘과는 판다르게 인식했던

머칠전의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날 나는 물길공사의 첫 부부의 설계를 검토하느라 룡중리를 지나게 되었다. 나와 한조가 된 세명은 각기 맡은 구간을 돌아보고 룡중리관리위원회에서 만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있었다.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돌이 널린 울퉁불퉁한 고진강변을 거슬러 오르는데 웬 아버지가 소갈마에 얻은 옹구에 강변의 언돌을 주어담고있었다. 벌겋다 못해 퍼릿퍼릿 언 팔목에는 피가 내뻗 형겉이 동여매있었고 머리에는 좀 낡아보이는 모자가 너풀대고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왜선지 가슴이 찌르르해왔다.

《그건 뭘 할겁니까, 아버지?》

나는 오토바이를 멈춰세우고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아버지는 뜻밖에 나타난 말상대가 반가운지 반색을 지었다.

검은 눈썹이 유난히 수북하게 첫 인상에 인정이 후한 동네늑은이가 틀림없었다.

《울담을 칠거요. 이 지방에선 집집마다 둘루 담을 쌓지요. 돌이 흔한 곳이니까...》

대답끝에 클룩... 기침이 시작되었다. 즐기침이었다.

보매 천식을 앓는것 같았다.

《거, 불이 좀 없소? 그만 라이타를 두고왔군 그래. 아까부터 생각이 나는걸 불이 없어 여적 참고있소.》

기침이 얼마간 멎자 아버지는 담배피울 잡도리부터 하는것이였다. 아마 그래서 내가 나타난것을 더 반가와 했는지도 몰랐다. 나는...그렇게 기침이 심한데 담배를요?... 하는 걱정과 의혹실린 눈으로 아버지를 건네보았다.

아버지는 빙그레 웃었다. 그 웃는 모양이 내 심중을 들여다본듯 《일없소. 이럴 땐 오히려 담배로 녹작혀야 하오.》 하는것만 같았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에 불이 없다고 했다. 락심한 아버지가 다시 일손을 잡느라 서둘렀다. 돌무지로 옮겨가는 아버지의 걸음걸이가 몹시 지쳐보였다. 나는 저도 모르게 몇걸음 따라서기까지 했다. 나는 이때처럼 내몸

에 라이타가 없는것이 한스러워 본적이 없었다. 나는 급히 아바이에게 다가갔다.

《아바이, 잠깐만 좀...》

나는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며 요너머에 있을 우리 사람들한테서 라이타를 얻어오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아바이는 또 한번 빙그레 웃었다. 그 웃는 모양이 어린애들처럼 껍 순진해보였는데 그래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그대로 내비쳤다. 나는 처음 올 때처럼 바쁘게 오토바이에 올라 발동을 걸었다. 부르릉... 발동이 걸리는 순간 아바이의 퍼릿퍼릿한 팔목의 피벤 형겅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나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아바이에게 도로 달려가 목수건을 풀어 내밀었다.

그 목수건으로 말하면 중앙경공업제품전람관에 갔던 우리 실장이 특별히 나에게 준 것이었다. 새까만 솜털이 뽕얇게 박힌 품위있는 목수건은 사치하지는 않지만 검소하고 값이 나가는 것이어서 실의 동무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의 하나였다. 나는 영문을 모른채 나를 쳐다만 보는 아바이의 팔목에 대고 다 짜고짜 돌려감아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귀한 걸루... 난 일없네. 이젠 다 나을 걸.》

아바이는 나에게 팔목을 맡긴채 황송해서 몇 마디 더했다. 나는 이러지 않으면 이 자리를 쉽게 떠날 것 같지 못했다.

《이걸 돌려주려면 어데루 가야 하나?》

아바이가 나를 건네보며 묻는 말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에둘러 묻는 듯 싶어 한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궁해졌다. 도 농업설계사업소라고 대주면 꽤 인식할까 하는 우려에서였다.

《아바이, 됐습니다. 아바이가 그대루 쓰십시오. 이제 라이타도 갖다 올리겠습니다.》

나는 꽤히 이렇게 말하며 아바이와 헤어졌다. 그러나 나는 아바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날 나는 우리 동무들을 인차 만나지 못했다. 만났을 때는 점심시간이 지난 뒤여서 아바이도 이젠 자기 집에 들어가 마라초를 두툼히 말아피우고 있을 것이라는 안심이 들었다.

《장동무, 목수건은 어쩔나?》

누군가 내 목에 유표히 감겨돌아가던 목수건이 보이지 않자 묻는 소리에 한순간 속이 얼찌근해났다. 나는 못들은척 하고 주뒹거리다가 웬 아바이를 만나 벗어주었노라고 중얼거렸다.

《장동무에게 딱 어울렸었는데...》

동무들이 아쉬운듯이 나를 보았다. 색깔과 질에 있어서 은근하고 특색있었던 목수건! 그보다 는 나

의 실력을 높이 봐주며 기대를 거는 실장의 마음이 비껴있어 누구나 부러워하던 목수건이었다. 바로 그 아바이가 오늘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 나를 다물아대는 것이 우습고 이상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니 아바이는 동네 늙은이가 아니었던 말인가.

그럼 그 언돌로 올담을 친다는 건?

아, 돌격대 생활전물에!

《아바인 대체 누구니까. 돌격대시공참모쯤 됩니까?》 하고 옆에서 눈치를 살피던 측량조수가 빈정거렸다.

《내 러단 러단장이요. 자, 빨리 잡시다!》

나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개천-태성호물길 공사현장에서 곧장 여기 백마-철산으로 옮겨와 물길공사장적으로 제일 먼저 작업준비를 끝내 그 이름이 자자한 공하준려단장?! 전개도중 설명절을 한지에서 보내며 별의별 고생을 다했더니... 그를 이런데서 이렇게 만나다니?!

나는 얼굴에 그의 손을 보았다. 터지고 찢겨진 손가락은 아직도 반창고와 형겅으로 싸매있었다. 허름한 털모자는 다른 모자로 바뀌어져있었다. 그날에 불을 찾으며 천진하게 웃던 모습과 오늘의 성난 모습은 너무나 상반되었다.

이 고장 토배기 늙은이로 착각할만큼 성근하던 아바이의 종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엄엄하고 피뻑하게만 안겨왔다. 누군가 내 옆구리를 툭툭 쳤다. 측량조수였다.

그는 아바이를 툭짓으로 가리키며 한손은 자기 목을 분주히 매만졌다. 아바이의 목에는 내 목수건이 감겨져있었다.

나는 조수에게 눈을 찔 흘려보였다. 내 눈총을 받은 조수는 그제서야 잠자코 있었는데 아무래도 미심쩍다는 듯 나와 아바이를 번갈아 살폈다.

아바이의 거센 숨소리가 아직도 씹씩거렸다. 아마 나를 찾느라고 무던히 애를 쓴 것 같았다. 암전하고 갱핏해보이는 운전사의 말이 룡중리에서 관개관리소로, 경영위원회로, 농업설계사업소로 우리가 있을만 한 곳을 찾아 분주히 얼음길을 질주해왔다는 것이었다.

《우린 래일까지 측량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제 어델 간단 말입니까?》

실장이 어두워오는 바깥에다 눈길을 박으며 내편을 들었다. 러단장은 그 말은 들은듯만둥 자기 고집을 내세웠다.

《실장동무, 조직하십시오. 오늘 밤중으로 말목을 인계받아야겠소. 우리 러단은 래일부터 일을 해야 한단 말이요!》

려단장의 성급한 독촉은 크지 않았으나 상대를 위압시키는 그 무엇이 느껴졌다.

《실장동지가 조직한다 해도 못갑니다. 우린 래일까지 측량을 마저 끝내고 그 다음에… 각 려단에 작업도면과 측량점을 인계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는 내 결심을 똑똑히 밝혔다. 거기에는 실장을 내세워 남의 사업을 뒤바꾸어놓으려고 시도하는 려단장에 대한 강한 반발심이 작용하였다.

《다시 말하겠소! 실장동무, 조직하시오. 우리는 래일부터 공사를 해야 합니다. 덧붙여 말하면 동무네 소장은 측량하면서 려단지휘부를 지나갈 때에는 그 려단에 알려주라고 지시했다는거요. 난 이 규률을 어긴 동무들을 비판하겠소.

이렇게 찾아다니도록 만든 동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말이요!》

맞았다. 려단장의 그 말은 사업소에서 통과시킨 말이였다. 그러나 새 물길에 아직은 중앙지휘부도 완전히 옮겨오지 않은터여서 우리는 마음놓고 측량길에 산개되어있을 려단지휘부를 찾아보지 않았다. 소문에는 6려단이 룡중리에 전개했다는 말은 들었으나 앞서 한대로 측량에만 전심하며 여기까지 줄달음쳐온것이다.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숨이 당장 넘어갈듯 위태롭게 들렸다. 방안의 분위기는 그냥 뻔대면 무슨 결단이 날듯 싶게 팽팽해졌다.

《장성일동무, 수고 좀 해주시오!》

실장이 정적을 깨며 타협조로 나왔다.

그도 어쩔수 없다는 태도다. 나는 선뜻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너무나 응당하고 정당하지만 불쾌한 감정을 묵새기느라 입술만 으깨물었다. 하루쯤 지체되면 뭐라는가. 여기까지 다쫓아와서 왜색 고아대는건 뭔가. 다른 려단들은 아직 전개할 엄두도 못내고있는데 벌써 생활건물을 다 꾸리고 이제는 말목을 달란다!

드디어 내 마음이 움직였다. 그때 내 마음이 움직인건 결코 그의 큰 소리때문이 아니였다. 그런 위협적인 언사에는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반발심이 생기는 법이다. 나에게게는 소갈마의 웅구예다 강변의 언돌을 주어담던 피벤 형질의 손이 얼른거렸다. 듣는 사람도 피롭히는 거센 줄기침이 울려왔다.

《갑시다!》

나는 맞잡지 않게 려단장을 보았다. 그때 내맘속에는 어데 두고봅시다, 도대체 6려단 사람들의 열성이 어느 정도인가, 제발 룡두사미가 되지 마시오 하는 랭소가 어려있었다.

려단장은 호기있게 차에 올랐다. 나도 그 못지 않

게 다른쪽 문으로 결괏게 올랐다. 이때 조수가 단으려는 문을 꼭 잡고 데굴데굴한 눈을 굴리며 성급히 주어섬겼다.

《저건 분명 장둥무거란 말이에요! 달래라요.》

려단장의 목에 감겨있는 목수건을 두고 하는 말일것이다. 나는 또 한번 눈총을 쏘고는 황 소리나게 차문을 닫았다. 지금 목수건에 신경쓸 겨를인가.

려단지휘부가 위치한 룡중리 4작업반에 도착하니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럴줄 알았는지 화불방치가 준비되어있었다. 큰 호박만 한 화불방치를 보는 순간 열고 시장한 몸이 녹작지근해지며 털썩 주저앉고만 싶어졌다.

《아니, 래일아침에 합시다. 밤중에 얼음판같은 눈길에 난 못나서겠습니다.》

하마트면 이런 말을 입밖에 낼번 하였으나 용케 눌러버렸다. 나는 절룩거리는 몸에 전지를 쥐고서 시공과장과 함께 밤길에 나섰다.

우둔한 령감, 담담설계원을 이처럼 혹독하고 무례하게 대하다니…

물론 려단장의 도고한 태도는 일하려고 애쓰는 마음에서 분출된것만은 틀림없다. 하지만 인간에겐 자기 욕망만을 내세울 권한이 없다. 누구나 자기 욕망만을 앞세운다면 뭐가 되겠는가.

우리는 그날밤으로 측량점을 인계하였다. 돌부리와 나무 그루터기에 걸채여,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 시공과장이 일으켜세워주었다.

《이거 참 안됐소.》

시공과장의 위로는 매번 미안감에 젖어있었다.

나와 동년배일듯 싶은 시공과장이 한마디 더 했다.

《우리 아바인 말이요. (그는 려단장을 이렇게 불렀다.) 자기 계획을 실행못하면 직성이 풀리지 않아 꿈꿨소. 그저 일밖에 모르니 이런 일도 있는거요.》

이때 시공과장이 허궁 모재비로 넘어졌다. 이번에는 내가 그를 일으켜주었다.

《이런, 아바이때문에 옛말 하나가 더 늘겠는걸 우리 아바인… 하루하루를 먼 후날에 추억되게 살라고 이르군 한다요. 이제 물길이 완공되고 그때 가서 흰쌀밥을 생각할 때는…》

시공과장의 시인같은 언변에 갑자기 마음이 흥떠지고 누그러워졌다. 그래, 옛말을 해보자! 피벽스런 려단장을 만나 밤눈길에 넘어지고 엎어지던 오늘을 상기해보자. 이런 생각에 이어 무례하고 관료적인 (적어도 나에게겐 그렇게 생각되었다.) 려단장에 대한 못마땅한 감정이 다시금 머리를 쳐들었다.

×

조건은 마련되었다.

중앙지휘부 감독분과에서는 나를 물길앞부분에 검사원으로 배치하였다. 물길공사에서 앞물길은 더 우기 중시하는것으로서 나의 실력과 책임성을 믿었다는 증거로 된다. 하긴 나 자신도 물길공사에 동원된 설계실의 성원들속에서 실력이 그중 높다고 자부하는 터였다. 나는 네개 려단이 맡은 굴들과 개거, 압거, 류입공 등 수많은 구조물들과 흙물길에 대한 시공을 검사하게 되었다. 2려단도 네개 려단들중의 하나였다.

물길공사에서 검사원의 위치는 자못 중요하고 또 그만큼 사업권한도 컸다. 나는 검사원으로서 자기 설계의 요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것이라는 남다른 책임감에 어깨가 다 무거웠다. 나는 처음부터 검사원의 중요한 위치에서 자기 본분을 다 하려고 냉정한 사업태도를 취하였다.

내가 공하준려단장앞에 검사원으로 나서자 그는 별로 흥미가 없다는 레사로운 태도였다. 그 레사로운데 은근히 속이 뒤틀렸다. 다른 려단들에 인사차로 내려가니 자기네한테서 숙식하면서 공사를 봐달라는등 함께 수고하게 되어 기쁘다는등 검사원을 올려주어 현훈증이 날 지경이였는데 이걸 그저 매일 보는 제집식구 대하듯 하니 오히려 비정상인 아닌가 생각할 지경이었다. 나는 아직도 형겅이 쳐매있는 려단장의 부르튼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이번 공사에 검사원으로 배치된 장성일입니다. 이제부터 같이 일하면서 공사를 잘해봅시다. 나도 웅졸한 사람은 아닙니다.》

마지막말은 캔스레 나간 말같아 속이 찢끔했다. 음미해보면 평소에 전날의 일을 속에 품고 상대를 나쁘게 생각했다는 속생각을 그대로 내비친것이 아닌가.

《그래주시오. 난 사람복이 있어 이렇게 좋은 사람이 검사원으로 왔다니까.》

(좋은 사람?)

그 통속적인 총평이 싫지는 않았다. 하기가 려단장한테 내가 좋은 사람이지.

려단장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첫 상면에 선풍목수건을 풀어 팔쪽에 삼아주고 그렇듯 무례하고 판료적인 요구에도 군소리 한마디 없이 응해주고...

《몇살인가? 서른! 좋구만 나한테두 그만한 딸이 있소. 이젠 제자식도 가지구 남편두 있는데 어떤 때엔 이 아버지에게 곧잘 혼시질을 하군 한다네 어휴, 그성화란...》

려단장은 문득 말을 멈추었다. 아마 제편에서 이야기만 한다고 여긴 모양인지, 아니면 급한 일감이 생각나서인지 이내 말을 돌렸다.

《검사원이 썩생하게 젊었으니 우리 일이 별루 더 잘될것 같구만. 기쁘네. 자, 그럼 난...》

려단장은 어데론가 급히 나가버렸다. 나는 려단장의 휼사한 등뒤를 보며 내 사업의 의무와 권한에 대하여 다시금 새롭게 자각하였다. 나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업의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룡중려합속에 방을 내고 거기에서 숙식하며 일하였다. 나는 언제인가는 려단장이 검사원앞에 자세를 낮추고 홍금을 터놓게 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어차피 시공주와 건설주검사원사이에 있게 되는 생활이니까.

그러나 려단장은 여전히 한본새로 도고하였다. 그렇게 도고하던 려단장이 나를 찾아 불쑥 합속에 왔다.

나는 속으로 기꺼웠다. 내 뜻하는바대로 일이 된다고 쾌재를 불렀다. 그런데 웬걸!

려단장은 거드랑이에서 종이말이 하나를 꺼내놓았다. 룡중굴탐토구보강공편적에 대한 설계였다.

《이보우, 검사원! 지금 조건에서 이 시공법대루는 세월이 없소. 그래 두루 생각해보다 퍼뜩 떠올라서 이렇게 왔네 이 옷부분을 먼저 련적하고 후에 밑을 굴착하여 련결시키는 방법을 쓰면 어떨가? 토론 좀 해주오!》

《뭇라구요? 우를 먼저 련적한다구요?》

나는 려단장의 너무나 허황한 제의에 입을 하 벌린채 코웃음을 쳤다.

《글쎄, 내 말을 좀 듣게. 장검사원도 알다싶이 물량은 많은데 어찌겠나. 장마철도 박두해오는데 멍청히 앉아 비세례를 받겠나. 그래서 물나오는 이면까지 굴착하여 련적을 먼저 하고 후에 밑을 굴착하여 련결시키는 방법으로 할수 없을가 하고 생각해 보았네. 어떤가?》

려단장은 설계도면의 여기저기를 짚어가며 진지하고도 정열적으로 설렘했다.

나는 설계도면에는 눈도 주지 않았다. 듣고싶지도 않았다. 보강공이란 말자체가 물길굴의 파괴를 없애고 보호하기 위한 대상구조물의 하나이다. 흙물길과 굴을 련결시키는 이 보강공은 매 굴의 탐구(물길굴에서 물을 받는 첫 부분)와 토구(물길굴에서 물을 토하는 마지막부분)에 꼭 있게 되는데 세멘트의 장식으로 잘 싸아주어야 하는 구조물이다. 굴에서도 수로에서도 길이 수위상승을 없애기 위한 보호구조물인 보강공편적에 대한 시공은 굴공사에



못지 않은 중요한 공정이었다. 한데 이 중요한 공정을 우를 먼저 시공하다니?...

내가 어떻게 완성한 설계인데 거기에 사소한 의심을 하며 자기것을 끼여넣으려 하는가. 제가 얼마나 알아서...

현지답사, 현지조사로 몇켤레가 되는지 모르는 신발을 해뜨리며, 오토바이의 다이야를 몇번이나 교체하며 무른 메주 밟듯하여 수많은 구조물들을 지형조건과 토질에 맞게 설계하느라 애쓴 고생스럽던 나날들이 언뜻언뜻 지나갔다. 앞물길의 설계는 결국 나의 피와 살, 내자신의 전부였다. 그 어떤 구조물이든 나의 수십번의 발차취, 나의 고심어린 숨결이 깃들지 않은 설계란 없었다.

《려단장동지!》

나는 애써 각뚱하게 려단장을 불렀다. 엄격한 사업한계를 긋고 똑똑한 인식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새삼스레 갈마들었던 것이다.

《전 검사원이기전에 이 물길의 담당설계원입니다. 무조건 설계대로 시공하십시오. 려단장동지가 계속 우긴다면 절 모욕하고 무시하는걸루 이해하겠습니다.》

나는 너무도 억이 막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보다 예리한 말로 려단장의 부당성을 까밝혀야 했는데... 아니, 그보다는 어떻게 완성한 설계인데 현실조건에 빙자하여 그런 얼토당토않은 궁리를 짜낸 것인지 그 뿌리부터 캐내어 목살하고싶은 마음이 요동쳤다. 려단장은 내 심중의 변화를 읽은듯 한음 낮은 어조로 달래이듯 말했다.

《이런 말이 있지 <신심이 없으면 지척도 천리요 신심이 있으면 천리도 지척이다.> 하자고 결심하면 방도가 생겨.》

려단장은 조금도 열을 식히지 않고 계속 설복하려고만 들었다. 나는 《신심을 걸구 날 나쁜사람으로 몰지 마시오. 나두 공사를 하자는 사람입니다.》하고 벽력같이 소리치고싶은것을 겨우 누르며 딱 잘라말했다.

순간 려단장쪽에서 절금해졌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던 려단장이 나의 양양한 기세에 놀리운듯 심호흡을 하며 류달리 시꺼먼 눈섭을 쭈깃거렸다.

나는 심리적으로 볼 때 려단장이 몹시 불쾌하나 어쩔수 없이 나의 정당한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되리란것을 스스로 인정한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이윽해서야 려단장은 움쭉 몸을 일으켰다. 뭔가 미심쩍은듯 하나 억지로 단념해버린듯 한 표정앞에서 나는 저으기 표표해졌다.

려단장의 발걸음소리가 멀어져갔다. 그는 올 때

처럼 아무런 인사말도 남기지 않은채 훌-가버렸다.

나는 그 뒤를 쫓아 공사현장으로 나갔다. 늘 하던대로 시공과장이 있을만 한 강도로 발길을 옮기는데 나를 먼저 발견한 그가 손짓까지 하며 나를 찾았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나와 동갑이지만 검사원이라고 각뚱하게 상급으로 대하던 그가 봄비는 공사판에서 큰소리를 쳐가며 나를 찾는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급히 사람들속을 헤집으며 시공과장이 있는 곳으로 갔다.

《야, 이거... 수골했습니다.》

그는 무작정 나의 두손을 잡고 흔들었다. 웬 일인지 몹시 흥분해보였다.

《무슨 일이 있었소?》

《있다마다요. 정말 좋은 일이지요. 아마 눈이 번쩍 뜨일겁니다. 글썄 이걸 좀 보십시오.》

그는 옆구리에 끼고있던 종이를 꺼내며 내가 보기좋도록 놓아주었다. 소학교학생이 마구 장난친듯한 그림이었는데 방금 려단장이 나한테 보인 그림과 꼭 같은것이였다.

《이건 뭐요?》

나는 슬그머니 불안해지는 마음으로 다그쳐 물었다.

《원, 보면서두 묻습니까. 글썄 이걸 우리 아바이가 착상했습니다. 역시 아바인 일군이 틀림없습니다. 현조건에서 공사를 계속 밀고나갈 합리적인 착안이니까요. 저 보강공편적을...》

아, 들어보나마나한 일이었다. 저다지나 흥분하다니... 나는 순간 눈살이 꼳꼳해져 시공과장을 면바로 쏘아보았다. 포기한줄로 믿었더니 이젠 기술자까지 휘둥시켰다. 시공과장의 량순하면서도 어진 얼굴이 차츰 굳어져버렸다.

《그럼 장검사원두 이걸 알고있습니까?》

나는 그의 반문에는 대답없이 아직도 흥분이 채 가셔지지 않아 들떠있는 시공과장에게 오금을 박듯 토박토박 말했다.

《동무도 기술을 배운 사람이라면 기술일군답게 처신하십시오. 려단장이야 토목기술을 모르니 기초없이 고층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옆에서 잘 도와주어야 할 동무까지 그 장단에 먼저 춤을 추다니. 괜히 흥이 나서 원족나온 애들처럼 들떠있지 말란 말이요. 그래 동무가 그런 허망한데 호기심을 갖구 있으면 아바이를 함정에 밀어놓는다는걸 왜 모르오? 이 공사는 기술적으로 내가, 이 검사원이 책임진단 말이요. 무조건 설계대로 시공하오!》

얼마나 흥분해서 소리쳤는지 주위의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나와 시공과장쪽을 슬쩍슬쩍 보았다. 시공과장도 그것을 느꼈는지 얼굴이 벌거우리해진 채 눈길을 내리쳤다.

그 표정은 현장사람들앞에서 자기를 너무 다물아대지 말아달라는 당부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달음으로 러단지휘부로 내려왔다. 이번에는 내편에서 러단장을 먼저 만나 단단히 오금을 박아 놓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방마다 창문이 열린 복도를 지나치는데 시공분과방에서 왁작 떠드는 소리가 울려나왔다. 저마끔 열을 울리며 토압이 어떻소, 기동식으로 이발을 박아 물려준다느니 하는게 뭔가 심상치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빼들고 방안을 살펴보았다. 참모장과 시공참모가 벽앞에 걸어놓은 흑판에 대고 저마끔 자기 그림에 덧칠을 해가며 목에 피대를 돌고있었다. 여기서도 보강공련적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토론이다. 기초없이 고층집을 짓고 후에 기초를 한다는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 격렬히 논쟁하는 저들을 보니 또 한번 속이 불끈해졌다. 모두들 우둔한령감의 발기에 제 정신들이 없다. 욕망과 실천간에는 엄연한, 무시할수 없는 거리가 있다. 모든 일이 욕망만으로 해결된다면야... 손을 털고 물려선줄 알았더니 더 기를 쓰며 덤벼든다. 오망을 써도 분수가 있지.

나는 우격부득 피여오르는 격분을 녹애틀수가 없어 러단장을 찾아 방에 들어섰다. 짝 열려진 문에다 인기척도 내지 않고 들어서니 러단장은 방바닥에 널려진 종이를 들여다보며 전자수산기를 두드리다가 흑- 끼치는바람에 그제서야 머리를 들었다.

《어, 마침이구만. 역시 내 머리로는 안되겠소. 러단내 기술자들한테 현상응모로 제기했지만 아직 신통칠 않소. 뭔가 될듯 싶어서 시작했는데 기대하는답이 안나오거든. 장검사원이 좀 손대주요.》

나는 미운데 깨코한다고 비위살중계 접어드는 러단장을 표독한 눈초리로 내려다보았다. 러단장은 그러거나 말거나 종이장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였다.

《러단장동지, 정말 계속 이러시겠습니까. 전 궁리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엉뚱한 궁리를 계속 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초를 무시하는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길이구, 제 손으로 제 목을 베는 자살행위입니다.》

《원, 어마어마하기란. 함정은 뭐구, 자살행위는 또 뭔가. 자 그렇게 흥분하지 말구 생각 좀 띄여보라구. 난 기술적담보가 없는걸 제기하지만 장검사

원한테는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지식이 있지 않나.》

내가 어떻게 거부하든 느글느글 자기 의사를 그대로 표현하는 그 느긋한 성미가 나의 기분을 더 잡치게 했다.

이건 《네가 돌맹이면 나도 돌맹이, 네가 떡이면 나도 떡》 이 아니라 《네가 돌맹이여도 나는 끝까지 떡》이라는 배심있고 여유있는 식이었다.

나는 자꾸만 새어나오는 분김을 새길수 없어 씩씩 황소숨을 내쉬며 무섭게 러단장을 내려다보았다.

《러단장동지, 거듭 말하겠습니다. 무조건 설계대로 시공하십시오. 그와는 일체 생각조차 해보고싶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완성한 설계인지 러단장동지가 아신다면... 피약벌에서 더위를 먹으며 강추위속에서 손발을 얼구며... 이 지구의 풀 한포기, 돌맹이 하나도 다 생생합니다. 이 설계는 내 생명이나 같습니다. 이 구조물은 설계자인 내가 책임집니다.》

《시공주인 나도 책임지지. 나한테 구조물의 영구성뿐아니라 당에서 준 기일내에 공사를 완공시킬 의무가 더 지워져있단 말이요. 안그렇소?》

러단장의 따지듯 묻는 소리에 나는 입술을 으깨물며 더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러단장은 방바닥의 종이장을 간중그려 내앞에 내밀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종이몽테기를 줌안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싶은 야생적이고도 발작적인 충동이 불같이 일어나는것을 느끼며 썩- 들어올 때처럼 박을 나왔다. 그바람에 러단장의 손에 몽그려쥘뻔한 종이들이 너울거리며 다시 방바닥에 흩어져버렸다. 백메터달리기를 했을 때처럼 목에서 겨불내가 나고 가슴이 뻐뻐였다.

적절한 기회에 내 심증을 확 쏟아놓지 못한 분함 때문인지 온몸이 나른해왔다.

다음날, 나는 중앙지휘부의 기술분과에서 공하준 러단장을 보았다. 피땀 스치는 생각이 좋지 않았다. 아닌게 아니라 기술분과성원들과 러단장이 그림까지 그려가며 기동식이요, 이발처럼 물리면 토압을 견딜수 있다는등 제나름의 탐구와 사색이 깃든 방안을 놓고 열띤 논쟁을 하고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내가 들어선것도, 한동안 귀기울이고 서있는것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나는 더 듣고만 서있을수가 없어 후닥닥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건설의 인재와 수재는 여기 다 모인것 같았으나 실제로 설계를 책임진 주인은 나하나뿐이라는 자각은 저런 열토당토않은 토론을 한시바빠 제지시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시공법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토압에 의한 이음부의 꺾임현상은 불가피합니다. 이 공법으로 인한 후파에 대해 생각해봤습니까. 누가 그 후파에 대해서 책임진단 말입니까.》

불시에 나타나서 기관총사격하듯 거침없이 련발하는 불의의 도전에 모두들 어안이 벙벙해졌다.

나의 얼굴은 서서히 달아올랐고 온몸의 힘살은 경련이라도 만났듯이 푸들푸들 떨리었다. 그것은 경련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잊게 하는 전율과도 같은것이였다. 나의 건전한 사고력과 판단력, 리성과 논리는 불시에 어데론가 사라져버리고 그저 무턱대고 부정하고 반박하고싶은 맹목적인 자존심만이 허우적했다.

나는 그 길로 감독국장을 찾아갔다. 감독국장은 한창 어데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있었는데 썩썩 황소숨을 뿜는 나에게 몇번이나 앉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종시 한자리에 버티고 서서 전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국장동지. 전 ㄹ려단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그령감밀에선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안된다구 했는데 여기까지 들고 와서 또 상정시킵니다. 벽두 문이라구 내미는 판이지요.》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 한꺼번에 속을 털어놓으니 어느정도 마음이 진정되였다. 나를 보는 감독국장의 얼굴이 차츰 긴장해졌다.

《룡중굴 보강공련적말이요? 장동무, ㄹ려단장이 새벽에 왔다갔소. 나도 뒹죽 해서 ㄹ려단장을 지지해주었소. 지금 기술분파에서 토론일거요. 최종결론은 ...

우리 현장에 가서 합시다. 자, 당장 출발하지요!》

이런 때를 두고 닢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했던가. 나는 감독국장을 멍청히 보기만 했다. 기초도 없이 고층건물을? ... 불안감은 뇌리에 갈마들어 마구 휘저었다.

《장동무, 지향이 강한 사람들한테 벽에두 문이 열린다고 했소. 우리 검사원들은 바로 그 문을 여는 열쇠를 간직하고 살아야 하오. 지금 물길공사는 그 어느 건설력사에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진행되고있소. 그 악조건을 헤쳐가는 공사니만큼 시공에서는 창발적의견이 제기되오. 기성관례, 기성공법에 매달리면 허황하게만 보일수 있소. 우린 보다 혁신적으로 사고하여 <지향이 강한 사람들> 한테 벽에두 문이 열리는 열쇠를 주는 진짜로 훌륭한 검사원이 되기 위해 힘껏 노력하기요!》

흔들리는 차안에서 뒤흔들 조용히 그리고 지나가

는 말처럼 우리는 감독국장의 이야기는 속삭이듯 낮은 소리로 들려왔으나 이름할수 없는 견인력으로 나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룡중굴현장에서 있는 기술협의회에서는 분분한 론쟁과 복잡한 협의를 거쳐 ㄹ려단장의 착상이 공사의 어려운 정황을 극복하고 공사를 계속 내밀수 있게 하는 현실적이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도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동시에 보강공련적에 대한 설계를 변경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무언중에 통과되였다. 결국 나는 ㄹ려단장의 표현대로 하면 지식만 있고 신심이 없는 검사원이였다.

나는 공사현장을 분주히 돌아치며 자기 주장을 끝까지 실현시킨 ㄹ려단장의 험스한 등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검사원말도 안듣는 무서운 왕고집쟁이! 온 물길중앙지휘부를 휘저어서라도 자기 의도를 관철시키는 실력가!

나의 가슴속에서는 저도 모르게 웃음집이 흔들거렸다. 속이 텅 빈 허구픈 웃음이 흥-코소리와 함께 흘러나왔다.

이 동네 불박이 로인으로만 알고 목수건을 벗어 《선심》을 쓰던 지난 일이 불쑥 생각키워 자기 자신이 가소롭고 어리석게만 여겨졌다. 저런 ㄹ려단장을 왜 인정이 후한 동네늑은이로밖에 못보았을가.

《왜 웃소?》

ㄹ려단장이 만족한, 그러면서도 미안감과 체면쩍음이 섞인 얼굴로 나를 찬찬히 살피며 물었다.

《잡자기 옛일이 생각나서요.》

그랬다. 나에게는 그때 일이 아득히 먼 일처럼 추억되였다. 손꼽아보면 불과 몇달전의 일이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ㄹ려단장은 그때 목수건을 풀어 팔목을 감아주던 그 《길손》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가. 저렇듯 덜통한, 자기 주장밖에 모르는 령감이? 어렵도 없다.

이 순간 나에게는 그 은근하고 특색있는 목수건이 나에게 리상적으로 어울린다는 사실을 굳이 긍정했으며 지금은 아바이한테 있다는 현실이 짜릿한 아쉬움으로 새겨졌다.

《옛일? 검사원이 웃는걸 보니 내 마음도 좋구만!》

ㄹ려단장은 아무려나 내가 웃는것이 진정 마음이 즐거운듯 유쾌한 기분으로 나에게 말을 건넸다.

《장검사원, 설계가 언제쯤 되겠나?》

나는 책 머리를 돌려버렸다. 변경설계에 대해서는 더 말하고싶지 않았다. 어차피 내가 손대야 하고 내가 주관해야 할 일이였으나 《불박이》 늑은이한테 손상당한 자존심은 어쩔수 없이 마음 한구석에

깊숙이 자리잡고 사내답지 못한 험애하고 웅졸한 고까움을 불러일으켰다.

×

조성된 난국에서 공사를 앞당길수 있는 길이 마련된 려단은 더 활기로왔고 더 사기충천하였다. 그러나 나는 저기압이었다. 장마비를 잔뜩 머금은 하늘처럼 내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려단장과의 시공법마찰로만 설명하면 검사원을 어떻게 보는가고 의견을 부리고싶었고 신심문제로 따지면 더 할말이 많았다.

농장들에서 심은 앞그루작물인 보리가 싹누렇게 되자 급기야 보리장마가 덮쳐들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서기전 초여름의 보리장마치고는 무던히도 많은 비가 쏟아졌다. 공사장에서 비는 금물중의 금물이었다. 무더기비는 수백㎡의 흙을 처리해야 하는 토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며 물길굴에 들어차서는 몇달씩 굴진을 못하게 애를 먹였다. 흙사태가 쏟아져 몇천㎡의 흙이 굴입구를 순간에 메워버리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뭉청 한두달, 지어 반년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려단들에서는 비로 인한 피해가 말이 아니었다. 굴의 입구마다 물이 차고 양수기전동기가 순간에 불어난 물 때문에 고장이 났다. 쏟아져내린 흙사태로 굴입구를 완전히 메워버리기도 했다. 게다가 전선주까지 넘어져 정전이 되고 통신이 마비되어 생산적연계가 끊어졌다.

나는 무시로 생산지휘용대공전화기로 각 려단들의 피해상황을 알아보고 종합하였다. 르려단만이 피해가 그중 적었다. 여러 대대들의 가설건물에 비가 새어들어 벽체가 무너진것과 압축기장의 기와 몇장이 날아난것뿐이었다. 무너져내릴 위험성이 있는 토구의 보강공편적을 이미 다그쳐 끝내고 물도량을 깊숙이 췌놓아 산등성이의 물이 말끔히 내가로, 강으로 뻗게 되어있었다. 물길공사시야가 넓고 주도세밀한 작전은 이렇듯 정확한 시공으로 일관되어있었다. 이렇듯 정확한 한번의 시공은 자연을 투쟁무대로 하는 물길공사장에서 많은 시간과 로력을 거저 얻는것으로 되었다. 지휘관의 두뇌에서 세워진 작전과 지휘에 따라 피해상태는 각이하게 나타났다. 무더기비는 공사장을 위협하는것과 동시에 각 려단지휘관들의 지휘능력과 차의 창발성을 검증하는 시험장이기도 했다. 있을수 있는 정황을 미리 미리 예견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는것은 공사시야가 좁거나 물길공사경험이 적은 보통 일군들로서는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나는 려단의 여기서기를 돌아보며 내판에 결론한 지휘관의 능력에 대하여 다시금 확증해보았다. 나

는 날이갈수록 자꾸만 려단장에게 쫓려지는 호감을 스스로 녹앳하였다. 진취적이고 창조적이며 능동적인 한 인간의 긍정과 공감은 거부의 감정이 컸던만큼 내 가슴에 깊숙이 새겨졌다. 그러던 어느날 밤, 린점려단의 시공을 봐주고 한치앞도 가릴수가 없는 밤길에 무턱대고 나서서 함숙으로 돌아오고있었다.

길은 온통 진창인데다 어데가 어덴지 분간되지 않아 오토바이를 힘내기로 끌고나섰다. 먹통처럼 새까매서 걸음걸음은 깊은 나락속에 빠져드는듯 아짜아짜한 느낌인데 오토바이는 쇠덩이마냥 무겁게 끌리었다. 썸을 세듯 가까스레 걸음을 내짚어 룡중리3작업반 등성이에 올라섰는데 저 멀리 불의 바다가 환히 펼쳐져있었다. 룡중굴탐구쪽이었다.

나는 함숙에 들어가려던 걸음을 멈추고 그쪽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걸음걸음 다가갈수록 룡중굴탐구가 많은 사람들한테 촛촛히 에워싸여 마구리가 드러나 보이질 않았다. 탐구앞부분의 명굴콩크리트 치기가 한창이었다. 아마 온 려단이 다 동원된듯 했다.

만약 비가 오면 물먹은 굴 량쪽의 흙더미가 사태로 쏟아져내릴 위험이 있는것을 미연에 대책하는것이다. 그 부분을 맡은 대대에만 방임하면 날자가 걸려 비의 세례를 받을 우레가 큰것이어서 려단장은 비상한 결심으로 대대별 울타리를 무시하고 전려단의 힘을 과시하기나 하듯 총공세를 들이댄것이였다.

전투는 그야말로 승벽내기로 들끓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음이라는 사생결단의 전투장이였다. 리에서 만든 특색있는 《방송차》까지 동원되어 전투장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려단장은 옷동을 벗어던져 속 내의바람인데 어찌나 민첩하고 날렵한지 꼭 운동선수같아 보였다.

나는 혹시 잘못 보지 않았나 해서 어둠속에서 초점을 맞추고 한참동안 지켜보았다.

려단장을 본판 모양인지 대개가 옷동을 벗은 몸들이었다. 모두들 화불방치에 매달았는지 어둠을 밝히는 주위는 천타는 싸한 뉘새로 코안을 자극했다. 아니, 내 심장을 자극했다. 려단장은 공사장을 주시하며 타입물의 다짐, 배합비, 콩크리트두께, 물량조절 등 갖가지 공정들에서 부족되는 점들을 지적하고 보충하느라 연방 소리소리 질렀다. 나는 검사원의 눈만으로도 아니라 중앙지휘부 시공분과의 책임일군이 되어 현장을 예리하게 내려다보았다.

사전준비가 명확하고 로력배치가 놀랄 정도로 췌여있었다. 골재운반, 세멘트넣기, 퍼담아주기, 다짐, 막돌넣기... 명굴치는 모든 공정이 장단을 맞추는 춤가락처럼 퍼그나 세련되고 룡동적이었다.

지휘관의 실력은 높은 작업실적으로 곧 나타났다. 방대한 량의 명굴콩크리트치기는 새벽 3시, 6시간 만에 끝났다. 리더장은 그 자리에서 방송차에 대고 전투총화를 지었는데 목갈린 소리였다. 천식환자가 목까지 콧 쉬니 쉼쉼소리만 울려나왔다. 그러나 리더는 자기 리더장의 그 말소리를 심장으로 듣는 듯 했다. 리더기, 대대기들이 새벽하늘에 펄럭이고 우렁찬 함성이 때아니게 끝안을 메웠다.

시간이 이윽고 나날은 리더장을 찾았다. 리더장은 방금전과는 달리 한가하게 명굴콩크리트아치 위에 덩실하니 앉아 가슴을 부여안고 모지름을 쓰고 있었다. 내가 급히 다가서서 살펴보니 이마에 내뿜은 땀이 줄기를 이루는데 온 얼굴은 만신창이 되도록 잔뜩 이그러져있었다.

《왜 그러십니까, 리더장동지!》

나를 피곳 본 리더장의 얼굴의 주름살이 서서히 퍼져갔다.

《아, 괜찮소. 허밀에서 구심환을 여러알 녹였더니 이제야 살것 같소. 참, 일기예보를 들으니 무더기비가 예견된다더군. 이 마구리가 켈 안심찮았는데 밤중에 제껴버렸소. 백날을 당겨온 전투였소. 이젠 아무리 큰비가 온대두 저게 다 이우에 쏟아지겠으니... 이런 전투야 백번이래두 해볼만 하지.》

너무나 자연스럽고 말머리를 돌리는 바람에 나는 당장이라도 쏟아져내릴듯 싶은 왕금이 찹찹 갈라진 량쪽의 흙산을 여겨보며 그의 여유작작한 지휘능력에 감탄하고 서있었다. 리더장은 자기 만족에 겨워 담배를 내밀다가 내가 피우지 않는다는것을 비로소 상기한듯 손을 움츠리었다.

《이거 불이 또 없군. 종일 피우지 못해 꿀맛일텐데. ... 이상하지 않소 고질인데 불은 내내 잊고 다닌단말이요.》

그러나 나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이런 건망증은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흔하게 있는 현상이니까.

드넓은 공사장을 한눈에 굽어보는 시야도 중요하지만 선후차를 옮겨 가려 주도세밀하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실천하는 능력은 물길지휘관들 누구나 소유한 품격이 아니었다. 지휘관의 한순간의 착오는 자연을 투쟁무대로 하는 물길공사에서 엄청난 후과를 빚어낸다. 물길공사에서 지휘관의 고급한 기능은 리더의 헛시간과 헛노력을 막는 최대의 값비싼 노동이었다. 이런 값비싼노동력을 지닌 공하준리더장은 담배에 절실히 필요한 라이타를 종종 잊을뿐이었다. 그게 무슨 흠인가. 청청거목에도 한두잎의 띄일이 있는데야.

나는 주변에서 불을 얻어보려고 주위를 살폈다.

새벽어스름에 뿌옇게 드러난 주변에는 우리 두사람 뿐이었다. 그렇게 흔하던 화불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재채기와 함께 기침이 터졌다. 머칠동안 감기로 신고하였더니 앞가슴이 빠근해오며 잔기침이 떨어지지 않았다.

리더장은 주섬주섬 담배를 거두더니 나를 이끌었다.

《이제 합숙에 가야 뭐 시원찮겠는데 오늘은 내 방에 가서 지내자구.》

그때까지 나는 모진 기침을 짓느라 눈물이 다 글썽해졌다.

《원, 팔불견이군. 그 기침은 나한테서 인계받았나? 난 길가던 어느 고마운 젊은이가 털목수건을 벗어주길래 그걸루 목을 잘 감쌌더니 어지간히 나아졌어.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목수건이 약이 된것 같애.》

《목수건말입니까?》

나는 얼굴에 따라 외웠다.

《그래 결보기에도 값진것이었는데 그게 분명 약이 됐소.》

나는 저도 모르게 그 젊은이가 나였다고 말하려다가 다행히도 참아내었다.

분명 리더장도 나를 알아본것이다. 그 억양, 그 얼굴표정이 다 말해주는데 구태여 내가 나자신을 밝히려 들다니.

시시하게... 경솔하게...

나는 리더장을 따라나섰다. 합숙이 가는 도중에 있었지만 그냥 지나쳤다. 리더장말처럼 뭐 시원찮아서가 아니었다. 그저 딱히는 설명되지 않는 심리가 작용했는데 툭 찍어 설명하면 리더장과 그렇게 헤어지고싶지 않아서였다.

새벽에는 아니, 이제 한두시간이 지나면 다른 리더단으로 떠나가야 한다는 종전의 계획을 이미 굳혔었다. 리더단은 자연을 상대로 하는 물길공사가 아니라 무슨 제품을 계열생산하듯 척척 진척시키는데 구태여 감사원의 권한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나스스로 인정하였다. 7~8월의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전에 리더단의 보강공편적시공법을 다른 굴들에 도입하여 공사손실을 훨씬 적게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지배되었다.

《젊은 나이가 좋구만. 그렇게 소갈데 말갈데 다니면서도 끄떡않는걸 보니, 요즘엔 변경설계까지 맡아안구 수고가 많았겠는데 또 가야겠지?》

리더장은 어느새 나의 심중을 들여다보기라도 한듯 넋지시 건네었다. 논고를 돌아보는 논문관리공처럼 바지가랭이를 무릎까지 걷어붙이고 한발을 절

룩거리는 모양이 몹시 지쳐보였다.

려단지휘부에 도착하자 려단장은 세목장에 곧추 들어가며 자기 방에서 먼저 눈을 붙이라고 일렀다. 나는 려단지휘부마당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려단 장방에 들어갔다.

얼마 크지 않은 정방형의 한쪽에 나무침대가 놓여있고 그와 잇달아 각종 문서철이 끼여있는 책꽂이와 전화기가 놓여있는 앉은뱅이책상이 들어앉은 검소한 방이었다. 침실겸 사무도 볼수 있게 꾸린 돌격대식생활건물에 들어서서는 순간 기다렸다는듯이 전화종이 울리었다. 나는 무작정 수화기를 들었다. 또 어느 현장에서 나를 찾는듯만 싶어 본능적으로 움켜잡았다.

생각지 않게 맑고 청초한 녀자의 목소리가 노래처럼 흘러나왔다.

《아버지세요? 나 현숙이에요. 약은 드셨어요? 내가 인편에 보낸 새벽에 들라고 하던 꿈 말이에요. 또 잊었겠지요? 시공과장말이 려단군의소 랑동기에 보관되어있다는데 그게 정말이에요요? 오늘은 무조건 드세요. 그 답을 얼마나 힘들게 구한건지 아세요. 답이라니 그저 보통답인줄 아는가 봐. 감장답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기침이나 심장병엔 특효래서 애아버지가 출장길에 농촌에서 구한건데... 아이, 여보세요?》

종다리와도 같은 귀여운 울림은 무언가 미심쩍은 듯 내쪽에 대고 다우쳐물었다. 한순간 얼떨떨했다가 이 종다리가 나와 동갑이가 되는 려단장의 외동딸이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하였다. 내가 검사원으로 배치되어 인사하러 왔을 때 딸소리를 하며 《어휴, 그 성화란...》하고 딸의 효성을 은근히 자랑하던 려단장의 그 웅심깊은 모습이 어제일처럼 떠올랐다. 나는 《종다리》에게 뭐라고 《화답》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나고 조급해났다. 그 찰나 이외로 기침이 터졌다. 이젠 기침이 거세서 쾅쾅 속이 빈 통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어야, 그것 보지요? 안되겠어요. 아무래도 시공과장한테 공개시켜야겠어요. 시공과장이 제 중학동창이라는걸 알지요?

천식은 둘째이구 아버지가 무서운 <시한탄>을 안고 산다는걸, 2차 심장발작이 시간문제라는걸 다 말하겠어요. 지금껏 아버지 열성을 믿구 아버지가 두시간이나 심장쇼크에 들어갔던걸 비밀에 붙였었는데... 이젠 말해야겠어요. 약은 들지두 앓구 계속 기침만 깃구...씨, 난 몰라요!》

처음에는 종다리노래처럼 즐겁게 울리더니 울먹

이는 소리가 인차 울음소리로 변해버렸다. 나는 긴장과 호기심으로 해서 내 몸이 차츰 굳어지는것을 의식하였다. 천식기침은 둘째이고 《시한탄》을 안고 산다? 2차발작이 시간문제인데 누구도 모른다?!

나에게는 재깍거리는 시계의 초침이 귀따갑게 들려왔고 자기 시간에 맞추어진 시한탄이 쿵 터지는 환영이 눈앞에 어려왔다. 나는 그 시한탄을 해체시키는 심정으로 수화기를 조심히 옮겨가면서도 목소리는 마냥 격해졌다.

《여보시오, 난 동무를 비판하겠소. 왜 시공과장한테만 공개시키겠다고 하요? 여긴 군의도 있고 검사원도있소. 시공과장한테만 공개하겠다구?》

《거진 누구세요?》

화뜰 놀라는듯 한, 경계심을 잔뜩 머금은 소리가 랑정하게 울리었다.

《난 검사원이에요! 이곳 시공을 검사하는! 그리구 아버지의 건강도 책임진...》

나에게서는 이런 말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여태 려단장의 병도 모르는게 무슨 검사원이야? 하는 자신에 대한 질책으로부터 나온 말이었다.

《검사원이라구요? 여보세요, 우리 아버지 안계세요?》

《아버진, 려단장동진 이제껏 작업을 지휘하셨소. 흔히 말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한여름의 큰 장마를 이겨내는 큰일을 밤새도록 치르셨소. 사생결단으로 이겨냈소!》

마지막말은 합창시의 결구처럼 령점을 찍었다.

《그랬듯군요. 그래서 모두들 지쳤겠군요. 동무도 우리 아버지도...》

수화기의 전류흐르는 속에 호- 길게 내쉬는 한숨 소리가 섞여 울렸다. 때를 같이하여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오고있었다.

심장병이 심한 환자! 아, 그래서... 나에게는 명굴콩크리트우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모지름을 쓰던 려단장의 이그러진 얼굴이 떠올랐다.

《시한탄》이요, 2차발작이요 한 려단장 딸의 표현은 결코 지나친것이 아니었다. 한번 앓은 전적만 있으면 몸의 어느 한 부분에 웅크리고있다가 어김없이 발작하고야마는 심장병은 로년기의 사람들이 경계하여야 할 난치의 병이다. 이런 병을 앓는 사람들은 최대의 안정과 약복용, 적당한 치료산보가 일파로 되어있다. 그런데 저 려단장은?...

벌컥- 문이 열렸다. 려단장이 수화기를 쥔 나를 방해하지 않으려는듯 조심스레 방안에 들어섰다.

《전화를 바꾸라오?》

나는 별스레 싱싱해보이는 려단장을 여겨보며 수

화기통에 다우쳐물었다.

《아니, 그만두세요.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종다리》는 뭔가 단념한듯 단호하게 답답하게 일렀다. 아마도 아버지가 피곤에 몰려 잠자리에 있는줄로 아는 모양이다. 나는 절박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너무나 긴장된탓인지 어깨가 지긋지긋 아파났다.

《무슨 전환가?》

나는 불시에 화가 치밀어 사실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방금 딸과 주고받은 사실여부를 여사모사 여쭙어야겠는데 자기 병은 감추고 젊은이들 《홍내》를 내는 러단장에 대한 못마땅함에 입이 열려지질 않았다.

《무슨 기분 나쁜 전화였소? 다른 러단에서 시공 사고라도 났던가?》

러단장의 유난히 수북한 눈썹이 의혹을 싣고 꿈틀거렸다.

《그렇습니다. 사고지요. 어마어마한... <시한탄>이 터질테니까요.》

나는 러단장의 얼굴을 면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뇌이였다.

《시한탄?! 핫핫하하...》

불식간에 호탕한 웃음이 호젓한 방안에 크게 울리였다.

《우리 딸애가 또 <공포>를 왔군. <공포> 한방에 그렇게 질겁하다니. 큰 공사를 맡은 검사원이...》

러단장은 큰소리로 웃고있었지만 나는 웃을수가 없었다. 《시한탄》을 안고 살면서도 비판을 모르는 그의 불굴의 모습에 머리가 숙여졌다. 나의 가슴속에 뜨거운 걱정 of 파문이 일었다. 저도 모르게 나의 두눈에 물기가 펴 어림을 느꼈다.

《러단장동지! 허세를 쓰지 마십시오.》

나는 단도직업으로 러단장을 공격하였다. 오금을 박는듯 한, 예리한 칼날과도 같은 나의 공격은 즉시에 명중되였다. 나의 얼굴에 피곳 시선을 주던 러단장의 두어깨가 순간에 폭 떨어졌다.

《후- 솔직히 나두 불안에 빠질 때가 없는건 아니요. 언제 다시 쇼크에 빠지겠는지. 제발 그렇게 되기전에 이 공사를 끝내야겠는데... 그래서 개천-래성호에서 새 물길로 곧장 달려왔군 남보다 먼저 말목을 인계받았소. 공사속도를 보장하려고 <기초없는 고층건물>도 궁리해내구 검사원에게 변경설계두 요구하구...》

마치 자기의 파오를 심심히 뉘우치듯 러단장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였다. 나의 눈앞에는 퍼렇퍼렇

한 팔목에 감겼던 피벤 형겅이, 룡원리 3작업반까지 질주해와 밤중으로 말목을 인계하도록 실장을 다블러대던 거센 숨결이, 그와 얹히였던 생활의 매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남의 눈치를 보는 일 없이 곧추 앞만을 내다보며 달려온 그 밀바탕에 깔린 진심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순간 또 한번 가슴이 달아올랐다. 이 공사장에서 죽을수도 있다는 비장한 각오에 앞서 죽기전에 무조건 끝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더 귀중히 새겨왔기에 삶을 이어가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그렇듯 당당하고 위세높은것 아니였을가.

나는 아무말없이 밖을 나왔다. 새벽하늘이 선흥색으로 물들며 서서히 밝아오고있었다. 나는 비를 머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심호흡을 하였다.

인간관계란 결코 오래 사건다고 친밀해지는것이 아니다. 한순간을 지내였어도 정이 깊어져 10년지기처럼 되는 때가 있다. 하물며 물길공사의 운명을 놓고 맺어진 러단장과 검사원-나사이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지닌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험히 통할수 있는 인간관계였다. 하지만 각자가 지닌 사업과 성격, 취미, 나이에 따라 우리의 판통은 늦은감이 있었으나 그래도 제시간에 어김없이 이루어진셈이였다.

나는 새삼스레 가슴뿌듯해짐을 느끼며 오토바이에로 다가갔다. 빨리 서둘러 정비를 해야 했다. 그동안 뛰기만 하고 손 한번 대지 않은것이 마음이 쥘끄렷했다.

정비가 거의 끝나갈무렵, 러단장이 창문을 열고 생산지휘용대공전화기에서 신호가 온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급히 러단장방에 걸어놓았던 생산지휘용대공전화기를 벗겨들었다. ㄸ러단이였다. 네개 러단중 그중 마음이 놓이지 않는 러단이다. 내가 맡아보는 구간에서 암질상태가 나쁜데다 지반고가 높이가 굴입구에 서면 마치 벼랑턱우에 올라선듯 한 아찔한 느낌을 주는 이모저모로 난공사중의 하나로 통해있는데다가 당장 쏟아질 무더기비는 더 큰 위험을 조성하는것이였다. 아이가 어머니와 떨어지지 못하듯이 늘 검사원이 붙어있어야 마음 편해하는 러단이였다. 게다가 러단장자체가 이 거창한 공사는 처음 겪는터여서 이런 일에 선배연하는 나의 얼굴을 쳐다볼 때가 더 많았다.

내가 ㄸ러단과 통화하는 사이 러단장은 잠자코 앉아 대화내용을 듣고만 있었다. 코를 막고 보채는듯 한 멍멍소리를 곁에서 듣는 러단장의 검은 눈썹이 감동을 담고 껌벅거렸다.

《우리 검사원이 정말 팬잖아! 학교때부터

수채루 이름을 날렸더니... 더 감동이 되는건 현장에서 있을수 있는 모든 정황과 그에 맞는 처방이 아주 신통한 현실속의 수채라는거야. 꼭 가야 할 길이면 가게! 난하루쯤 쉬어서 보낼려구 했었는데 잘 안되누만 오토바이 다 손질했나?》

려단장이 비로소 생각난듯이 물었다.

《이제 몇군데 더 조여주면 됩니다.》

《이 물길공사가 끝나면 전시판에 뽐혀갈지 몰라. 정말 공적이 큰 오토바이세!》

칭찬은 오토바이에게 했지만 나의 사업에 대한 열렬한 긍정으로 들려왔다.

×

내가 아침식사를 끝내고 행장을 갖추었을 때 려단장이 마당에 나와 바래주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니 꼭 우주행성을 찾아가는 사람같구만. 자, 다시 만날 땐 관통의 기쁨안구 만나자구!》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도갱판통때 측량을 자주 해주십시오. 자칫하면 었나갈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물길건설자들만이 할수 있는 인사를 나누며 굳게 손을 맞잡았다.

울퉁불퉁한 농촌길로 오토바이는 질주하였다. 오토바이가 들출 때마다 나는 예전과는 달리 달그락대는 그릇 부딪치는 소리를 가려들었다. 동시에 집들안의 작은 보통이가 부단히 울리뛰는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게 뭔가? 내가

오토바이모자를 꺼내쓸 때까지 비여있었었는데...

나는 급정거를 하고 앉은채로 집칸의것을 옮겨왔다. 부피보다 꽤 묵직했다. 왜서인지 속이 후두두했다.

나는 다급히 보통이의 매듭을 풀었다. 뜻밖에도 새까만 오지단지가 나타났다. 나는 풀길없는 수수께끼같은 현실속에서 무언가 빨리 깨닫고싶은 초조감에 휩싸여 조심히 단지뚜껑을 열어제꼈다.

단지에는 새까만 발을 모든 작은 닭이 곱게 누워있었다. 나는 단지속의 내용물을 일별하는 순간 꿈쩍 놀래었다. 이게 뭔가 려단장의 외동딸내이가 힘들게 구해 인편에 보냈다는 그 약닭곰!

나는 오지단지가 오토바이집들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위를 둘러싸준 마가목엿과 빨강다못해 검붉어보이는 오미자를 넣은 비닐봉지들도 가려보았다. 그리고 단지뚜껑이 움직이지 않도록 꽂꽂 돌려감은 너무나 낮은 물건- 목수건도 알아보았다. 나는 다시 되짚어 가고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며 저도 모르게 내가 질주해온 길을 돌아보았다.

《자, 다시 만날 땐 관통의 기쁨안구 만나자구!》

무뚝뚝하면서도 정겹게 나는 려단장의 마지막인사가 새삼스레 쿵- 가슴을 울리었다.

백마-철산사이 물길공사장에서



## 조국애와 관련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명언

《애국은 주체이고 주체는 애국이다.》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것이 바로 조국애이며 주체이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조국을 옹호하는것은 사회적인간의 중요한 속성이다.》

《자기 처자, 자기 혈육에 대한 사랑이자 곧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다.》

《참된 조국애는 곧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이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이야말로 최고의 애국이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말로 대답할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국과 인민앞 서는 애국자의 자세이다.》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

《통일은 애국이고 분열은 매국이다.》

수필

## 설봉산기슭에서

조인영

사람들은 흔히 행복에 잠겨있을 때면 그 행복이 어떻게 지켜졌고 마련되었는지 생각지 못할 때가 많다.

나는 얼마전에 설봉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룡양소에 나갔던적이 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설렁설렁 불어오고 단풍든 잎새들은 골안을 붉게붉게 수놓았다.

깊디깊은 계곡으로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쉬임없이 흐르는데 골개천기슭에서는 여러가지 질병에 효능높은 석왕사약수가 샘솟고있었다.

나는 나라가 어려운 때이건만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행복한 룡양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이곳 룡양생들속에서 시원하고 짜릿한 약수 한고뿌를 떠든채 깊은 감회에 잠기였다.

잊을수 없는 주체36(1947)년 가을 여기 설봉산골안에 있었던 감동깊은 사연이 눈앞에 우뚝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날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이곳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설봉산기슭에 일떠선 휴양소를 찾으시여 그곳 일군들에게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약수들을 잘 관리하고 치료에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으며 이곳 휴양생들을 만나시여 그들의 휴양생활도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그날 수령님께서서는 백두산위인들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휴양생들의 간절한 소원을 헤아려주시였다...

나는 얼마후 그곳 룡양소에 정중히 꾸려진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사적실에도 들리였다.

사적실정면에 정중히 모셔진 그날의 사진앞에 이른 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한없는 기쁨과 행복에 겨워 활짝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은 휴양생들의 모습에는 광복된 새 조선의 주인된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 있었다.

한동안 사진을 우러러보던 나는 《아》 하고 애바른 심성을 드러내였다. 그 뜻깊은 기념사진에 응당 모셨어야 할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었기때문이었다.

어이하여 력사의 한순간이 기록된 그날의 기념사진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함께 오셨던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찾아볼수 없는것일까? 이러한 의문이 나의 마음속에서 안타까움과 서운함을 자아내였다.

얼마후 강사의 해설을 듣고난 나는 가슴 그들먹이 걱정애 잠기게 하는 그날의 사연으로 하여 오래도록 사진을 우러러 서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오셨던 날은 마침 한가이날이라고 했다. 설봉산골안은 조상들이 성묘를 하러 오가는 사람들로 떼를 이루었다. 사람들가운데는 광복후 민주개혁에 양심을 품고 남으로 쫓겨갔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도 섞여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각성어린 눈빛으로 행인들의 일거일동을 살피시면서 감시에 편리한 등성으로 오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행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휴양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게 된 정황은 김정숙동지의 심중에 높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수수한 흰 옥양목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으신 그이의 모습을 행복에 잠긴 휴양생들은 쉽게 찾아볼수 없었다.

그리하여 휴양생들의 행복에 잠긴 웃음이 더 평온하고 자연스럽게 찍혀졌던것이다.

영문을 알리없는 사진사마저도 휴양생들에게 《자, 맘껏 웃읍시다.》라고 익살을 부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사진사에게 어서 샤타를 누르고 재빨리 자신의 곁에 와 앉으라고 하시자 몹시 헤덤비면서 미쳐 자세를 바로잡지 못한채 엉거주춤하니 찍혀진 사진사의 얼굴에 어린 행복에 겨운 환한 웃음.

그 순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과 휴양생들의 행복을 지켜 등성이에 서계신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사진속에 기록될수 없었던것이다.

어머님께서 계시지 않는것으로 하여 더더욱 하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이었다.

나의 눈앞에는 준엄한 항일혁명의 결전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기 위하여 몸소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시였던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어머님께서는 비록 사진속에 계시지 않지만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친위전사로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

밖에 나온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휴양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던 자리를 돌아보고나서 김정숙동지께서 지켜서계시였던 자리로 올라갔다.

반세기도 넘게 멀리 흘러간 력사의 그날에 새겨진 하많은 사연에 젖어들어 나는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었다.

그날을 다시 불러오고싶은 심정이다.

김정숙동지를 그때 휴양생들가운데 모시고 기념사진을 다시 찍을수는 없을가.

아니여라. 천만번 그날을 다시 불러온대도 그의 자리는 오직 친위전사로 서계셨던 바로 이 등성이일것이다!

주변을 붉게 물들였던 단풍잎새들도 김정숙동지의 충성의 마음인양 더더욱 붉게 타고있었다. 그날의 뜻깊은 그 사연은 오늘 수령결사옹위로 가슴불태우는 우리 인민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면서 대를 이어 길이전해질것이다.

## 어머님은 오늘도 수풍언제에 계신다

고남철

그날은  
광복된 조국의 세번째 가을날이었다  
압록강 굽이굽이 멀고먼 길  
수풍땅에 오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저기 단풍잎 드리운  
호안의 넓은 길 곁에 두시고  
언제벽에 드리운 줄사다리 잡으시고  
한자국 또 한자국  
아득한 언제우로 오르시던  
송엄하신 영상이여

태질하는 강바람  
길길이 울부짖는 시퍼런 물살  
잠시 올려보아도 가슴이 얼어드는 길  
어이하여 광복된 조국땅에서  
어머님은 오르셔야 했던가

총을 만들재도 전기  
전야에 생명수를 푸재도 전기  
전기가 있어야  
새 나라도 일떠세우기에

수령님뜻 앞장에서 받들어  
어머님 오르신 그 언제길은  
부강조국을 위한  
어머님의 백두산행군길

위험을 넘으시며 한자국 한자국  
언제벽에 애국의 자국을 새기실 때  
수풍아, 어머님 그 품에 안겨  
너는 전기의 산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더나

산악같은 언제를 한품에 안으시고  
언제의 정점에 오르시며  
어머님은 백두산아래  
수풍언제를 높이 받들어올리시였다

이 땅에 인민의 공화국이 창건되던 그 나날  
력사의 반동들이  
국장에 보습을 넣으려 날뻐할 때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  
내 나라의 국장에 새겨주신 수풍언제여!  
전기폭포 쏟아지는 부강조선 모습이어!

내 국장앞에 설 때마다 뵈옵는다

오늘도 언제에 서계시는 어머님영상  
건국의 첫 기슭에서  
선군조선의 천만년세월 끝까지

김정숙어머님 주시고주시는  
아, 무한대한 빛과 무한대한 열을

## 명언해설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사랑하는데서부터 애국심이 자라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와 신념이 생기게 된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이 명언에는 애국심이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라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사랑하는데서부터 자라나 그것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칠 각오와 신념으로 굳어지게 된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다.

애국심은 타고나는것이 아니며 그 누가 선사하는것도 아니다. 애국심은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 선렬들의 피와 땀이 스민 조국강산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사랑하는 감정으로부터 움트고 자라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마음은 나아가서 자기 수령, 자기 당이 마련해주고 가꾸어준 내 나라, 내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로 좋다는 숭엄한 감정으로 승화되며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와 신념으로 굳어지게 된다.

## 혁명설화

### 국기와 국장을 볼 때마다

주체의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영광의 상징인 람홍색공화국기가 9월의 하늘가에 펄펄 휘날린다. 위대한 태양의 빛바래 우리 공화국의 국장이 더욱 빛난다.

온 세상이 부러움과 환희의 눈길로 바라보는 내 조국의 국기와 국장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깃든 백두산장군들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감회깊이 더듬어보게 된다.

주체37(1948)년 봄 어느날이었다. 한 일군을 만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국기와 국장 제정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의 국기와 국장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 구상과 방침이 잘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공화국국기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운 투사들이 흘린 붉은 피와 당의 두리에 뭉친 우리의 혁명력량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기본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의 기백을 상징하는 표시와 미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오각별을 반드시 넣을데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그러한 별을 국기뿐 아니라 국장에도 그려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국기와 국장도안을 심의하는 날 사람들은 국기와 국장도안을 보며 크나큰 기쁨과 감격을 금치 못해하였다.

처음 만든 국장도안에는 용광로가 그려져있었다.

그러했던 국장에 오늘과 같이 수력발전소가 그려져 사람들에게 열정과 희망,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게 된다는 깊은 사연이 있다.

국기와 국장도안을 마지막으로 심의하게 되는 전 날밤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다음날 심의하게 될 국기와 국장도안을 펴놓으시고 자정이 넘도록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부강한 새 조선건설을 위해 밤과 낮이 따로 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건강이 넘려되시여 잠시라도 쉬실것을 거듭 말씀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 곧 우리가 세울 공화국의 국기와 국장을 결정지어야 하겠는데 국장이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며 도안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수령님의 곁에 앉으시였다. 용광로대신에 전기화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넣는것이 어떤가고 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말씀에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히 말씀드리시였다. 그런데 전기화를 어떤 형식으로 반영할것인가 하는것이 문제였다.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발전소를 그려넣는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시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옹소, 발전소, 우리나라 수풍발전소를 넣는것이 좋겠소라고 하시였다.

이렇게 두분의 백두산장군들의 사색과 심혈속에 공화국의 국기와 국장도안은 훌륭하게 완성되였다.

며칠후 완성된 국기와 국장도안을 받아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도안을 세세히 살펴보시었다. 그러시면서 참 잘되었다고 감개무량한 어조로 거듭거듭 말씀하시었다.

## 평론

오늘도 우리 공화국의 국기와 국장은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한생을 빛내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세상에 빛을 뿌리고있다.

# 태양의 빛을 받아 설레이는 푸른 거목

-장편소설 《푸른 줄기》를 두고-

림창덕

사나운 광풍이 분다. 한창 자라던 한그루의 나무가 허리를 몽청 잘리웠다.

봄이 왔다. 부러진 나무끝에서 새 줄기가 돋고 새 파란 잎사귀들이 해빛에 반짝인다.

세월이 흘러 애 어린 줄기는 역세게 자라 무수한 가지들을 펼친 거목이 되었다.

아, 태양!

태양이 없었다면 부러진 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거목은 위대한 태양의 빛을 받아 푸르러 설레이고 있다.

위대한 태양의 빛을 받아 자라난 거목에 비견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의 신념과 의지의 세계를 장편소설 《푸른 줄기》(최성진작)에서 보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작가는 매 작품에서 자기가 발견한 뜻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새로운 성격을 들고나와야 한다.》**

인간과 생활을 그리는 문학작품창작과정은 다른 아닌 성격형상창조과정이다. 하기에 인간을 그리는 것은 곧 그의 성격을 그리는 것이다.

주인공의 성격을 특색있게 형상하는 문제는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한 소설창작에서 보다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것은 투쟁경로와 생활체험이 여섯비슷한 비전향장기수 매 사람들을 원형으로 소설을 창작해야 하는 사정과 관련된다.

자칫하면 인물의 성격형상에서 도식과 류형을 범할수 있기때문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의 체험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성격에서 주도적인것을 형상하며 다면적인 각도에서 투시하여 그들의 성격과 생활을 립체적으로 묘사하는것은 비전향장기수들을 형상한 소설창작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전향장기수의 성격을 높은 전형화의 수준에서 형상한 장편소설 《푸른 줄기》의 성과를 고찰하려고 한다.

## 1. 뚜렷이 심어진 성격의 핵

비전향장기수들의 성격형상에서 무엇보다 중요

한것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신념과 의지의 정신세계를 문학적으로 잘 보여 주는것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이 30여년, 지어 40여년이라는 지나긴 나날을 철창속에서 보내며 당과 수령에 대한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지켜왔다는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독자들은 비전향장기수들을 형상한 장편소설을 대할 때 주인공이 몇십년동안 옥중투쟁을 하였는가, 차디찬 감방에서 겨울은 어떻게 견디여내고 악착한 고문은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사실과 함께 다른 주인공들과 구별되는 성격적특징이 무엇인가에 더 깊은 관심을 두게 된다.

비전향이라는 말은 혁명적신념과 잇닿아있다. 전향서 한장이면 수십년간의 시련에 찬 감옥생활을 면할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비전향장기수들이었다. 매일과 같이 거둬되는 전향강요와 악착한 고문으로 인한 육체적고통, 끈질긴 유혹으로 인한 심리적고충을 겪으면서도 비전향장기수들은 자기의 신념을 고수하였다.

무엇이 비전향장기수들로 하여금 시시각각으로 생명이 위협당하는 준엄한 수십년동안 불굴의 신념을 간직하게 하였는가.

장편소설 《푸른 줄기》는 이 문제의 비결을 밝힘에 있어서 혁명적수령관을 성격적핵으로 하는 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하여 통일애국투사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의 원천을 형상적화폭으로 보여주었다.

주인공 룡우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이다.

후처로 들어간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난 룡우는 근면하고 마음씨 착한 아버지와 이복형들의 사랑을 받아 배움의 꿈을 안고 서울에 올라온다. 그러나 광복후 미제강점하의 남녘땅에서 그의 푸른 꿈은 어지럽게 짓밟히운다. 신문배달부, 식당심부름군으로 품팔이를 하며 겨우겨우 공부하던 룡우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의 서울해방을 맞이한다. 서울에서의 고달픈 생활체험을 통하여 미제가

판을 치는 땅에서는 근로인민이 소박한 꿈마저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절감한 그는 용약 미제를 무찌르는 정의의 군대인 인민군대에 탄원한다.

인민군대에서의 룡우의 생활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리를 하나하나 터득한 나날이었다. 전후복구건설로 들끓는 제강소에서 창조자로서의 보람을 마홰껏 누려가던 룡우는 꿈결에도 소원이던 대학입학통지서를 받아안는다. 그것도 아버지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게 된것이였다.

영광속에 행복속에 꿈만 같은 대학공부를 하던 룡우는 일생에 잊을수 없는 크나큰 행운을 받아안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 인민 모두가 그처럼 흠모하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몸가까이 만나뵙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은것이였다.

통일애국의 성스러운 투쟁을 벌리다가 원수들에게 체포된후에도 주인공 룡우는 가난한 농사군의 아들인 자기를 나라의 어엿한 일군으로 키워주신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지켜 싸운다.

수령에 대한 충성심에 기초한 신념이 투철하였기에 룡우는 전향과 비전향이라는 사상의 대결, 신념의 대결에서 승리할수 있었다.

《나는 자나깨나 내 운명의 푸른 줄기를 자래워준 해님을 잊지 못하오. 아마 이 룡우는 죽어도 그리움에 타서 죽을 그런 운명을 타고났는가 보오!》

룡우에게 있어서 운명의 푸른 줄기를 자래워준 태양, 그 위대한 태양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은 룡우로 하여금 최악의 순간에 자결이 아니라 투쟁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모진 고문에도 쓰러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담력과 의지를 키워주었다.

감옥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사진을 가슴에 품고 적들과 싸우는 룡우의 형상은 실로 큰 감동을 안겨준다.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녔기에 주인공 룡우는 력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감옥안에서 동지들과 함께 《재감혁명투쟁동지회》라는 투쟁조직을 못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간다.

선군시대 우리 인민의 가장 중요한 사상정신적품모인 열렬한 수령경사옹위정신이 체현된 혁명적신념과 의지의 강자로서의 주인공의 성격을 형상한데 장편소설 《푸른 줄기》의 중요한 성과가 있다.

## 2. 리상화되지 않은 성격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를 형상하는데 있어서 인간적품모를 진실하게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이 세상에 타고난 혁명가는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우리 문학은 인간이 지니고있는 정치성과 인간성을 잘 결합

시켜 형상할것을 요구한다.

주인공의 인간성을 형상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그 어떤 타고난 천성으로 그럴것이 아니라 주체의 혁명적인생관을 터득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 형성되고 공고화된 성품으로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장편소설 《푸른 줄기》에서는 주인공의 인간성을 진실하게 보여준 측면에서도 좋은 경험을 창조하였다.

적들의 모략으로 꾸며진 사형장장면을 놓고 보자.

《빨갱이》의 가족이라고 하여 주인공 룡우의 부모와 형제, 형수, 조카들을 사형장에 끌어낸 적들은 룡우의 심리를 타진한다.

부모형제에 대한 애정이 남달리 뜨거운 룡우는 총이 발사되는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도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제 민족, 제 겨레를 위하는 한조각의 량심도 없는 원수들은 룡우의 이 행동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인하고 가족을 리용한 전향공세를 더 악랄하게 감행한다. 룡우는 자기의 량심을 지키고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죽기를 작정한다. 일체 음식을 단절한 룡우의 생명이 꺼져가던 때 어머니가 해주는 말은 룡우를 정신들게 한다. 아들이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왔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들이 결심했던 길을 끝까지 역세게 걸어가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진정어린 마음을 감수하며 룡우는 자신을 뉘우친다.

겨레의 고통을 두고 나 하나만의 고통이 두려워 목숨을 끊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량심이 있고 더우기는 분열된 겨레의 아픔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며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는 수령님앞에 의리가 있는 행동이라.

이 룡우는 죄를 지었구나! 그래, 죄를 지었어!...

룡우의 정신세계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이 심리 묘사는 혁명적수령관을 인생관으로 체득해가는 통일애국투사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혁명적세계관발전단계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주인공의 성격과 투쟁세계가 진실감을 주지 못했을것이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인간성을 형상함에 있어서 처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안해 허정녀,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주인공 룡우에게 인간사랑의 참된 의미를 새겨준 문화부중대장이었던 허중석의 너동생이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서 단독임무를 맡은 룡우는 큰 실수를 하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을에 들리지 말라는 상급의 명령을 위반하고 마을에 들렀던것이다. 한것은 길가의 산전막에서 전염병에 걸려 숨이 꺼져가는 한 어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중대는 룡우의 뒤를 밟고 쫓아온 적들과 예상치 않은 전투를 하게 되며 사상자도 났다. 그 일이 벌어진후에도 누구도 룡우를 질책하지 않았다. 문화부중대장은 물론 엄격하기로 소문난 소

대장도.

한것은 룡우의 행동에서 인간을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참된 마음을 리해하였기때문이었다. 전우들은 간고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서 병에 걸려 운신못하는 룡우를 담가에 태우고 최고사령부를 찾아간다. 이러한 생활체험은 룡우로 하여금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주체사상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게 하였다.

룡우는 재진격의 길에서 희생된 문화부중대장의 유언대로 전후에 그의 고향마을을 찾아가며 그의 동생 허정녀와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결혼후 룡우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소학교교원인 안해에게 못마땅한 말을 한적도 있다. 그러나 한명의 아이도 뒤떨어지지 않게 키워 우리 나라를 세상에 빛내이는 큰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안해의 말을 들으며 생활에서 리기적이었던 자신을 뉘우친다. 감옥생활과정에서 여러번 반복되는 안해에 대한 주인공의 회상을 통하여 통일애국투사로서의 고상한 인간미를 보게 된다. 안해와 자식에 대한 사상, 그들 앞에 뿔뿔이 살려는 자각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고수하게 한 사상정신적바탕으로 되었다.

소설에 형성된 주인공의 리상화되지 않은 성격은 독자들로 하여금 평시에 고향과 부모형제, 처자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시련의 시기에 자기의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고 싸우게 된다는 생활의 진리를 터득하게 한다.

### 3. 거목의 푸른 줄기들

장편소설 《푸른 줄기》에서는 주인공과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비전향장기수들의 투쟁세계를 잘 형상하였다.

소설에서는 우선 주인공과 운명적으로 밀착된 인물관계를 잘 설정하고 해결하였다.

룡우와 비전향장기수 안준민, 동생 안영희의 관계가 그러하다.

안준민은 유족한 가정환경을 박차고 미제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에 나섰다. 광복후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옹호하여 남반부에서 정력적으로 활동하던 그는 적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생활도 한다.

인민군대의 서울해방과 함께 형무소에서 나온 준민은 주저없이 인민군대에 탄원하여 정치일군으로 싸우던 중 원수들에게 체포된다.

감옥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룡우와 준민의 관계를 보여줌에 있어서 작가는 서로 혁명적영향을 주고받으며 통일애국의지를 발휘해나가는 인물관계로 설정하고 형상하였다.

그것은 처음 준민을 만났을 때와 광주교도소에 이감되어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형상을 놓고 말할 수 있다.

적들의 모진 고문의 후파로 뇌출혈을 일으킨 준

민은 언어장애로 하여 말도 번번히 하지 못한다. 그럴때 주인공은 준민의 병구완을 위해 최대한의 정성을 기울이며 특히 그에게 정신적힘을 안겨준다. 그것은 준민의 마음속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심어주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그에게 보여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숭고한 위인적품모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 룡우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조국해방전쟁전에는 준민이가 룡우의 선배였지만 수령님의 품속에서 어엿한 혁명가로 성장한 주인공 룡우가 철창속에서는 준민의 선생이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 갈라진 겨레의 고통을 두고 가슴아파하시는 숭고한 민족애에 대하여 들으면서 주민은 장군님의 혁명전사로 굴함없이 싸워갈 결의를 굳게 다진다. 그러한 준민이었기에 림종의 시각에 그는 룡우에게 장군님의 초상화를 보습게 해달라고 당부하며 위대한 태양의 해빛같은 미소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는것이다.

소설에서는 안준민의 동생 안영희와 주인공과의 관계도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신념을 부각시키는 방향에서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안영희는 룡우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길안내를 해준 녀성이다. 생소한 서울길의 안내자가 되었던 안영희는 수십년세월이 흐른 뒤 룡우를 다시 만난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오빠의 충성심, 강의한 투쟁정신에 대하여 룡우에게서 전해들은 영희는 후날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되는 룡우에게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넘겨받는다.

위대한 장군님만 믿고 살면 반드시 통일의 날이 온다는 신념을 새겨주며 초상화를 안겨주는 룡우, 이 모습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통일애국투쟁의 길로 이끌어주는 비전향장기수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뜨겁게 느끼게 된다.

소설에서는 인간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또한 주인공의 영향밑에 성장하여가는 부차적인물들의 관계도 잘 설정하고있다.

룡우와 준민, 영희와의 관계가 거목에서 뻗어나간 든든한 큰 줄기라고 한다면 그밖의 인물들과의 관계는 이제 새로 아지를 쳐나가는 새 줄기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주인공과 장명일, 리민철과의 관계가 그러하다. 전재교아로서 남쪽까지 흘러온 불행한 인간인 장명일, 그의 소원은 어서 통일이 되어 헤어진 형님, 누나와 만나는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말을 했다고 하여 감옥에 끌려와 옥고를 치르는 과정에 명일은 룡우가 품고있는 신념의 세계에 감동되어 룡우를 따른다.

세월이 흘러 룡우가 출옥한후에도 명일은 그의 혁명적영향을 받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

나간다.

민철이와 주인공과의 관계도 잘 설정되었다. 고아로서 《불량행위》를 하다가 어린 나이에 감옥까지 본 그를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룡우이다.

룡우는 반공선전에 물젖어 북조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사는 민철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해 알려준다.

점차 각성된 민철은 인생전환을 한다. 그는 직업을 잡고 대학생들과 함께 《이북바로알기회》도 조직운영한다. 거목에서 또 하나의 푸른 줄기가 뻗어 나가는것이다.

무수한 새 아지에 바쳐진 거목의 열정, 이것은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의 헌신적이고 선도적인 성격이라고 말할수 있다.

## 4. 갈등, 내면세계...

통일애국투쟁은 역시 통일과 분열, 애국과 배국, 비전향과 전향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사상과의 대결전이라고 할수 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을 형성한 소설들에 설정된 갈등은 첨예한 사상적대립에 기초한 적대적갈등이다.

장편소설 《푸른 줄기》에서는 주인공 룡우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애국세력과 차문식을 축으로 하는 반통일세력간의 첨예한 사상적대립을 작품전반에서 보여주었다.

룡우와 차문식은 오랜 연고관계가 있는 적대적관계이다. 룡우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인민군대에서, 전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주체사상을 신념화한 인간이라면 차문식은 광복으로 하여 38선 북쪽지역의 땅을 빼앗기고 울화병에 미쳐죽은 제 아버지의 복수를 한다고 일찍부터 반공일선에서 날뛰자였다.

소설에서는 참된 혁명가와 극악한 반공분자와의 대립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인간에 대한 참다운 사랑과 극도의 증오에 기초한 사상적대립으로 되게 하였다.

룡우와 안해, 차문식과 처의 관계를 놓고 보자.

룡우가 기나긴 수감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자기의 안해를 잊지 못해하고 그앞에 몇몇이 설 그날을 위해 싸웠다면 반대로 차문식은 가정적으로도 극히 비인간적인 팽혈한이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전혀 없는 이자는 식물적인 인간이었다. 나이 마흔이 넘도록 가정도 이루지 않고 고독하게 살면서 정의로운 인간들을 괴롭혀오던 차문식은 돈많은 과부와 가정을 이룬다. 그러나 그 녀성도 뱀처럼 차거운 차문식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도 차문식은 아쉬운 감정이 하나도 없다. 그만큼 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사랑의 감정이 티끌만큼도 없었던것이다.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주체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로서

의 룡우와 친미와 반공을 필생의 목표로 삼고 동분서주하는 반공광신자인 차문식의 대결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철의 진리성을 형상적으로 밝혔다.

부모형제, 처자에 대한 참된 사랑을 지닌 신념의 강자 룡우는 조국의 품에 안겨 그림던 안해와 딸과 감격적으로 몇몇하게 만났다. 그러나 차문식은 안해도 딸도 친척도 잃어버린 외로리가 되어 운명의 비탈길에 가련하게 쓰러지고만다.

작품전반에 구현된 갈등을 통하여 독자들은 주체의 인생관을 지닌 인간은 언제나 승리하며 정의에 역행하는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생활의 진리를 깊이 새기게 된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성격을 뚜렷이 보여주는 내면세계도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인물의 내면세계를 진실하게 보여주는것은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해당 인물이 안고있는 지향은 그의 심리와 성격을 통해서 보다 뚜렷이 부각된다.

수십년세월을 철창속에서 홀리보낸 비전향장기수들의 경우에 그 내면심리세계는 남다르다.련이어 가해지는악형, 독감방에서의 고독, 그리움 등 비전향장기수들이 체험한 생활은 류다른 감정세계를 낳게 하였다.

장편소설 《푸른 줄기》에서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특징적인 생활세부들과의 결합속에서 펼쳐보였다.

인물의 사상의식수준, 감정정서상태, 료리도덕적면모, 성미와 기질 등이 생활과의 밀착속에 깊이있게 주어지는것은 내면세계묘사의 중요특징을 이룬다. 소설에서는 회상의 수법을 적극 활용하여 어머니와 안해에 대한 추억을 교차반복시키면서 통일애국에 불타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통일된 강토에서 한피줄을 나눈 겨레가 화목하게 살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보여주었다면 안해에 대한 추억은 주인공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는 공간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 온 감격을 안해에게 터놓던 때의 추억, 통일의 길에 나서면서 안해와 다진 결심 등은 소설에서 여러번 교차되면서 주인공의 신념과 의지의 성격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성과들로 하여 장편소설 《푸른 줄기》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지닌 신념과 의지의 세계를 개성적으로 보여줄수 있었다.

소설이 거둔 성과는 작가들이 주인공의 체험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주인공이 지닌 남다른 성격을 발견하고 높은 수준에서 전형화할 때 시대가 요구하는 개성적인 작품을 훌륭히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조국과 민족을 떠나서 인간의 참된 삶이란 있을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떠난 개인의 운명이란 있을수 없다.》

김정일

실화문학

## 신념의 노래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애국렬사릉을 찾을 때면 나는 강동근동지의 묘비 앞에서 오래동안 걸음을 떼지 못한다. 묘비에 새겨진 돌사진에서 영생의 언덕우에 높이 서있는 강동지의 모습을 지켜보는 나의 생각은 깊어만 진다.

생이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억센것인가!

### 신념은 죽음보다 강하다

주체57(1968)년 대구감옥에서 어느 운동시간에 강동근동지를 처음 만났던 일은 몇십년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다.

그때 푸른색 수인복을 입은 강동근동지는 오른손을 호주머니에 넣고있었다.

나는 간수의 눈을 피해 강동지에게 다가가서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동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소개한후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강동지는 왼손을 내밀고있어 나는 오른손으로 그의 왼손등을 잡으려 했다. 허나 다음순간에 나는 황급하게 왼손을 내밀고 두손으로 그의 왼손을 잡았다.

뒤늦게야 나는 그가 오른팔이 없음을 알았던것이다.

나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강동지가 한팔을 잃게 된 사연을 알게 되었다.

주체40(1951)년초였다. 사단후방과장과 함께 지리산의 산밭을 타고 걸음을 다우치던 강동근동지는 (당시 본부대는 떠나고 공급소대장을 하던 그는 후방물자와 소달구지들을 소개처리하느라 늦게 산밭을 타고 후퇴하던중이었다.) 벽술령에서 적들과 불의에 조우하게 되었다.

놈들을 먼저 발견한 그가 기습적인 런발사격으로 앞서 올라오는 세놈을 쏘어눅혔다.

다음순간 놈들의 집중적인 대응사격으로 그의 오른팔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것을 계기로 그는 오른팔을 영영 잃게 되었던 것이다.

력량상 우세한 놈들은 그들을 포위하려고 시도했다.

후방과장은 그를 부축하여 벽술령중턱 바위밑에 숨겨놓고는 적들을 달고 뛰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후방과장은 놈들과의 총격전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피를 너무 흘린탓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강동지는 놈들의 수색에 걸려 체포되게 되었던것이다.

그후 나는 강동지와 인사할 때는 왼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명심하였지만 매년 그것을 잊고 단 한번도 왼손을 내밀어본 일이 없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전이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부르는 《신념의 노래》 예술소품공연 텔레비존촬영을 하였는데 그날 강동지와 인사할 때도 나는 오른손을 내밀었다.

뒤미처 왼손을 내민 나의 두손을 맞잡고 그는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다.

이렇게 나는 감옥에서 강동지를 처음 만난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번도 왼손을 먼저 내밀고 그의 왼손을 잡아주지 못했다.

나의 이런 행동에 대해 그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물어보지 않아서 나는 모른다.

그후 강동근동지는 우리결을 떠나갔다.

나는 왼손으로 그의 왼손을 뜨겁게 잡아줄 기회가 영원히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후회가 막심해진다.

나는 신미리 애국렬사릉 강동지의 묘비앞에 서서 그의 온화한 얼굴표정인 돌사진을 보다가 왼손으로



그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생전에 실천 못했던 일을 때늦게나마 사죄하려는 생각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강동지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리라 믿는다.

강동지는 팔 하나 없다는 사실때문에 다른 동지들보다 더 고통을 당하며 옥중투쟁을 하여야 했다.

놈들은 비열하게도 한팔이 없는 몸이라는 약점을 리용하여 강동지에게 전향을 악착하게 강요하였다. 놈들은 그를 독감방에 수용시켜 그로 하여금 동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밥그릇을 씻고 걸레를 빠는 등 수감생활을 혼자서 한손으로 하여 손가락끝이 모지라질 정도였으니 그의 불편이 오죽했겠는가.

그는 이 나날 모진 고통속에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놈들에 대한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놈들이 강동지에게 가한 전향공작은 매우 악착했다.

《당신은 한팔이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신념이요 지조요 하며 자꾸 뻔대지 말고 전향서를 쓰란 말이야. 그러면 바깥세상에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는가. 전향만 하면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겠다.》고 놈들이 말하면 그는 이렇게 반발하였다.

《허튼수작 말아. 인두접을 쓴 네놈들이 행복이 뭔지 알기나 하는가. 나의 행복은 **김일성** 장군님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이다. 조국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바치는것이다.》

《뭐가 어째, 이 약질빨갱이새끼야. 네가 〈비행기〉를 타고도 그렇게 뻔대는가 어디 보자.》 놈들은 그에게 비행기고문을 들이댔다.

꺼꾸로 매달아놓고 빙빙 돌려가며 치더니 콩크리트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각목으로 두들겨팼다.

살점이 각목에 묻어나고 피가 터져 취조실바닥에 흘렀다.

《한쪽팔이 마저 없어져야 전향을 하겠니? 이 자식아, 어서 대답을 해.》

놈들을 무섭게 노려보던 그는 웨쳤다.

《네놈들이 나를 육체적 불구로 만들어놓았지만 정신의 불구자, 량심의 불구자로는 절대로 만들지 못한다.

두팔이 다 없다 해도 나의 대답은 오직 하나다.

**김일성** 장군님의 전사에게 전향이란 있을수 없다. 신념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진리를 너희들은 영원히 깨닫지 못할것이다.》

결국 놈들은 그를 어찌지 못하고 끌어다 감방안에 던져넣었다. 허나 그의 신념만은 꺾을수 없었다.

## 영원한 인민군전사

강동지의 고향은 남조선 경상남도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학교문전에도 못가고 빠가 굴기전에 풀단과 나무단을 지었다.

21살때 왜놈들의 징병에 끌려가는것을 반대하여 만주로 갔다.

만주에서 뜨내기생활을 하면서 **김일성**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나라의 광복을 위해 강도 일제를 쳐부신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될 때마다 그는 민족의 태양이시고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 장군님의 모습을 한번만이라도 뵈옵는것을 일생의 소원으로 간직하였다.

봉춘(오늘의 심양시)에서 조국의 광복을 맞은 그는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패잔병숙청사업에 참가하였다.

그러던중 중국 동북혁명을 도와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고 싸우고있던 조선인부대에 편입하게 되었다.

**김일성** 장군님의 전사된 공지와 영예를 가슴에 안고 그는 수령님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당군대를 물리치며 용감히 싸웠다.

그후에 조국으로 돌아온 그는 인민군대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1950년 3월 그렇게도 뵈우고싶던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 만나뵈게 된 그때의 감격을 강동지는 일생토록 가슴에 안고살았다.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것은 평범한 날이었다.

당시 조선인민군 어느 한 보병련대 대대직속공급소 경리분대장으로 복무하던 그가 역전창고에서 쌀을 받아 마차에 싣고와서 대대식당옆에 있는 창고에 부리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 간부들과 함께 식당으로 오시는것이였다.

식당 직일관이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를 올리였다.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서는 마차에서 쌀을 부리고있던 그를 보시고 가까이에서 부르시여 량식창고장인가고 물으시였다.

그는 대대공급소대 경리분대장이라고 씩씩하게 대답을 드리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띠우시고 나이는 몇살이고 고향은 어디인가, 부모님들은 다 계시는가, 언제 입대하였는가를 친어버이심정으로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그의 대답을 다 듣고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중국에서 여러해동안 국민당놈들하고 싸웠는데 집에 가고싶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제 고향은 남조선입니다.

미제와 리승만도당이 동지를 틀고있습니다.

저는 장군님의 전사로서 조국을 통일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기운차게 대답을 올리자 수령님께서 그 결심에는 나도 동의한다, 동무를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그의 두손을 모아 뜨겁게 잡아주시고 잔등을 두드리주시면서 일을 잘하라고 고무해주시었다.

꿈결에도 그리던 아버지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뵈고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그는 감격과 환희로 끝없이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나에게 이런 영광의 순간이 올줄이야 생각이나 했는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꿈 아닌 현실이었다.

어떤 일이든 간절하게 바라던바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법이다.

행복의 충격은 가슴 뜨거워지는 심회를 불러왔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일생동안 잊지 않고 살아왔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미제가 짓밟은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해 용약 펼쳐나섰다. 적을 무찌르면서 남해바다가 바라보이는 고향인 하동을 해방하는 전투에도 참가하였다.

락동강 전투에 참가하였던 그는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과정에 전투에서 부상당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채 적에게 체포되어 37년동안 감옥생활을 하였다.

6. 15북남공동선언에 의해 비전향장기수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오늘 그가 복무했던 인민군부대 연혁소개설 영웅게시판에는 공화국영웅이며 비전향장기수인 그의 사진이 있다.

그 부대 군인들은 신념과 의지의 장자이며 《조국통일상》 수상자인 강동근동지를 부대의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그러니 그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제대증을 받지 않은 88세의 영원한 인민군전사였다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렇다. 강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전사로 일생을 살아온 영원한 인민군전사다.

##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부른 《신념의 노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인간은 생을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생의 마지막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오래동안의 감옥생활로 하여 여러가지 병을 앓고있다. 어떤 동지들은 지팡이 없이는 걸지도 못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서 나이와 건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면 쓰러지는 순간까지 모든것을 다 바쳐갈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다.

상봉모임과 예술소품공연에 참가하는것은 우리들에게서 커다란 기쁨이다.

우리들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사를 수첩에 적어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니며 자주 부른다.

집에 있을 때면 아들, 딸, 손자, 손녀들과 함께 노래편습을 하기도 한다.

이제 나이 70, 80에 무슨 노래인가고 할수도 있지만 30~40년 철창속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우리로서는 이제라도 심장으로 부르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르고싶은 열정으로 뚫어넘치고있다.

70대, 80대인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잘 부르겠는가.

그러나 감옥에서 얼마나 부르고싶었던 노래인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긴 우리들은 처음으로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2월명절을 맞이하면서 비전향장기수들의 《신념의 노래》 예술소품공연을 준비하였다.

나는 지금도 그때 일을 잊지 못한다.

백발을 날리는 비전향장기수들중에는 80대의 고령에 지팡이를 짚고있는 동지도 있었고 90대의 몸으로 일어서지는 못해도 삼륜차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합창으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던 동지도 있었다.

30년, 40년, 지어 45년 기나긴 나날 놈들의 악형에 온몸이 찢어지고 죽음의 징벌방에 던져져 아픔과 굶주림속에 시들어 더이상 일어설 힘이 없을 때야, 우리가 마음속으로 부르던 노래,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다시 생기고 교수대에서도 동지들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를 때면 먼저 간 동지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들이 다 부르지 못한 노래를 살아서 돌아온 우리들은 목청껏 불렀다.

우리 나라에서는 유치원아이들로부터 늙은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다 부르고 있다.

아니, 어찌 우리 인민들뿐이었으랴.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진보적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정을 안고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불러 우리 인민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적들의 야수적악형과 고문을 견디여내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온 비전향장기수만이 느낄수 있는 그 정서와 감격을 누가 다 알랴.

2월의 명절과 태양절에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의 감회는 참으로 남다른것이였다.

그때 공연소개를 맡았던 나는 무대옆에서 동지들이 노래부르는 모습을 보았는데 평시에는 하늘이 무너진다하여도 얼굴표정 하나 변하지 않던 강동지의 눈에 어리었던 물기가 방울방울 떨어졌다.

예술소품공연이 끝났을 때 관중석에서는 격려의 박수가 오래동안 계속되였다.

조명이 켜지고 관중석을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있는것이 아닌가.

우리 비전향장기수와 관중이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린 예술소품공연이였다.

후일에 그 예술소품공연을 관람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우리 인민모두가 그러하지만 특히 비전향장기수들처럼 절절한 감정으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를수 있는 사람은 없을것이라고 말하였다는것을 전해들었다.

올해 2월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예술소품공연준비에 열을 올리고였다.

백발을 날리며 연습에 열성인 우리들을 그 누가 로인이라 부르겠는가.

마음만이 아닌 목소리도 젊음으로 넘쳐있었다.

2월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려는 열정이 우리모두를 젊게 만들고있었다.

이때 강동지도 비록 88세의 고령의 몸이지만 예술소품공연연습에 열성적으로 참가했다.

그때 강동지는 37년동안의 기나긴 옥중생활로 얻은 여러가지 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다 년로하여 침대에 누워있어야 할 몸이였다.

동지들은 그를 만류하였지만 2월의 명절행사에 참가하려는 그의 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그때 강동지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있었을것이다.

합창대에 서서 연습한다는것은 강동지에게 있어서 힘이 들었을것이다.

그러나 충성의 노래를 부르다 쓰러질지언정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을 억제할수 없어 무대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강동지는 우리모두 함께 노래부르는것을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였다.

그런데 그의 몸은 놈들의 악형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해졌다.

그렇지만 충성의 노래를 부르는 그의 얼굴은 행복에 넘쳐 있었다.

무대에서 내려올 때 내가 그의 몸을 부축해주면 조용한 목소리로 《고맙소》라고 하였다.

그의 건강은 마지막격약에 이르고있다는것을 우리는 미처 몰랐다.

주위동지들에게 자신의 불편함을 절대로 나타내지 않으려 했던것이다.

그는 병환이 악화되어 텔레비존촬영을 하루 앞두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그만 우리결을 떠나갔다.

텔레비존에서 2월 16일과 17일에 방영된 비전향장기수들의 예술소품공연과 그리고 텔레비존무대에서 공연이 끝난후 무대우에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모두함께 찍은 사진에는 강동근동지가 없다.

기나긴 50년동안 적후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돌아온 강동근동지가 하루만 더 살아도 텔레비존화면과 사진에 그 모습을 남길수 있었을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신념의 노래를 부르다 쓰러졌다.

그는 말없이 행동으로 당에 충실했던 동지였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강동지의 모습이 충성의 한모습으로 새겨졌다.

그가 우리결을 떠난 다음 우리들은 천리마 대보협동농장, 고창협동농장 그리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상봉모임과 예술소품공연을 하였다.

강동지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부르던 그의 목소리를 합쳐 우리들은 심장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렇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오늘도 래일도 그리고 심장이 멎는 순간까지 신념의 노래, 충성의 노래를 부를것이다.

## 가사

# 선군의 덕이라오

## 하복철

창가마다 넘쳐나는 밝은 웃음 뉘 덕인가  
그늘없는 아이들의 노래소리 뉘 덕인가

모진 풍파 찬눈비를 한몸으로 막으시며  
장군님 꽃피주신 선군의 덕이라오

어딜 가나 젊어지는 넓은 대지 뉘 덕인가  
자랑안고 솟아나는 공장들은 뉘 덕인가  
강성대국 넓은 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장군님 열어주신 선군의 덕이라오

붉은 기발 날려가는 사회주의 뉘 덕인가  
온 세상에 떨쳐가는 그 존엄은 뉘 덕인가  
천만대적 밀려와도 끄떡없이 쳐갈기며  
장군님 지켜주신 선군의 덕이라오

## 수필

# 붉은단풍

비전향장기수 김용수

묘향산답려행을 온지 둘째날에 우리 일행은 상원동 계곡을 따라 울울창창한 숲속 등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계곡에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졸졸 소리내며 흐르다가 합수되어 크고작은 폭포로 쏟아져내리면서 흘러내리었다. 숲과 계곡에서 못새들의 노래소리는 우리의 기분을 한층 더 들뜨게 하였다.

파시 선경이라 할만치 아름다운 경치에 취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즐겁게 웃으며 승벽내기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기세 좋게 등산길을 재촉한다.

상원동 골짜기를 들어서서 얼마쯤 올라가니 울창한 수림사이에 엄청나게 큰 너럭바위가 막아나섰다. 수정같이 맑은 물이 류달리 회고 정갈스러운 넓은 바위돌을 씻으며 흘러내리다가 폭포수로 절벽에 곧 두박질치면서 뽀얀 물보라를 일구었다. 폭포는 칠색무지개를 만들어 신비한 황홀경을 펼치고있었다.

내리꽂히는 물줄기와 지축을 울리는 웅장한 울림 소리가 말그대로 장관이어서 정신없이 바라보노라니 선경이 바로 예가 아닌가 싶어진다.

한참만에야 황홀경에서 깨어나 우를 올려다보니 아담한 암자가 폭포가 내리는 물가에 서있다.

바로 그 상원암 옆 우거진 잡관목들사이에 단풍나무가 긴 팔을 절벽아래로 내밀고 바람결에 흔들한들 춤을 추었다. 단풍잎이 너무나 아름다와 한동안 바라보고있으려니 몇년전 남조선에 있을 때 지리산에서 본 단풍생각이 문득 되살아났다.

그해 가을 우리 비전향장기수들 십여명이 《량심수후원회》의 초청을 받고 지리산을 찾아가본 일이 있었다.

지리산유격대출신인 정순덕동지와 함께 답사려행을 하게 되었다.

이곳 지리산자락에서 나서자라 대대로 화전을 일구고 살아온 정순덕동지는 지리산태생인 총각과 결혼하였다. 그들이 조그마한 초막을 짓고 새살림의 터전을 마련한 곳도 바로 지리산이다.

비록 보잘것없는 초막에서 부대를 일구고 살았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오손도손 정답게 살아가

는 소박한 생활은 그대로 기쁨이었고 더없는 행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도 오래 가지 못했다. 광복된 남조선은 또다시 일제를 대신하여 기여든 미제의 군화발에 짓밟히게 되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앞잡이 리승만매국역도들의 억압과 수탈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료원의 불길처럼 세차게 타번지고있었다.

원썬놈들의 수탈과 억압을 반대하여 들고일어난 인민들은 이곳 지리산의 골짜기마다에서 항쟁의 불길을 추켜들었다.

이때 정순덕동지의 남편도 무기를 잡고 지리산유격대가 되었고 정순덕 역시 남편을 따라 입산한후 십여년간이라는 긴긴 세월을 이곳 지리산을 근거지로 하고 적들과의 피어린 격전에 격전을 계속해왔다.

불행하게도 적들의 매복에 걸려 다리에 총상을 입고 체포되어 한쪽다리를 잃고 불편한 몸으로 20여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석방되었다.

의지가 지할 곳 없는 몸으로 남녘땅에서 정치적인 압과 빈궁을 곳곳이 이겨내며 굴함없이 싸워온 정순덕동지이다.

수십여년만에 그리운 고향산천인 지리산을 찾게 된 그는 깊은 감회속에 견잡을수 없는 흥분에 싸여있었다.

지평이에 의지하여 불편한 몸이면서도 마음은 조급해져 이리도 가고 저리도 다니면서 무엇인가 찾길라도 하듯이 허둥대는 그를 나는 놀라운 눈으로 지켜보고있었다.

때는 단풍계절이어서 긴 룡선과 절벽들에는 단풍잎들이 불꽃처럼 붉게 타번지고있었다.

단풍나무들을 바라보던 그는 나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선생님! 지리산의 단풍이 왜 저렇게 붉은지 아십니까?》

《아니, 단풍이 붉은거야 단풍의 속성이 아닙니까?》 나는 생각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나는 그렇게만 생각지 않습니다.》 고 했다.

홍분된 그의 눈빛은 불꽃이 튀기는듯 했다.

깊은 생각에 잠겨 말없이 먼 허공을 한참 응시하던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선생님! 지리산의 단풍잎이 저렇게 붉게 물든 것은 단풍의 속성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정순덕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지리산의 수많은 골짜기마다가 모두 이곳 지리산유격대원들의 성새였으며 적 <토벌> 대들과 혈전을 벌린 격전장이 었습니다.

개미떼처럼 새까맣게 기여올라오는 적들을 물리치면 또 기여올라오고... 적들에게 마지막총탄을 다 쏘버린후에는 육박전을 했고 수류탄을 들고 적진에 뛰어들어 적들을 무리로 쓸어넘기면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 최후결전장이었지요!

...그때 바로 산과 골짜기마다에는 적아간의 시체가 그야말로 <산혈해> 었습니다.

하여 <피내리산>, <피내리골짜기> 라고 불리웠던것입니다.

유격대원들이 흘린 피가 지심 깊숙이 스며여있다가 봄이면 봄마다 붉디붉은 진달래로 곱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저렇게 붉은 단풍으로 온 산천을 불태우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장군 만세!> 를 소리높이 부르며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선렬들의 넋이 저렇게 붉디붉은 단풍으로 산천을 물들이고있다고 말입니다.》

근엄한 눈길로 사위를 둘러보던 정순덕은 지팽이를 잡은채 미끄러지듯 땅에 주저앉았다.

눈물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두손으로 땅바닥을 후벼 파보던 그는 오열을 터뜨리는것이였다.

《동지들! 용서해주세요.

수십년세월이 흐른 지금에야 찾아온 저를 용서해주세요. 동무들이 안타깝게 그리워요.》...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하다.

지금 묘향산의 상원암폭포앞에서 붉은 단풍나무

의 아름다움에 취했던 나는 지리산계곡을 붉게 물들이던 그 단풍을 회상해본다.

단풍은 모두 똑같이 아름답지만 상원암의 단풍과 달리 지리산의 그 붉은 단풍의 피맺힌 사연으로 하여 너무나도 가슴아프다.

지금도 그때 정순덕동지가 지리산에서 하던 말이 내귀에 쟁쟁히 울리는듯 하다.

나는 정순덕동지가 우리와 함께 공화국북반부로 송환되지 못한것이 안타깝고 가슴아프다.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던 날 저녁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장거리전화를 걸어서 6.15북남공동선언을 들었느냐고, 축하한다고 꿈만 같다고 소년처럼 기뻐하던 정순덕동지의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전해왔다.

그후에도 《장기수송환송대회》 때 만나자고 간절히 말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 63명이 송환되는 날 정순덕동지는 밀차에 몸을 싣고 나와서 송환되는 동지들과 손을 하나하나 뜨겁게 잡으며 정담을 나누었다.

그때 정순덕동지는 끝까지 놈들과 싸워서 기여코 위대한신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안기는것이 소원이 라고 몇번이나 되풀이했다.

지난 4월, 남조선에 있던 정순덕동지가 병마에 고생하던중 제대로 치료를 받아보지 못한채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났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리 서로 만나면 해야 할 말도 많고 나누어야 할 정도 깊건만 비명중에 그렇게도 먼저 갔으니...

지금도 남조선에는 수많은 비전향장기수들이 있다.

허나 하루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들처럼 그들도 공화국의 품에 안기여 행복한 생활을 누려갈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아니 온 남녘의 동포들이 그이의 품에 안길 조국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 내 조국의 《선군 8 경》

원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사람도 사회도 자연도 선군의 모습으로 변모되어가는 내 나라, 내 조국에 참으로 희한한 《선군8경》 이 솟아올랐다.

선군시대의 황홀한 절경으로 펼쳐진 《선군8경》 은 선군의 기치높이 강성부흥하는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자랑이다.

① 백두산의 해돋이 (백두일출)

② 다박술초소의 설경 (송초설경)

- ③ 철령의 진달래 (철령철죽)
- ④ 장자강의 불야경 (장자야경)
- ⑤ 올림폭포의 메아리 (올림폭향)

- ⑥ 한드레벌의 지평선 (표야지평)
- ⑦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홍단저해)
- ⑧ 범안리의 선경 (범안선경)

## 아, 동지여

비전향장기수 손성모

내 지금  
애국렬사릉 그대 돌사진앞에서  
생전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그대 이름 불러보노라  
부름수록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이 가슴 젖어드는 동지여

동지를 추억할 때면  
그 시절 그립더라  
서해절경 변산반도  
해석강의 해초  
적벽강의 천연바둑돌  
짚물 삼키며 파도따라 뛰놀던 어린 시절

백사장에 조그만 발자국  
또렷이 새기며  
봄바람에 싱그러운 솔잎향기  
수평선 저 멀리 붉게 타던 저녁노을  
고향의 향취에 젖어 바라보던  
그 시절이 그립더라

비내리는 참대숲에서  
전설의 영웅  
**김일성**장군님 따라  
나라찾는 싸움길에 동지가 되자  
우리 서로 다지던 맹약  
아마도 우리 삶의 시작은

그때부터이리

우리, 조국이 부르는  
준엄한 전선길  
제일 먼저 달렸고  
민족이 부르는 통일의 길  
함께 걸었지  
감옥에서 다시  
천만뜻밖에 만난 동지  
조국위한 한마음 변치 말자고  
말없이 힘을 주던 잊지 못할 그 동지여

우리 인생의 시작도 끝도  
그 위대한 품에 맡겼기에  
운명도 미래도  
그토록 뜨겁고 열렬한  
사랑의 동지가 되어  
승리자로 장군님 품에  
안기지 않았던가

동지여  
영생의 언덕에 서있는  
사랑하는 나의 동지여  
그대 못다한 충성  
나와 그대의 아들딸이 이어가리니  
장군님 받들어 혁명의 한길  
변함없이 걷고 걸으리라

## 가사

## 군대식이 우리는 좋아

오재신

농사일 도우러온 군대동무들  
앞서가며 땀흘리는 모습을 보며  
번개같은 그 숨씨를 물어봤더니  
아, 군대식이래

군대식이 우린 좋아 군대식이 제일 좋아

마을앞 양어장도 밤새 꾸렸지  
유치원 놀이장도 넓혀주었지

감쪽같은 그 숨씨를 물어봤더니  
아, 군대식이라  
군대식이 우린 좋아 군대식이 제일 좋아

훈련의 산발에선 일당백용사

수필

창조의 일터에선 만능의 병사  
인민들을 위한 일엔 목숨도 바칠  
아, 장군님 군대  
군대식이 우린 좋아 군대식이 제일 좋아

## 광명에 대한 생각

비전향장기수 최대국

광명이란 말을 두고 나는 먼저 지옥과 락원이란 말을 생각하게 된다.

지금도 나는 포근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누워있다가도 때때로 나의 수인번호를 부르는 간수들의 째지는듯 한 고함소리에 소스라쳐 놀라 일어난다. 온몸은 땀으로 흥건히 젖고 또 내가 꿈을 꾸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내가 누웠던 침대며 이불을 하염없이 끌어보곤 한다.

그러다가 머리를 들면 하얀 벽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이 인자하신 영상을 가슴뜨겁게 우러르곤 한다.

광명! 광명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흔히 광명이라면 밝은 빛이라고 한다.

하여 빛이 밝다 어둡다 하는것은 두눈을 잃은 사람은 느낄수 없는것이다.

비전향장기수로 35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두눈까지 점차 실명되어가던 나에게서 그 어떤 원썬들도 광명만은 빼앗을수 없었다.

10년 20년도 아니고 35년간이나 0.75평밖에 안되는 감방에서 생활해온 나는 무슨 일인들 안겪었으랴.

감옥중에서 특별사 사동은 여름은 찜통같이 더워서 온몸에 땀띠가 나서 그 고통에 짧은 여름밤마저 잠들수 없었다. 또 겨울에는 젖은 수건이 잠시나마 옆에 있으면 뽕뽕 어는 추위에 그 긴 겨울밤을 손과 발 그리고 귀를 얼구며 발뒤축은 얼어터져 그 째새로 내배군 하는 피가 송골송골 얼음알맹이로 굳어지곤 했다. 오죽했으면 발가락이 모두 얼어 몽당발이 되고 남은것이 엄지발가락 하나뿐이겠는가.

먹는것이라야 밥 한덩이, 그것도 짱보리밥에 어찌다 보이는것이 쥐며느리처럼 불어난 콩알 한알인데 그것을 보약처럼 오래동안 씹고 또 씹곤 하였겠

는가.

놈들은 전향을 하라고, 전향만 하면 집도 주고 직업도 주고 가정도 마련해준다고 사탕발린 말로 회유도 했다. 전향서를 갈가리 찢어던지면 몽둥이가 날아와 떨어지고 두다리, 두팔에는 전기줄이 와닿았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코에다 고추가루물을 부어넣었다.

세상에 지옥이 있단들 이보다 더하랴.

그러나 죽어도 전향을 할수 없는것이 나뿐만아닌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한결같은 신념이었다.

지금도 눈만 감으면 16절지보다 더 작은 피창으로 아침이면 잠시 흘러드는 한줄기의 그 해빛이 보여온다.

그 해빛이 흘러드는 순간은 짧았어도 그것이 온 하루 온밤 나의 온몸을 감싸주곤 했다.

나는 그 해빛을 그저 빛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 해빛속에 꿈결에도 뵈고싶은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영상을 그려보곤 하였다.

나는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온 행복자다.

조선인민군 해군에 복무하고있던 나는 뜻밖에도 우리 부대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왔다.

전투합정의 기관을 맡은 저를 몸소 만나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배에서 심장은 기관이라고 하시며 나의 기쁨물은 손도 무릅없이 꼭 잡아흔들어주시며 감격에 들먹이는 어깨를 오래도록 쓰다듬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자애로운 음성으로 당의 훌륭한 전사가 되라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또한 전사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어버이심정으로 하나하나 보살펴주시였다.

그날에 어버이수령님의 환하신 태양의 그 미소가

그대로 해빛이 되어 저 감방의 작은 띄창으로 흘러 드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침이면 그 해빛을 보며 어버이수령님께 마음속으로 인사를 올리였다.

전향을 반대하여 싸우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몇 시간후에 다시 깨어나 일어서도 나의 가슴속엔 언제나 수령님생각뿐이었다.

밤이면 어버이수령님! 오늘도 نوم과 고통없이 싸웠습니다. 앞으로 더한 곤란이 닥쳐와도 수령님 전사답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35년간 감옥에서도 수령님께서 영광의 그날에 만면에 담으셨던 환하신 그 태양의 미소를 잊은적이 없었다.

정녕 그 해빛이 그리워 띄창밖의 하늘이 조금이라도 흐리면 나는 안타까이 해빛을 기다렸다.

그런데 원수들의 악형과 긴긴 감옥살이는 나의 눈에서 그 해빛마저 빼앗아가려고 했다.

나의 눈이 점점 잘 보이지 않게 된것이다.

원수들은 좋은 기회라도 생긴듯 《너의 눈에 지금 백내장이 왔다. 그대로 두면 너는 영영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제라도 전향을 하라. 이 종이장에 손도장만 하나 찍으면 된다. 그러면 감옥살이도 끝나고 집도 생기고 직업도 생기고 예쁜 색시도 생긴다. 눈도 고쳐주고…》

나는 그 순간 원수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하던 항일혁명투사 최희숙 동지를 생각하였다.

전향이라는 그 치욕은 만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것이다.

내가 죽는다고 해도 절대로 수령님의 전사된 의리는 버릴수 없었고 사랑하는 안해와 자식이 있는 그리운 조국을 배반할수 없었다.

원수들이 제아무리 내눈을 두고 갖은 회유를 해도 마음속의 광명만은 빼앗을수 없었다.

고통속에 귀밑에 흰서리 불리고 나의 두눈은 점점 더 어두워져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았다.

집요하게 전향을 권하는 전향공작반놈들의 간사스러운 소리도 멀리서 들려왔고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소리와 피흘리며 쓰러지는 동지들의 신음소리

만이 가슴에 파고들었다.

그 작은 띄창으로 흘러드는 해빛을 나는 피부로만 감각할수 있었다. 한줌에 쥐여도 모자랄 감옥방도 이제는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향하여 두눈을 뜨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기보다는 두눈을 잃고서라도 마음속으로 어버이수령님만을 그리며 굳건히 살아가려는것이 나의 신념이었고 전사의 의리였다.

송환된후 36년만에 안해와 딸을 만나 어깨를 쓸어보고 만져보면서 나는 목메여 울고 또 울었다. 그날 원수놈들앞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던 나에게 이렇게 눈물이 많을줄은 몰랐다.

너무도 기뻐서인가 아니면 흥안의 청춘으로 떠났던 이 아버지가 유복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수 없는 그 안타까움인가.

그것이 아니었다. 원수들이 나의 두눈을 빼앗아도 나의 마음속에 밝은 두눈이 빛나고있었다.

조국앞에 큰 공도 세운것이 없는 이 전사를 신념과 의지의 강자라고 불러주시며 뜨거운 한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한없는 고마움에 목이 메인것이였다.

내가 안해와 딸을 부여안고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고있던 그밤, 나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신분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저의 눈을 뜰수 있게 하라고 몸소 인삼, 록용 등 보약과 귀중한 약재들을 다 마련하여 보내주시고 이 전사 하나를 위해 유능한 의료집단도 무어주시였다.

사랑으로 이어지고 사랑으로 흘러간 그 날과 달을어이 다 생각할수 있으랴.

정녕 그 사랑이 그대로 불사약이 되어 나는 다시 눈을 뜨게 되였다. 눈을 뜨던 그날 오매에도 그리던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는 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렇다. 나는 광명을 찾았다.

신념과 의지로 마음속에 간직했던 광명만이 아닌 육체적인 광명도 다시 찾았다.

하여 안해와 딸의 얼굴도 볼수 있게 되였고 조국의 푸른 하늘과 풍요한 대지를 보게 되였다.

나는 광명을 두고 생각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그 품에 안겨사는 일만이 빛난다는것을...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찬란한 광명, 밝은 래

## 련 시

# 사랑의 힘

-비전향장기수의 안해에게-

오영재

## 아직도 남아있는 젊음

마음고생 많이 하면  
빨리도 늙어버린다 했는데  
일흔이 다된 나이인데도  
어떻게 아직도 젊음이 남아있습니까

창고에 땀감도 하나 가득 쌓아놓고  
아이들을 잘 키우라  
내 꼭 돌아오마  
웃으며 안아주던 그 사람  
떠나가서 40년  
기다리며 40년

그날부터 남편없이 홀로  
님을 그리는 새 사랑을 시작한 녀인

기다림이 사랑이었던가요  
그리움이 사랑이었던가요

세월이 흐르면  
모든것이 다 생각에서 벌어진다 했건만  
10년 또 10년  
세월이 갈수록 더 가까워진 그 정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불타오른 그 사랑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사는 사람은  
그렇게 첫 사랑을 못잊는 사람은  
그래서 온 한생  
사랑으로 가슴을 덥혀온 녀인은  
아마도 늙을줄 모르는가 싶어요

## 사랑의 눈

녀인이여  
몇십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무슨 근거로  
지금까지 그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확고히 믿고있습니까

그가 싸우던 결전장에  
가보거나 했습니까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제눈으로 똑똑히 보거나 했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한생이 다 무너져버릴것 같아서였습니까  
안고살던 집안의 기둥을  
영영 잃어버릴것 같아서였습니까  
어째서 어째서  
-내 꼭 돌아오마  
님이 남긴 그 말만을  
그처럼 굳게 믿었던것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사랑의 힘이였을것입니다  
그토록 열렬한 사랑에는  
눈이 있기마련입니다

한생에 그 어떤 시름도 없는듯  
그리도 명랑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던 그였어도

남편의 생사를 두고  
가까운 사람들이 은근히 걱정해주는  
그런 순간이면  
너인은 침묵...  
또 침묵이었습니다

조용히 돌아앉아  
남편의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란이 아버지  
살아계시나요  
아니면...

그러나 그에겐  
생사가 문제로 된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위한 성전에 한몸바친

그 눈으로  
결코 죽을수 없는  
하여 죽지 않고 살아있는  
님의 모습을 보았기때문이 아닙니까

## 침묵

그이를 잊는다면 잊는다면  
이 행복한 땅우에서도  
그것은 《전향》이었습니다

가슴속에  
너무도 깊이 쏘아박은 모습이었습니다  
눈비도 광풍도  
흐르는 세월도 못지우는 모습  
그것을 지우려면  
너인의 가슴을 허물어야 하는  
그런 못잊음입니다

땃을 드리운 배는  
그 어떤 물결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기에 그의 침묵은  
너인의 가슴속 밑바닥에  
천근의 무게로 박혀있는  
신념의 닻이었습니다

## 눈물

늦게야  
수십년만에 퍼그나 늦게야  
너인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비전향장기수로  
남조선의 감옥에서  
지금까지 옥고를 치르고있다는것을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너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내렸습니다  
온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슴속에 것처럼 많은 눈물이 고여있는줄  
그도 몰랐습니다

온갖 악형에도 굴하지 않은  
남편이 장하여 울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신념과 량심을 지켜준  
남편이 장하여 울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나누어보지 못하고  
홀로 마음속에 자물쇠를 채우고  
보석처럼 간직해온 그 믿음  
아, 온밤 흘리고 흘린 너인의 눈물은  
그 믿음에 대한 환희였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자기 한생이 락엽처럼 흩날리고마는  
그 믿음  
가오가도 끝없는 허허벌판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우람히 솟아있는  
그 믿음의 성벽에 불을 비비며  
사랑하는 남편의 품에 안긴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 안해를 위해서라면

너인은 때없이  
남편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란이 아버지  
통일의 그날까지  
수령님을 믿고  
우리 장군님만 굳게 믿고  
굴함없이 억세게 싸워주세요

그렇게 마음다지며  
너인은 우리 당을 받드는 일에  
자신을 깡그리 바쳐갔습니다  
밤잠도 잊었습니다  
끼니도 잊었습니다  
남편의 몫까지 일하고싶어  
온몸을 불태웠습니다

그이처럼 억세게 살자  
마음다지고 마음다지며  
생활의 파도를 헤쳐가는  
그도 의지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너인을 안해로 둔  
비전향장기수  
그대 역시 안해를 굳게 믿었기에  
안해의 마음  
안해의 눈빛  
안해의 체온이  
언제나 그대곁에서  
마음을 덥혀주고있었기에

그대 안해를 위해서라도  
어찌 다른 길을 걸을수 있겠습니까

## 《어머니》와 《아기》

이젠 80을 바라보는 비전향장기수  
안해가 붉은색넥타이를 매라면  
붉은색넥타이를 맵니다  
거울앞에 서보라면  
공손히 거울앞에 섭니다

로인의 건강에 좋다는  
가지나물을 들라면  
그것이 입에 맞건 맛이 없건  
가지나물을 열심히 씹니다  
집문을 나설 때  
안해가 빗을 꺼내들면  
말없이 머리를 말깍니다

묘향산의 단풍길을 오를 때면  
안해의 손을 꼭 잡고 따릅니다  
해금강에서 바다수영을 할 때도  
안해가 더 멀리 가지 말라면  
곧 돌아서서 헤염쳐옵니다

원췌앞에서는 것처럼 사납고  
사자처럼 무섭게 노호하며 불복하던  
그 신념과 의지의 강자가  
안해앞에서는 아기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목말랐던  
사랑의 그 힘앞에선 순해졌습니다

40년을 하루같이  
잊지 않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준 그 권리로  
안해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길고 긴 그 나날  
못다 나눈 부부의 사랑을  
못다 누린 부부의 행복을  
1년은 10년 맞잡이로  
누리며 삽니다  
내 나라 사회주의세상에서  
은혜로운 태양의 품속에 안기여

사진첩을 번지다가  
한장의 사진앞에서 나는  
생각깊이 눈길을 멈췄습니다  
경치수려한 구월산의 폭포를 배경으로  
《어머니》와 《아기》는 서로 어깨걸고  
환히 웃고있었습니다

40년세월 감옥생활한

그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40년세월 애태우며 남편을 그리던  
그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눈에는 그 사진이

갓 결혼한 신랑신부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먼길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아기를  
이제는 영영 놓아주지 않을듯  
꼭 안고있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 수필

# 사랑과 조국

## 최련

나는 그 너박사를 며칠째 만났다.

30대, 너무나 젊은 나이에 빠르고 획기적인 성공으로 학계를 놀래운 여성이었다. 그에게서 어떤 특이한 비결을 찾아내는것이 나의 취재목적이였다.

연구과제의 남다른 선택? 다른 사람들은 찾을수 없었던 지름길? 혹은 그 어떤 새로운 연구방식?

그러나 신통한 비결이라고 짚이는데는 없었다. 취재수첩을 덮으면서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은 수수께끼의 존재로만 안겨오는 그 너박사와 아쉬운 작별을 해야 했다.

그날은 달이 밝았다. 불빛이 흐르는 대동강을 따라 우리는 걸었다.

《작가동문... 한한테 실망했지요?》

문득 그가 물었다. 나는 순간 당황하여 너박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묻는 말에나 대답할뿐 자기 세계에만 빠져있다고 보았던 그가 어느새 내 마음속을 정확히 들여다보고있었던것이다.

《비결?... 글썄 나 자신도 무엇이라 딱히 대답을 찾을수 없군요.》

《내가 무척 어려운 질문을 한가봐요.》

나는 풀기없는 목소리로 웅대했다.

《저... 이런걸 말해도 되겠는지...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난 이미 지나간 한순간을 생각하곤 해요. 만약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그건 어떤 순간이에요?》

나는 한가닥 기대를 안고 그를 쳐다보았다.

한동안 대동강의 고요한 수면을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처음 가정을 이루었을 땐 가정과 연구사업을 조화시키리라 마음 먹었어요. 그러나 그 결심이 실천으로 옮겨지기까지 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것을 깨닫게 된것은 조국이 커다란 시련을 겪던 바로 그때였어요. 생활의 시련은 우리 가정에도 닥쳐왔어요.

녀인들모두가 그 누구보다도 남모르는 마음고생을 많이 겪어야했지요. 나도 한가정의 주부였어요. 나도 있는 힘껏 노력을 했답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이 보잘것없는것이였는지 시련은 더욱 엄청난 모습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때 난 처음으로 나의 직업이 한가정의 주부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일시 생활하기 편리한 자리에 옮겨앉을 생각에까지 이르렀어요.

지금은 우선 가정을 유지하고 보자. 후날 다시 연구소로 돌아오면 될거라고 자기를 위안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난 어느날 출근하자바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저녁에 실장동지가 그 용지를 돌려주는데 놀랍게도 수표가 되어있었어요.

반대에 부딪칠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나는 어안이 병병해졌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바로 내 마음속에서 벌어졌지요.》

도란도란 울리는 그의 이야기는 골짜기에서 흘러 내리는 시내물처럼 내 마음에 젖어들었다....

...바라던 결과였으나 너무나 쉽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공허와 모욕감을 불러일으켰다. 어쩌면 그 리도 쉽게...

내가 정말 그런 서퍽자리 존재였던 말인가. 아무말없이 수표를 하던 실장의 모습이 온밤 현경을 괴롭혔다. 겨우 못잡에 들었을 때 요란한 자명종소리가 그를 깨웠다. 현경은 서글픈 눈길로 5시를 가리킨 자명종시계의 시침을 바라보았다.

난 이제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러니 전처럼 서두르지 않아도 돼.

그러나 그는 예전처럼 부엌에 나섰고 옷차림을 했다. 아직은 수속이 끝나지 않았으니 마지막까지 잘해야지.

그는 스스로 랭정하게 자신을 닦아세우고 출근길에 올랐다.

아침모임시간에 실장은 예전처럼 한사람한사람씩 지명해가며 오늘 할 사업에 대한 본인의 계획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세번째로 돌아오는 현경의 차례를 그는 뛰어넘었다. 마치나 현경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것처럼 실장은 태연히 그 다음 사람에게 계획을 물었고 어설픈 구석을 날날이 지적했다.

모임이 끝나고 연구사들이 언제나처럼 서로 무슨 우스운 이야기를 나누며 헤어져가는것을 보면서 현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저들속에 그 중심에는 현경이가 서있었다. 실에서는 언제나 그의 재능이 높이 평가되었고 모범으로 내세워지곤 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이란 말인가...

현경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비칠거렸다. 달리는 될수없었던 선택이었다고 마음을 다잡으려 했으나 그것은 그를 부축해주지는 못했다.

저녁총화모임이 있기전에 현경은 실장에게 수속기간에 해당하는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역시 아무 말없이 수표를 하였던것이다.

거의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 치밀어올랐으나 현경은 자신을 억제하였다. 그는 재빨리 정문으로 향했다.

문득 누군가가 현경을 멈춰세웠다. 열흘전에 자기에게 대상건설을 위한 XX응용프로그램을 의뢰하였던 어느 기관의 책임일군이였다.

아직 끝내지 못했다는 현경의 말에 그 일군은 몹시 놀라는것이였다.

《아니, 오늘까지 꼭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중으로...》

그 일군은 현경이가 한두시간만 품을 들이면 그 프로그램을 능히 끝낼수 있다고 굳게 확신하고있었다.

이때 뒤따라나오던 같은 실의 연구사가 보기 민망했던지 그 일군의 팔을 끌어 뭔가 조용히 귀속말을 했다.

현경은 거의 뛰다싶이 그 자리를 피했다. 등뒤에서 바라보는 그 일군의 눈길이 여러가지 빛갈로 떠올랐다. 리해? 동정?

현경은 세차게 도리머리를 했다. 그렇게 며칠전 자기를 바라보던 그 경탄과 존경에 넘친 눈빛을 영영 잊으려고 했었다...

《그날 아무일도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마치 뱃을 잃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멀리 출장간 남편이 그 순간에 곁에 있어주지 않는것이 야속했어요. 어제까지의 생활적인 고충조차 그 순간의 번민에 비하

면 하찮은것으로 생각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무슨 정신에 그렇게 황급히 집을 나섰는지 난 지금도 딱히 짚어말하기 힘들어요.

만약 이대로 그냥 앉아있으면 다시 일어날것 같지 못한 위구심이 들더군요.

출근길을 걸으면서 난 누군가의 집요한 눈빛을 느꼈어요. 스승들과 학창시절의 벗들, 부모님들, 정다운 사람들모두의 눈빛이였는지... 어쨌든 그 눈빛은 공감이나 실망이었고 아픔이였어요.

연구소에 들어서자바람으로 난 정신없이 일에 달라붙었어요.

그 다음날도 역시 출근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내가 의뢰받은 과제를 끝내고 그것을 실장동지앞에 가져갔을 때 그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것처럼 레서랍게 받아들더군요. 간간히 살펴보고나서 미흡한부분을 지적했어요.

<다시 하시오.> 하고 내밀더군요.

그 순간 난 눈물이 왈칵 솟구치는것을 억제할수 없었어요. 그때의 심정을 뭐라고 설명할지...

<예, 다시 하겠습니다.>

난 울었어요. 책임과 의무, 기대와 믿음이 그 어떤 동정이나 연민보다 더 귀중하다는것을 난 그때 사무치게 느꼈어요.

선자리에서 그냥 울기만 하는 나의 손을 로박사는 조용히 잡아주더군요.

<난 현경동무를 믿었소. 누구나 다 나약해질수는 있소. 나도 동무의 사직서앞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동요했었으니까. 하지만 삶을 무너뜨리는것은 결코 생활상대로 그 자체가 아니라고 난 생각하오. 그 난관을 박차고 일어서려는 용기가 부족한것이 무서운거요. 우리 다같이 일어섭시다. 조국이 우릴 지켜보고있소.>》

녀박사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그 목소리는 내 가슴속에 세찬 격정의 파도를 일으켰다.

《그때부터 내가 하는 일이 내 생명처럼 소중해졌어요. 실장동지와 동지들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의 눈빛에 자신을 따라세우려고 애썼어요. 성공했을때의 사람들의 공감과 찬탄의 눈빛은 나에게 몇배, 몇십배로 더 소중해졌어요.

난 이제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답니다.》

나는 녀박사의 그 부드러운 눈빛과 입가에 떠도는 그 감출수 없는 미소를,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황홀해서 바라보았다.

이 녀인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의 창조를 사랑하고있다. 언제부터인가 이 녀인은 자기가 다루는

수자들과 기호들과 프로그램들과 피줄을 이은 하나의 생명체가 되었다. 그들과 속삭이고 그들과 미래를 꿈꾸면서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킨다. 그래서 그는 남달리 빠르게 큰 성과를 거두는것이리라.

그는 이 모든것을 나에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사랑은 설명할수도 강요할수도 없다. 삶전체에 충만되어있어 순간순간을 헌신의 환희와 열정으로 빛뿌리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가.

이 녀박사는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조국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이끌려 일어섰다고 했지. 그렇다. 그 사랑은 어떤 직업에 대한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었다.

만약 이 순간 그에게 너는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있다고 말해준다면 그는 아마 놀랄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달리 설명할수 없는 진실이다. 이 소박하고 열정적인 녀성은 조국을 참담게 사랑하고 있다. 시련속에서 더욱 억세여지고 강렬해지는 사

랑, 그 사랑속에서 이 녀인은 용감하고 억세고 강하다.

이것이 비결일까? 그럴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기의 창조를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의 조국은 얼마나 강대해질것인가.

나는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선군시대를 위대한 사랑의 시대로 빛내이는 인간들을 보는데 싶었다. 그 사랑이 있어 우리 조국은 남들은 열백번 쓰러졌음 시련을 이겨내고 억세게 걸어왔으며 광활하고 찬란한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조국이며! 훌륭한 아들딸들을 가지고있는 자랑스러운 조국이며!

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하늘중천에 인공 지구위성의 자리길이 불줄기같이 뻗어나가 번쩍이는것 같았다. 그것은 분명 그의 가슴속에 깃들어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빛이었다.

## 그들은 열일곱명이였다

송재하

명령은 내리지 않았어도  
불타는 구호나무숲으로  
하나처럼 뛰어든 병사들  
그들은 열일곱명이였다

몇발자욱만 내려가면  
산골짜 맑은 물 흘렸건만  
쓰러 지면서도  
불타는 구호나무를 그리안은  
장군님의 땀뻗은 병사들

태어난 날도  
떠나온 곳도  
서로서로 달랐지만  
생을 바쳐야 할 그 시각엔  
심장은 하나되어 고동쳤구나

자랑스럽구나  
구호나무를 지켜  
온몸은 불에 타 굳어졌어도  
오늘도 구호나무와 함께

우리 심장 높뛰게 하는 청춘들이여

선렬들이 물려준 그 삶이  
바로 저 구호나무에 숨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삶도  
바로 저 글발에 있거니

바쳐야 할 청춘  
누려야 할 생에 대하여서는  
여기서 따로 묻지 밀라  
별처럼 빛나는  
저 구호나무의 글발이  
다 말해주고있지 않느냐

누릴수 있었어도  
아낌없이 바친 생  
바쳤기에 선렬들과 나란히  
먼 세월의 한끝에 가서도  
살아 숨쉴 그들의 붉은 넋이여

눈속에 파묻히면서도

오직 수령님만 우리를 선렬들처럼  
온몸이 불에 타 굳어지는 그 시각에도  
장군님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거니

참다운 생이란 그 무엇인지

뜨겁게 불타오르는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새겨주며  
오늘도 우리앞에 우뚝 서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들  
그들은 열일곱명이였다!

## 위훈과 처녀시절

전윤해

봄- 기적소리와 함께 렬차는 서서히 산골역구  
내를 벗어 나기 시작하였다.

우줄우줄 키돋움하며 따라서는 산발들, 밤새  
내린 비를 맞아 더 푸르러진 숲과 흰 땕기오리치  
럼 골짜기를 빠져나와 산굽이를 감도는 개울.

방금전까지 들뜬 기분에 분명 즐거운 렬차려행  
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마음은 일시에 가라앉고  
뭔가 알수없는 뜨거움이 자꾸만 샘솟는다.

차창가를 바투 스치는 절벽들과 소리높은 숲사  
이로, 산봉우리로 뻗어올라간 은빛송전선과 철탑  
들이 언뜻 스친다. 우리들이 건설한 수력발전소  
에서부터 뻗어내린 송전선이다.

불시에 눈굽이 저려든다. 완공의 오늘을 위하  
여 3년세월 우리는 어떻게 살며 일해왔던가. 땀  
불처럼 한몸을 불태우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  
겨내며 산을 허물어 언제를 높이 쌓아 또 하나의  
조국의 재부를 안아 올렸다. 그 나날 우리는 울부  
짖는 비바람과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주저와 동  
요를 몰랐으며 살얼음진 찬 물속에 뛰어들어 돌  
을 안아내고 함마를 휘돌렸으며 계절의 변덕으로  
기온이 갑자기 낮아질 때면 갓 타입한 콘크리트  
언제우에 나래를 덮고 그것도 모자라 덮고 자는  
모포까지 씌워가며 뛰고 또 뛰었다.

그 나날에 우리는 언제나 노래와 함께 살았다.

기쁨 때도 어려울 때도 노래는 우리에게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주었고 끝없는 정열을 안  
겨주었다. 지금도 나의 마음속에서는 그 나날에  
부르던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곡조가 끝없이 울려오고  
있다. 나의 손은 저도 모르게 품속에 고이 간직한  
조선로동당원증을 더듬고있다. 가슴이 부풀고 심  
장이 뛴다. 우리 당은 별로 한일없는 스물다섯  
살처녀의 작은 가슴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

의 고귀한 증표를 안겨 준것이다.

문득 나의 눈앞에는 몰라보게 성장한 이 딸을  
맞아줄 고향의 모습이 즐겁게 상상된다.

늘 벌에 살아 거뭇하게 탄 얼굴에 느슨한 미소  
를 그릴 과묵한 아버지의 모습이며 아버지와 달  
리 행동이 재빠르고 쾌활한 어머니의 탄성까지도  
들리는듯 싶다. 그 다음은 나를 둘러싸고 웃고 떠  
들 명랑한 동무들이며 돌격대로 떠나던 날 역에  
나와 바래주던 세포비서 아바의 모습...

그 모습들에 이어 년로한 할머니의 주름깊은  
모습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흔들며 다가선다.

외동딸로 웅석반이로 자라난 손녀를 애지중지  
하며 부모들의 지청구까지 품안아 역성을 들던  
할머니, 다 자라도록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해  
온 나는 할머니에게 있어서 기쁨이였고 행복이였  
다.

그래서 험치않은 건설의 나날 때때로 그려지던  
할머니였다. 그 할머니가 3년세월 눈바람과 비바  
람속에서 단련되고 성장한 이 손녀를 어떤 모습  
으로 맞아줄것인가?

문득 돌격대로 떠나던 날 노여움 비슷한 마음  
을 안고 나를 바래주던 할머니의 모습이 마음을  
어둡게 한다. 동무들과 함께 한창 건설중인 수력  
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하고 돌아온 날 저녁, 할  
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애야, 거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건설장에 네가  
꼭 가야만 하니? 그러지 않아도 이 할머니는 네  
가 빨리 시집을 갔으면 하고 바랬는데...》

나는 그만 어린애처럼 할머니의 등에 대고 종  
주먹질을 해대며 깔깔 웃었다.

《할머니 웃기시네. 내 나이가 몇살인줄 아세  
요?》

《처녀나이 스물두살이 적냐. 이 좋은 세월에 자

식들이 빨리 시집장가를 가서 자손이 번창하면 그게 좀 좋으냐? 자고로 너자란…》

나는 또한번 한바탕 웃고나서 할머니를 그러안았다.

《할머닌 지금이 어느때인줄 아시지요? 온 나라가 이땅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자고 들끓는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날보고 참, 할머니의 생각은 봉건이에요, 봉건…》

응석을 섞어가며 하는 나의 말에 할머니는 언짢게 나를 밀어놓으며 혀를 찼었다.

《애지중지해왔더니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뭐, 내가 봉건이라구.》

할머니의 흐린 마음은 다음날 내가 돌격대로 떠날때까지 종시 가시지 못했었다.

나는 차창가로 눈길을 돌렸다. 어느새 렬차는 산협을 빠져나와 무연한 전야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잠시 허리를 펴고 손을 흔든다.

려객들중 누군가 손풍금으로 《처녀시절 꽃시절…》 하는 노래를 경쾌하게 탄다.

그러자 온 렬차안이 목소리를 합쳐 노래를 따라 부른다. 청춘시절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값있게 바치자는 내용을 생활적으로 재미있게 지은 노래이다. 밝고 명랑한 곡조의 노래는 처녀들의 마음에 꼭 들어 누구나 사랑하는다.

나도 노래를 따라부르며 우리를 축복하듯 손을 흔드는 농장원들에게 마주 손을 저어보인다.

별안간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흥분과 함께 뿌듯한 환희가 솟구쳐오른다. 처녀시절의 한때를 조국의 재부를 늘이는데 부끄럼없이 바쳤다는 긍지감이다. 사나운 자연과 싸우며 언제를 쌓던 나날들에 때때로 체험하던 감정이다. 나는 그 감정의 소중함을 잘 안다.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드는 길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갈 일념으로 살며 일해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이다. 진부한 리기나 공명따위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이 감정은 누구나 시대의 영웅으로 살며 일하도록 떠밀어준다.

생각에 잠겨 창밖을 내다보던 나는 가볍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서기까지 하였다. 별이 끝나는 저 앞 철길진늑길녘에 손수레를 세운 한 할머니가 손채양을 하고 렬차를 살피고있었다.

어찌나 나의 할머니의 모습과 비슷하였던지 그

만 착각을 한것이였다. 나는 웃음을 머금고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다. 두엄을 무독히 실은 손수레를 보니 집에서 낸 거름을 가까운 벌에 내가던 모양이다. 우리 할머니도 가끔 거름을 장만하여 농장밭에 내가곤 한다. 집식구들이 만류할라치면 할머니는 《걱정말고 나가 일들이나 잘해라. 아직 오륙이 성하니 일없다. 내 이렇게 해서라도 나라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 공민된 도리를 하자고 하니 말릴 생각들이랑 그만 뒤라.》 하곤 하신다. 할머니의 석심하면서도 느린 목소리가 금방이런듯 귀가에 들려온다. 사시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농사일에 마음을 쓰며 일거리를 찾곤 하는 할머니, 자식들이 일터에 나가 잘못을 저지를가봐 늘 마음을 못놓는 할머니…

할머니의 모습을 상기해보자 나의 가슴은 친근감과 함께 믿음의 감정이 그들먹이 차오른다. 한생 나라앞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오는 할머니, 할머니는 이제 나를 보면 기뻐 어쩔줄 모를것이다.

《애야, 네가 조선로동당원이 되었던 말이지…

그러고보면 너를 빨리 시집보내려 한 이 할머니의 생각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그러면 나는 어제날처럼 할머니의 품에 안겨들며 응석을 부릴것이다.

《할머닌 봉건이에요.》

그러면 할머니는 웃으면서 젊은 사람들의 말투를 흉내내실것이다.

《네 말이 옳다. 그 낡은 봉건유습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머리속에 남아있는지 모르겠구나.

그 낡은 사상이 하마트면 너를 잘못되게 할뻔했구나.》

그러면 나는 한바탕 웃고나서 말할것이다.

《할머니, 난 이제 또 다른 건설장으로 떠날래요. 음- 난 당원이니까요.》

할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을것이다.

《어서 그래라. 그렇게 해서 우리 장군님 이끄시는 강성대국건설에 처녀시절을 보람있게 보내거라.》

기쁜 상상이다. 아니 상상이 아니라 할머니는 꼭 그렇게 나를 맞이하여줄것이다. 할머니는 이손녀를 끝없이 사랑하신다.

마음이 초조해진다. 달리는 렬차가 자꾸만 더디게 느껴진다.



봉- 길게 울리는 기적소리는 나의 마음을 고향에 전하려는듯 높게 울린다.

이것은 어느 한 수력발전소건설장에서 나와 함께 일한 내 동무 분이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에 작고 사소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봉건유습이 주는 영향은 아마 무시할수 없는가봐.》

분이는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맺었다.

## 단편소설

# 교정의 수삼나무

김혜영

## (1)

《똑똑똑.》

분명히 울린 문기척소리에 나는 놀라 잠을 깨었다.

창밖은 아직 새까만 어둠속에 묻혀있었다.

몸을 일으키며 시계를 보니 3시 10분이었다.

(이 새벽에 누굴까?)

잠시 숨을 죽이고 기다렸으나 문소리는 다시 울리지 않았다.

(착각인가?…)

나는 허구쁜 웃음을 짓고 자리에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지끈거리는 머리를 쉬우려고 몸을 등받이에 기댔다.

요즘 《日 체계》의 조종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연구로 며칠밤을 꼬박 새워온 나였다. 초긴장상태에서 연구의 마감고비를 한계단한계단 뚫아오르던 나는 극심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깜빡 잠들었던것이다. 아마 내쳐 잠들었으면 언제 깨었을지 몰랐을것이다.

(헌데 참, 누가 날 깨웠을까?)

이상한 생각이 지긋게 갈마들었다. 분명 찾아온 사람은 없는데 어째서 나는 그 문두드리는 소리를 그렇게도 똑똑히, 현실처럼 들을수 있었을까?

(꿈에서 누군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거야.)

그러자 한 녀인의 얼굴이 우렁이 떠오른다. 까만 치마저고리에 하얀 동정이 유묘하게 두드러지는 호리호리한 몸매, 가름한 얼굴에 서드러운 검은 눈매...

《학범이! 어서 일어나요! 이제 주저앉으면 영원히 인생의 지각생이 될거예요!》

찌르는듯 한 질책의 목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줄곧 나를 지켜보는 눈빛마저 느껴졌다.

환영은 이미 사라졌으나 گوش에서 들었던 그 문기척소리는 불현듯 중학시절, 20여년전의 어느날 에로 나를 이끌어갔다.

×

수학분과실 문앞에 이른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느라고 잠시 망설였다.

깔끔하게 생긴 새 담임선생은 물을것이다.

《학범학생, 오늘아침 왜 지각했어요?》

내가 할 대답은 명백했다.

《선생님, 저도 다른 동무들처럼 집이 가깝다면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소학교때부터 중학교 1학년을 마치도록 나는 통학거리때문에 선생님들로부터 남다른 관용을 받아오던 터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한들 새로운 선생님앞에서까지 마음이 버젓할순 없었다. 더우기 오늘따라 선생님이 배워주는 수학수업이 첫 시간이었는데 나는 그 시간이 거의 끝나갈무렵에야 교실에 들어섰던것이다.

(할수 없지.)

내가 손기척을 하고 분과실에 들어가자 선생님은 학적부를 펼쳐보다가 덮어놓았다.

《자, 여기 앉아요. 선생님이 학범이한테 뭘 좀 물어보자고 불렀어요.》

나는 긴장해서 결상에 앉아 선생님의 물음을 기다렸다.

《60미터의 길 량옆에 해바라기 242포기를 심었어요. 해바라기사이 간격은 얼마일가요?》

뜻밖의 물음에 나는 흠칫 머리를 들고 선생님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파마기가 약간 알리는 머리칼을 매끈하게 벗어넘긴 가름한 얼굴, 짙은 눈섭밑에 약간 오목하면서 서늘한 빛을 풍기는 검은 눈이 진지하게 대답을 기다리고있었다.

나는 속으로 한참 계산을 해보고나서 0.5미터라고 대답했다.

《맞았어요.》

선생님은 기뻐하더니 또 다음문제를 내놓았다.

《벽시계가 6시에 종을 치는데 6초 걸렸어요. 12시에는 몇초 걸리겠나요?》

(6시에 6초?…)

나는 대뜸 《12초》 라고 대답하려다가 먼저 문  
문제에서 해바라기포기수와 간격개수가 같지 않  
다것을 상기하고는 다시 계산했다.

《13. 2초입니다.》

《왜 그렇게 되지요?》

나의 설명을 듣고난 선생님은 머리를 끄덕이더니  
혼자소리처럼 말하는것이였다.

《그러니까 학범인 얼마든지 최우등을 할수 있는  
걸 못했었군요.》

또다시 생각에 잠겼던 선생님이 움쭉 일어나더니  
칠판옆에 걸린 메터자를 벗겨들고 《학범이, 우리  
저기밖에 좀 나갔다 오자요.》 하며 먼저 앞서는것  
이였다.

나는 영문을 몰라 기웃거리며 따라갔다.

선생님이 걸음을 멈춘 곳은 교재원과 운동장이  
경계를 이룬 곳에 키높이 솟은 수삼나무밑이였다.

《학범이, 이번엔 이 수삼나무의 높이를 한번 재  
어보세요.》

선생님이 나에게 자막대기를 주며 하는 말이였다.

나는 꿈쩍 놀라 《예?》 하고 수삼나무를 향해  
머리를 젓히였다.

하늘을 향해 미출하게 줄기를 뻗은 수삼나무는  
그 높이를 알수 없게 아득해보였다. 올라다보기도  
아찔한 나무꼭대기에 어떻게 올라가 높이를 잴수  
있겠는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가만. 올라가지 않고도 재는 방법이 없을가?)

나무의 아래우를 자세히 살펴보던 나의 눈길  
운동장쪽으로 길게 뻗은 그림자에 멎었다.

(저 그림자를 리용하면 될것 같은데...)

무엇인가 실마리가 잡힐듯 하면서도 안타깝게 떠  
오르지 않았다.

《그 메터자의 그림자를 재어보세요.》

끝내 선생님이 생각을 퇴위주었다.

그러나 나무와 메터자의 그림자를 재어놓고도 비  
례식을 세울줄 몰라 또 꿈꿉거렸다.

보다못해 선생님은 나무꼬챙이를 들고 다가왔  
다.

《자, 학범이가 무얼 몰랐는가 보세요.》

선생님이 땅바닥에 비례식을 쓰고 계산방법까지  
설명해주어서야 나는 나무의 길이를 알아냈다.

《야! 이렇게 하면 되는걸 난 왜?...》

내가 앞머리를 뻑뻑 쓸어내리며 중얼거리자 선  
생님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학범이가 지각하지 않고 비례식에 대한 수  
업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선생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무의 길이를 제격 잴수 있었을거예요.》

선생님은 나의 손을 다정히 잡아 교재원의 결상  
에 앉히였다.

초가울의 서늘로운 바람이 가볍게 불어왔다. 구  
름 한점없이 맑고 푸른 하늘로 곧추 뻗어오른 수삼  
나무가 참빛살모양의 푸른 잎새들을 소리없이 흔들  
어 대고있었다.

《학범이! 수삼나무가 저렇게 남달리 곧바르게 그  
리고 높이 솟아오를수 있는것은 무엇때문이겠어  
요?》

나는 수삼나무와 주변의 소나무며 여러갈래의 줄  
기를 가진 살구나무, 고로쇠나무 등을 대비해보다  
가 무슨 신기한 발견이라도 한듯 흥분하여 대답했  
다.

《선생님, 수삼나무는 줄기가 끝까지 하나이구 결  
가지가 없습니다.》

《옳아요. 수삼나무는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려는  
그 지향성이 강하기때문에 다른 나무보다 더 곧게,  
더 빨리, 높이 자라는거랍니다.》

나는 날마다 무심히 보아오던 수삼나무가 이날은  
별로 새롭게 올려다보여 그 높은 우듬지에서 눈길  
을 떼지 못하였다.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목적과 지향이 뚜렷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강할 때 저 수삼나무와  
같이 훌륭한 기동감이 될수 있는거예요.》

선생님은 나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계속하였다.

《그런데 학범이에겐 그 어떤 지향도 의지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등교에서도 지각생, 공부에  
서도 지각생이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커서  
도 혁명과업수행에서도 지각생, 결국 인생의 지각  
생이 될수밖에 없어요.》

나는 선생님이 나의 《특수조건》 을 몰라서 그  
러는게 아닌가 하고 두해서 고개를 비틀고있었다.

《난 학범이도 마음만 먹으면 학습과 조직생활에  
서 다른 동무들보다 앞장설수 있다고 믿어요. 어때  
요?》

《...》

《아니, 자신이 없는 모양이군요.》

그제야 나는 통명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두 집만 가깝다면... 지각 안하겠습니다.》

《집이 멀다는건 선생님도 알아요. 하지만 집이  
멀기때문에 지각해도 되고 우등을 해도 된다는 법  
은 없어요. 그 어떤 리유와 조건을 방패로 자기의  
결함을 정당화처럼 생각하는것은 자기 손으로 자  
기 눈 찌르는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통학거리에 있는것이 아니라 어떤 리상을  
품고 어떻게 이악하게 노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  
다고 보아요.

학범이! 한번 마음먹고 자기의 의지를 시위해보  
지 않겠어요?》

나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의욕과 배심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남보다 잠을 적게 자고 일찍 깨어나고, 남이 한 걸음 걸을동안 두걸음 뛰면서 한번 앞장에 서보자요. 알겠지요?》

《예.》

《좋아요.》

분과실로 간 선생님은 희한한 그림이 그려진 새책 한권을 주는것이였다.

《자, 선생님이 학벌이를 믿는다는 증거로 이 책을주는거예요. 그러니 약속을 지키겠다는 표시로 어서 받으세요.》

나는 책을 받아들었다. 과학환상소설 《운석탐사대》였다.

그러나 바로 그 책으로 하여 또 늦잠을 자게 될 줄이야...

집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펼쳐보기 시작한 책은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도 온넛을 틀어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신비로운 환상의 세계, 아슬아슬한 모험의 장면들이 끝없이 펼쳐졌던것이다.

어머니가 어서 자라고 전등불을 꺼버렸으나 몰래 부엌으로 새어나가 끝내 마저 보고야 말았다.

그런데 어느새 일어나 부엌으로 나온 어머니가 깜짝 놀라 야단을 쳤다.

《아니, 너 밤을 꼬박 새운게 아니냐? 그 눈이 새빨강게 토끼눈이 된걸 봐라 선생님이 지각하지 말라구 책을 주었다더니 오히려 더 지각하게 만드는구나, 쫓쫓...》

어머니의 책망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각이 뭐예요? 어머니! 나 다섯시엔 꼭 깨워야 해요!》

《여섯시에도 깨지 못하던 늦잠둥이가 다섯시엘? 지금 몇신줄 아니? 3시도 지났어》

《헹, 5시에 깨우지 않겠다면 자기 않겠어요.》

어머니는 《그래그래, 깨우마.》 하고 나를 이불속으로 떠밀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깨우지 않았다.

새벽먹이를 주러 양어장에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와서야 깨여보니 6시 50분이였다.

나는 그만 울상이 되어버렸다. 어머니에 대한 분풀이로 아침밥을 먹지 않기로 하였다. 그럴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 (사실 어머니는 내가 밥을 먹지 않는것을 제일 속상해하였던것이다.)

나는 씹씹거리며 나가 외락외락 세수를 하고는 옷을 입고 넥타이와 가방을 찾아들었다.

이제부터 한시간! 한시간동안에 15리길을 가낼 수 있을까? 선생님은 남이 한걸음 걸을 때 두걸음 뛰어서라도 앞장에 서보라고 했지.

(그래, 달리기를 하자 마라손선수들은 105리를

달린다는데 15리쯤이야!)

내가 횡하니 마당을 뛰어나가는데 그제야 부엌에서 밥을 푸던 어머니가 주걱을 든채 쫓아나왔다.

《아니, 야! 밥을 안먹구 가니?》

허나 나는 이미 저수지기슥의 큰길을 달리고있었다.

한굽이... 또 한굽이...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목에서 겨불내가 났다.

나는 눈섭에 매달리는 땀방울을 연신 훔쳐내며 이를 악물고 달리고 또 달렸다. 숨이 금시 멎을것처럼 가빠 올랐다.

드디어 여섯굽이를 다 돌아 고개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더는 참을수 없게 힘이 들었다. 당장 주저앉아 한숨 돌리고만 싶었다. 하지만 중턱에서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설것 같지 않아 이를 앙다물고 발을 내짚었다.

그러나 마음뿐이지 몸이 휘청거리고 다리가 잘 움직여주지 않았다.

저 고개마루까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눈앞이 새노래지더니 무수한 별찌가 튀어났다.

가까스로 고개마루에 올라선 나는 통나무 넘어가듯 풀썩 쓰러져 버리고말았다.

(야- 이거... 더는... 못가겠구나!)

나는 헐떡헐떡 가쁜숨을 뿜아내며 이슬뼉인 길옆의 금잔디를 움켜쥐었다. 그제야 참을수 없는 허기가 물려들어 창자를 비틀어댔다.

(아, 지키지 못할 약속은 왜 해놓구... 엄마가 제때에 깨우기만 했어두... 이렇게 주저앉을바엔 차라리 밥이나먹구 올걸.)

한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꼬리를 물었다.

이제 또 넘어야 할 두번째고개, 첫고개보다 더 높고 가파로운 령길을 생각하니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노그라들고 꿈쩍할 기운조차 나지 않았다.

부근부근한 금잔디가 두렵게 깔린 이 길옆에 그대로 누워 한잠 푹 자고만 싶었다.

그때 어디선가 《학벌이! -》 하는 쾅쾅한 부름소리가 메아리쳐 울려왔다.

(영?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앞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눈이 때꾼해졌다.

그리도 아득하게 바라보이던 그 고개마루에 까만 치마저고리차림의 우리 선생님이 서서 손저어 부르는것이아닌가?

순간 목이 콕 메이고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찻찻한것이 눈귀를 적시였다.

《선생니-임!》

나는 마음속으로 부르며 별떡 일어났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던지 나는 날개가 달린것처럼 고개

길을 내리구를렀다.

어느덧 두번째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선생님이 나를 얼싸안았다.

《학범이! 난 믿었어요. 약속을 지킬거라구...》

《선생님! ... 흐흑...》

나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선생님의 품에 묻고 어깨를 들먹였다.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이 땀주머니가 되어 척척한나의 잔등을 어루쓸었다.

《자, 어서 학교로 가자요!》

선생님은 나의 가방을 알아들고 나를 이끌었다. 우리는 상쾌한 바람을 안으며 고개길을 내리었다.

저 아래로 록음에 둘러싸인 학교의 정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그래, 내가 준 책은 얼마나 읽었어요?》

《다 읽었습니다!》

《뭘예요? 하루밤사이애 그걸 다?!》

선생님은 믿어지지 않는듯 놀라서 되물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사기가 나서 이야기했다.

《예, 얼마나 재미나는지 밤새는줄도 몰랐습니다. 꿈을 꾸면서도 로켓를 타구 별나라를 그냥 날아다녔습니다. 글썽 제가 보석으루 된 큰 별을 따가지구 오는데 난데없는 불덩이가 나타나서 녹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야- 얼마나 아쉬운지.》

《호호... 참 훌륭한 꿈을 꾸었구만요. 헌데 학범이가 책을 흥미거리로 읽지 않았는지 좀 물어볼까요?》

나는 긴장해져서 잔뜩 귀를 강구고 걸었다.

《태양으로부터 화성까지의 거리는 얼마던가요?》

나는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좋아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다가 또 물었다.

《금성의 속도와 태양주위를 한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금성... 금성의 속도...》

아리송하던것이 점차로 떠올랐다.

이 문제 역시 나는 어렵지 않게 대답하였다.

《맞았어요. 학범인 확실히 수자기억이 비상하구만요.》

선생님의 칭찬에 나는 어깨가 으쓱해졌다.

하지만 태양주위를 도는 시간은 알수 없었다. 선생님은 그 시간을 알려주더니 《학범인 앞으로 우주를 정복하는 과학자가 꼭 될거예요!》 하고 기쁨에 넘쳐말하는것이였다.

나는 북받쳐오르는 환희에 가슴을 울렁거리며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학교정문에 들어섰을 때 땡땡... 종소리가 울렸다.

오전 두 수업이 끝나 업간체조에 나가는데 정문으로 부리나케 들어서는 어머니가 보였다. 손에 보꾸레미가 목직하게 들린것을 보니 밥을 싸가지고 오는 모양이였다.

나는 창피스러워 얼굴을 숨겨버렸다.

대렬속에서 나를 찾을줄 알았던 어머니는 곧장 교원들쪽으로 가더니 우리 선생님을 만나는것이였다. 그러자 선생님이 곧 나를 불러내었다.

어머니는 몹시 언짢은 표정으로 선생님에게 하소하고있었다.

《...글썽 아침밥두 못먹구 15리길을 달려오다니? 선생님이 우리 집사정을 좀 봐뒀야지 어찌했습니까?》

《사실 전 학범이에게 남다른 수학적재능이 있는것같아 수학소조에 넣어 공부시키려고...》

《이니, 뭐 소조에를요?》

깜짝 놀란 어머니의 목소리가 선생님의 말끝을 가로챘다.

《예, 학범인 수자에 대한 기억력이 비상한데다 하늘의 별을 따올 큰 꿈을 지니고있답니다. 그러니 그 꿈과 재능을 꽃피워주어야지요.》

《에이구- 꿈을 꾸다구 하늘의 별을 따오길 하겠나요? 지금껏 우등이나 겨우 하던 아이를 소조라니 무슨 소린지? 원...》

《아니예요. 학범이 어머니! 알고보니 학범인 머리는 좋은데 자주 지각하고 숙제를 안하기때문에 성적이 높지 못하다고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이제라도 소조에 넣어 기초를 잘 다져주자는겁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도리머리를 했다.

《고맙긴 하지만 선생님이나 우리 아이나 다 괜한 고생입니다. 이 애가 아무려문 박사가 되겠나요? 가뜰이나 집이 멀어서 등교도 가까스로 하는 앤데...》

선생님도 물려서려 하지 않았다.

《소조에 들면 저녁에 늦어질가봐 걱정하시는것같은데 그건 마음놓으세요. 저녁마다 자체학습과제를 주어서 밤에 집에서 자체로 풀게 하구 점심시간에는 개별지도를 따라세우겠어요.》

《밤에요? 그럼 등교시간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학범인... 등교시간을 지켜낼겁니다!》

선생님은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확신적으로 말했다.

《그러니 선생님은...》

어머니는 격해서 거의 도전적으로 부르짖었다.

《우리 학범이가 오늘처럼 아침밥도 못먹고... 15리고개길을 뛰어오길 바라는가요? 그렇게 하는것도 하루이틀이지 어떻게 매일...》

당황한 선생님은 나를 교실로 떠밀었다.

《어서 들어가 밥을 먹어요.》

그다음 선생님과 어머니의 대화가 어떻게 오가고 어떻게 결속되었는지 알수 없었던 나는 은근히 마음이 불안했다. 사실 선생님의 말도 어머니의 말도 다 옳다고 생각되었으나 앞날의 꿈에 대한 미련만은 버려지지 않았다.

그날은 점심부터 흐려서 비구름이 몰려오고 일찌기 어두워지는바람에 수업이 끝나자 곧 집에 돌려보냈다.

선생님이 교실문을 나서려는 나에게 다가오더니 《발견발명이야기》라는 새책을 가방에 넣어주는 것이었다.

나는 놀라운 마음으로 선생님을 올려다보았다. 알릴듯말듯 얇은 미소가 비낀 선생님의 두눈은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말해주고있었다.

그러니 끝내 어머니를 설복시켰단 말이 아닌가?  
(고맙습니다! 선생님!)

나는 꾸벅 인사를 하고 날듯이 집으로 달렸다.

벌써 비꽃이 후둑후둑 떨어져 뽀얗게 때렸다. 다행히 집앞에 이르도록 큰 비는 오지 않았다.

마침 우산을 들고 마중나오던 어머니가 나를 ஏ드때없이 반겨맞았다.

《에그- 걱정했더니 제때에 오는구나. 봐라, 내 오늘 너의 선생님을 만나보길 잘했지?》

《체, 엄마때문에 일찍 보냈을거 뭐야요? 비가 올것 같으니까 빨리 보냈지.》

《어쨌든 이만하기두 다행이 아니냐?》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문득 이상한 느낌이 왔다. 그럼 어머니가 선생님의 의견을 그냥 반대한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런데도 선생님은 나에게 새책을 또 주었던 말인가?

그러나 중요한것은 선생님의 변함없는 믿음이였다.

나는 어머니가 저녁밥을 푸려고 부엌에 나간 사이 가방에서 《발견발명이야기》를 꺼내 펼쳤다.

책에는 인류사에 기록된 세계적인 과학자, 발명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서술되어있었다. 발명왕 에디슨이 전등을 연구하는 이야기를 보기 시작하는데 사이문이 열리더니 《뭘하니? 상놈구 밥들여가지 않구?》 하는 어머니의 재촉하는 소리가 날아들었다.

나는 한손에 책을 들고 들여다보면서 다른 한손으로 상을 놓고는 역시 한손으로 음식그릇들을 옮겨놓으면서 줄곧 책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가 가마에서 금방 떠난 국그릇을 잘못 들어 뜨거운 국물이 무릎우에 쏟아졌다.

《앗 따거!》

기급하여 젖은 내의자락을 움켜쥐고 찢찢 매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라 달려들어왔다. 다짜고짜 바지를 벗기니 어느새 살이 벌겍게 익었다.

《아유, 이거 큰일났구나. 아버지도 본소에 가서 없는 때 이게 무슨 변이람?》

어머니는 약을 솜에 묻혀 화상부위에 발라주며 입김을 호-호- 불어주었다.

《일없어요, 이젠.》

《일없는게 뭐냐?》

그러던 어머니는 문득 내 손에 쥐어진 책을 보더니 성을 내었다.

《이놈의 책이 끝내 일을 치는구나.》

다짜고짜로 책을 뺏아낸 어머니는 어쩔새없이 부엌으로 나가 어딘가 감추어버리고 들어왔다.

《야- 어머니! 책을 주세요.》

《걱정말아, 내 잘 건사했다 선생님 주지 않으리.》

나는 뿌루통하여 물러앉아 원고개를 틀었다.

이런 때는 《단식》을 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것을 잘 아는 나였다.

그러나 이번만은 어머니도 속어들지 않았다.

《너 생각을 좀 해봐라. 왕복 30리 학교길을 매일 다니는것만두 힘들어 아침마다 늦잠자는 주제에 밤새도록 책까지 보면 어쩐다는게냐?》

《그러게 엄마가 일찍 깨워주면 될거 아니냐요?》

《아니 야, 언젠 일찍 깨우지 않아서 못일어났니? 사람이 잠을 충분히 자야 건강한 법이야. 글썄 네가 그렇게 공부해서 박사나 된다면 몰라... 올라 못갈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도말했다구, 괜한 고생을 사서 하지 말구 엄마 말을 들어라.》

(올라 못갈 나무?)

나는 눈을 깜빡거리다가 《후》 한숨을 쉬고 말았다.

밖에서는 우-우- 바람소리와 함께 짹짹 비소리가 소연히 울려왔다...

밤이 되자 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져내렸다. 이따금 시퍼런 섬광이 번쩍 일면서 우르릉- 광- 천둥이 요란스레 울었다. 그때마다 나는 몸을 웅송그리며 어머니의 품에 바싹 달라붙곤 하였다. 어머니는 이불깃을 여며주며 걱정스레 중얼거렸다. 《래일아침엔 비가 멎어야 학교엘 가겠는데...》

자리에 누운지 퍼그나 시간이 흘렀으나 나는 잠들지 못하고 이리뒤편 저리뒤편하였다.

(어머니가 책을 어디에 감추었을까? ... 하긴 찾는다 해두 그걸 보다간 늦잠을 자겠지? 에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외따로 있어가지구... 참.)

매양 그러듯이 양어사업소 분장을 책임진 아버지의 직업을 원망하면서 꿈 돌아누웠다.

어렴풋이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처럼 《땅땅 땅!》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왔다.

(아버지가 왔나?)

그러나 《학범이!》 하고 부르는 소리는 분명 너자의 청청한 목소리였다.

(이 밤중에 누굴까?)

내가 꿈을 꾸지 않나싶어 눈을 껌벅거리는데 어느새 어머니가 불을 켜고 밖으로 나갔다.

미닫이를 열자 째- 하고 비바람소리가 들어들었다.

《게 누구요?》

《예, 저 학범이 선생이에요!》

《뭘라고요? 아니, 이런...》

어머니가 놀라서 허겁지겁 달려나갔다.

나도 용수철에 튕기듯 벌떡 일어나 옷을 주어입었다.

불빛에 흰해진 마당으로 들어서는 선생님의 모습 이보였다. 비옷이며 장화에 흙탕물이 마구 얼룩져 있었다.

《아니, 선생님이 이 밤중에 웬일루 여기까지? ... 무슨 급한 일이라두 생겼나요?》

일번 놀라고 일번 불안해하는 어머니앞에 선생님은 품속에 안고 온 구레미를 꺼내 펼쳤다.

《이건 자명종시계예요. 이걸 구하러구 읍에 갔다 온다는게 이렇게 늦었어요.》

《예? 아니 이걸?...》

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탁상시계를 매만져보았다. 《사실은 학범이가 책을 보다가 래일아침 또 늦잠을 잘가봐 걱정이 돼서...》

《예?! ... 그러니... 우리 학범일 위해 그 먼길을 갔다왔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머니는 목메어 중얼거리며 손등으로 눈굽을 훔쳤다, 선생님이 그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쉬며 절절하게 말했다.

《학범이 어머니! 저도 어린 학범이가 밤잠을 못자구 아침도 설치면서 수십리 고개길을 뛰어다니는 것을 보니 애처로운 마음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남다른 조건이라고 해서 <특혜>를 베풀게 되면 학범이의 소중한 꿈과 재능을 꽃피워줄수 없겠기에 저의 마음도 자연히 모질어졌던거예요.》

《고맙습니다! 이 시계보다두 그 마음이 더 고마워요. 선생님!... 헌데 이 애가 끝까지 그 강한 요구를 따라가내겠는지... 노력하는 보람이 있겠는지... 그게 걱정입니다.》

《학범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학범이를 끝까지 책임지겠으니 믿어주세요.》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해서 머리를 끄덕이였다.

《아무튼 이 밤중에 비를 맞으며 뛰어다니는걸 보

면 그런 극성으로 뭘 못해내겠나요? 내 그럼 믿겠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는 어느새 부엌에 나가더니 감춰두었던 책을 꺼내다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의 수확소조생활은 시작되었다.

매일 새벽 5시면 《따르릉 따르릉》 야무지게 울어대는 종소리와 함께 온 집안이 일어나 등교준비를 서둘렀다.

그 탁상시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단 하루도 주인과의 약속을 어겨본적이 없었다. 그리고 또한 마라손주로의 극한점과도 같은 마지막고개마루에서는 언제나 까만 치마저고리차림의, 혹은 곤색외투나 파란 비옷을 입은 선생님이 어김없이 나를 마중하여 서있었다. 그러면 나는 선생님을 향해 손을 저으며 달려가곤 했다.

하기에 나는 20년이 지난 오늘 탐구의 극한점에서 쓰러진 나의 마음을 두드려 깨운 그 문기척소리를 우연한 착각으로만 볼수 없는것이다.

나는 어느덧 컴퓨터에 마주앉아 중단되었던 설계작업에 달라붙었다.

## (2)

허나 마감계단이라고 생각했던, 성공을 확신했던 원두번째 실험은 또다시 실패를 기록하였다. 참기 어려운 고통과 쓰라린 좌절감이 밀물처럼 나의 심신을 휘감았다.

모든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과연 성공할수 있을것인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피로움에 모태기던 나는 책상안에서 한장의 사진을 찾아들었다.

그것은 2년전 모교를 찾았을 때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푸른 하늘에 탑처럼 한줄기로 곧추 뻗은 수삼나무를 배경으로 나란히 웃으며 서있는 스승과 제자...

나의 눈길은 그 수삼나무에 이윽도록 못박혀있었다. 그 나무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내가 선생님과 함께 기념으로 심은것이였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 높이를 재여보던, 중학시절의 첫기술에서 선생님과 더 붙어 아름다운 꿈을 엮었던 그 수삼나무였다.

2년전 새 연구과제를 맡고 모교를 찾았을 때는 소슬바람에 마지막락엽이 지는 초겨울이였다.

그러나 수삼나무만은 곱게 단풍은 잎새를 거연히 펼쳐들고 교정의 풍경을 장식해주고있었다.

우리는 이 나무를 바라보며 잊지 못할 중학시절을 뜻깊게 추억했었다.

...

《참, 졸업식날 학범인 이런 시를 지어 읊었지요?

하늘에 닿으려나  
아득히 뻗은 수삼나무  
장한 뜻 굵힘없어  
꼭선을 모르는 그 줄기

굳세고 결백한 그 마음  
언제나 변할줄 모르거니  
열정의 푸른 잎새들은  
찬바람에도 오히려 붉게 타네

사랑하는 교정의 수삼나무여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장군님을 받드는 오직 한길에  
너처럼 곳곳이!  
너처럼 즐기차게!  
너처럼 깨끗하게!!

《선생님의 기억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두고두고 외우시는군요.》

《내가 왜 그걸 잊겠어요? 난 동무가 심은 수삼나무를 볼 때마다 그 시구절을 상기하곤 합니다. 그러면 학범이도 이 수삼나무처럼 변함없이 역세계 성장하고있으리라는 믿음에 흐뭇해지곤 하지요. 호호...》

《허허... 선생님도 참...》

《학범이! 물론 탐구의 길이란 언제나 꼭결과 시련을 동반하기 마련이예요.

하지만 난 학범이가 이번 연구를 꼭 성공하리라고 믿어요! 확신해요! 왜? 학범이 어려서부터 남보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한번 품은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이겨내왔기때문이에요.》...

아! 그때 내 가슴은 얼마나 뜨겁게 젖어들었고 얼마나 뜨겁게 불타올랐던가? 그래서 힘겨울 때마다, 나약해질 때마다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날의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겨보곤 하는것이다.

지금 이렇게 맥을 놓고 주저앉아있는 나를 본다면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는가? 나의 수삼나무는 이렇듯 즐기차게 하늘을 향해 치닫는데 나 자신은? ...

아니! 나는 눈물을 씹어삼키며 도리를 저었다.

(선생님! 제가 어찌 선생님의 믿음을 저버릴수 있겠습니까? 저를 위해 바쳐진 선생님의 노력을 헛되이할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뜨겁게 부르짖는 나의 눈앞으로 잊지 못할 추억의 파도가 조용히 밀물쳐온다.

5학년에 진급한지 두달이 되던 11월초, 나는 군

과 도에서 진행된 수학학과경연에 당선되어 전국경연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 소식을 받았을 때 나의 기쁨이 얼마나 컸으랴. 산골막바지 외딴집에서 사는 내가, 《지각대장》으로 동무들의 밀리움을 당하던 내가 군경연에서 1등한것만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는데 도경연에서까지 2등을 하였다니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어리둥절하면서도 입이 쩀다 물줄 모르는데 선생님은 새로 나온 수학문제집을 내놓으며 말했다.

《학범이. 기뻐하기보다 각오를 든든히 하는게 중요해요. 이왕이면 1등을 해야지 왜 2등을 하겠어요. 이제부터 두달동안 이 문제집을 돌파해야 중앙경연에 참가할수 있어요. 알겠지요?》

《예!》

나는 저도모르게 배짱이 살아올라 가슴을 쪽 펴며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나의 발걸음은 나래가 돋친듯 가벼웠다. 마음은 구름을 탄듯 붕- 떠올랐다. 웬걸 하면서도 도경연결과를 은근히 고대하던 아버지,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허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침부터 진눈까비가 내려 질적거려던 길이 오후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얼음판이 되는바람에 나는 한걸음한걸음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마음이 앞서 덤벼치는 통에 학교를 벗어난지 얼마안되어 고개길을 오르다말고 그만 미끄러져 덩굴었다.

처음 한순간은 눈앞에 번개불이 일고 머리가 핑 내돌리우는것같은 얼벌벌한 감각뿐이었다. 일어나려고 발에 힘을 주던 나는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어느새 발목이 텅텅 붓고 뼈가 부서져나가는 것처럼 지끈지끈 쏘아났다.

(발목이 부러졌구나!)

이것을 의식하는 순간 중앙경연에 참가할수 없다는 절망감이 눈앞을 캄캄하게 했다.

저려나는 발목을 붙잡고 눈물을 툭툭 떨구는데 동무들의 연락을 받은 선생님이 달려왔다.

선생님의 등에 업혀 리진료소에 가보니 다행히 뼈가 부러지지는 않고 어긋났다고 하면서 뼈를 맞추고 한 보름 안정하면 된다고 하였다.

치료가 끝나자 선생님은 나를 돌쳐업고 자기 집으로 갔다.

《할수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안정하며 공부하죠. 학범이네 집엔 연락을 띄우겠으니.》

《예?... 야- 안됩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그 발을 가지고 집엔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또 지금 1분1초의 시간이 귀한 때 거기까지 갔다왔다 할사이가 어디 있어요?》

할 말이 없었다.

선생님의 집은 학교정문 맞은편의 단층살림집이었다. 무뚝뚝하게 생긴 얼굴에 두터운 안경을 낀 선생님의 남편이 방 안에서 지도작업을 하다가 나에게 아래목을 내어주고 옷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한순간 미안스러운 느낌을 어쩔수 없었다.

청암산탐사대 기사인 선생님의 남편은 원래 탐사대가까이에 집을 받았었는데 선생님을 생각하여 학교근방의 이 집과 바꾸었다고 한다.

저녁때 사색이 된 어머니가 허겁지겁 달려들어 왔다. 그리고는 무작정 집에 가자고 나를 일으켰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 막아서자 어머니는 애원하듯이 말했다.

《안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애가 갓 새생활을 시작한 선생님의 집에 뛰어들다는게 될말입니까?》

《아니? 학범이 어머니! 중앙경연을 눈앞에 둔 때에 무슨 그런 생각을 다 하세요? 어서 여기 놔두고 걱정말고 가세요.》

《글쎄 안된대두요. 우리 학범이가 뭐라구 이런 폐를 끼치겠나요? 집에 가서 안정시키면 되겠는데... 학범아, 어서 업혀라.》

나는 어쩔바를 모르고 선생님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기만 했다.

선생님이 어머니의 두손을 꼭 쥐며 말했다.

《중앙경연이 어떻게 학범이 일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우리 학교, 우리 군, 우리 도의 명예문제구나 나아가선 우리 나라의 장래발전을 위한 일이 아닌가요?》

《그렇다구...》

어머니는 선생님의 단호하고도 절절한 말씀에 더 고집을 부리지는 못하고 말을 얼버무렸다.

《일없어요. 학범이가 중앙경연에 당선되기만 한다면 교육자로서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다 저자신의 행복을 위한 일이니 더 다른 생각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선생님은 머뭇거리는 어머니의 등을 떠밀어 보내고야 말았다. 솔직히 이때 내 심정은 어머니가 왜 좀 더 고집을 부리지 못했을까 싶은 불만감에 싸여 있었다. 그만큼 선생님의 집에 누워있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날밤부터 문제풀이는 시작되었다.

상처는 여전히 저리고 쏘고 아팠다. 문제집의 문제들도 간단한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풀이의 힘겨움이나 상처의 아픔보다 더 나를 괴롭힌것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아저씨에 대한 어려움이였다. 생김새처럼 성미도 과묵한 아저씨는 하루종일 가야 꼭 필요한 실무적인 말외

에는 한두마디 들어보기도 힘들었다. 두터운 안경을 끼고 두터운 입술을 꼭 다문채 옷방에서 두툼한 책속에만 줄곧 파묻혀있는 아저씨를 보면 나는 절로 위축감이 들면서 하나하나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졌다.

어느날 마침 아저씨가 먼곳으로 장기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아저씨는 배낭을 지고 집을 떠나면서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동안 공부 잘해야 돼.》 그리고는 내 어깨를 툭치며 덧붙였다. 《내기를 해보자구. 너는 1등을 하구, 나는 광맥을 찾구, 응?》

《...에...》

나는 얼터름해서 대꾸하고 씨엥씨엥 멀어져가는 아저씨의 뒤모습을 바라봤다.

그날부터 아저씨의 방 높은 책상과 탁상등은 나의 소유로 되었다. 나는 낮이나 밤이나 조용한 환경에서 마음놓고 공부할수 있었다.

무섭게 부어올랐던 발목도 이즈음에 와서는 하루 하루 눈에 알리게 가라앉았다.

그대신 문제풀이는 나날이 힘겨워졌다. 오를수록 힘겨운 고개길처럼 점점 더 묘하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앞을 막아섰다. 어떤 문제는 꼬박 몇시간을 안고 씨름해야 했다. 그런 때면 막 짜증이 나고 집어치우고싶은 생각이 불끈거렸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한대로 그것은 반드시 점령해야 할 고지였다.

나는 다시 정신을 모아 문제풀이 실마리를 찾는다. 마침내 답이 나온다. 나의 가슴은 기쁨에 터질듯 하다. 허나 그것도 한순간, 또 다른 문제가 심술궂게 도전해나선다. 산우에 또 산, 길우에 또 길... 아, 령마루는 과연 어딘가? 문제와의 싸움, 줄음과의 싸움, 아픔과의 싸움... 나의 입술은 부르르다 못해 새까맣게 덕지가 앓고 입안엔 짹짹하게 허바늘이 돋았으며 눈은 충혈이 저서 쓰리고 코밀은 혈어서 커다랗게 물통구리까지 졌다.

그래도 선생님의 《채찍》은 인정사정 몰랐다.

나는 인정깊은 어머니의 품에서 실컷 자보고싶은 욕망이 간절해졌다. 단 하루밤만이라도...

참다못해 선생님에게 집에 갔다오겠다고 사정을 해보았다.

《집에는 갑자기 왜요?》

《저...》

말을 못하고 앞머리만 쓸어내리는 나를 보자 선생님은 머리를 흔들었다.

《안돼요. 하루가 아니라 한시간도 헛눈팔 사이가 없어요.》

나는 그만 시무룩해졌다.

《물론 어머니를 못본지가 한달이나 되었으니 집에 가고싶겠지요. 하지만 어머니도 학범이가 문제



풀이를 다 끝내지 못하고 돌아오는걸 바라지 않을거예요. 딴 생각 말고 어서 공부를 계속하세요.》

나는 만년필을 찾아쥐었다.

그날과제를 끝내고 자리에 누우니 어느때없이 잠은 안오고 어머니생각만 간절해졌다.

(참 이상해. 날 하루만 못봐도 몸살나하던 어머니가 어떻게 지금까지 한번도 오지 않는가말야? 혹시 정말 앓는게 아닐까? 그럴지도 몰라.)

의혹은 억측을 낳고 억측은 확신으로 번져졌다.

마침 이튿날은 일요일이었는데 선생님도 읍에 잤다울 일이 있다면서 자체학습과제를 주었다.

절호의 기회를 만난 나의 마음엔 불이 일었다.

그러나 정작 집에 들어선 나는 너무도 상상밖의 어머니를 보게 되었다.

《뭐라구? 문제풀이도 다 끝내지 못하구... 선생님의 승인도 받지 않구... 엄마가 오지 않아 걱정돼서 왔다구? 이 녀석아, 네가 지금 제 정신이냐? 영?》

나는 비자루까지 쳐들고 소리치는 어머니를 땡헤서 마주보며 물러앉았다.

《어머니! 왜... 왜 그래요?》

《왜 그러느냐구?》

어머니는 물먹은 담 무너지듯 풀썩 주저앉더니 눈물이 글썽해서 부르짖는 것이었다.

《이 엄마가 왜 널 보고싶지 않았겠니? 너의 그 발목이 걱정되구, 맛있는게 생기면 널 먹이고싶구 해서 몇번이나 찾아갔었는지 알기나 하니?》

《예? 그게 정말이냐요?》

《그래, 하지만 너의 선생님이 공부하는 아이한테 잠시나마 딴 생각할 겨를을 주어선 안된다고 하면서 미리 약속한게 있었다. 그래 갔다가 음식만 넘겨주구 그냥 오군 했지만 어쩐지 선생님의 요구가 너무하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전 아버지가 탐사대에 불일이 있어 갔다온 다음에야 난 선생님의 진정을 알게 되었구나. 글썄 선생님은 너때문에 남편까지 합숙에 내보냈는지 아니?》

나는 소스라쳐 놀랐다. 마구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예요, 아저씨 장기출장을 가셨어요.》

어머니는 눈굽을 훔치며 목멘 소리로 말했다.

《그래, 너를 공부시키는데 지장이 될가봐 합숙으로 <장기출장>을 나간거다.

너의 앞날이 얼마나 귀중했으면 금방 결혼한 신혼부부가 너에게 집을 내주었겠니? 그것두 몸이 건강치도 못한 사람이 이 엄동설한에 합숙에 홀로 나가면서 말이다.》

나는 머리속이 핑그르 돌면서 아무 소리도 더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정신없이 학교로 되돌아온 나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재원의 수삼나무에로 향해졌다.

《선생님은 나에게 수삼나무와 같이 굳센 의지를 키워주려고 그리도 애써오셨는데... 난 아직... 너무도 멀었구나...》

곧고 미출한 줄기를 쓸어보고 또 쓸어보는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강한 요구를 하자면 자신에게부터 모진 채찍을 안겨야 한다는것을 나는 새삼스레 깨닫게 되는 것이었다.

### (3)

평양역을 떠난 열차는 어느덧 교외의 별관을 달리 고있었다. 달각달각... 레루이음짙을 지나는 고르로운차바퀴소리, 요람처럼 몸을 흔들어주는 부드러운 진동, 차창밖에 펼쳐진 아름다운 봄풍경, 신록이 물든 전야와 진달래꽃빛이 울긋불긋 어우러진 산발들, 해빛이 부서지는 은백색강물...

성공의 기쁨을 안고 고향으로 가는 나의 가슴은 진정할길없이 설레이었다.

연구과제를 완성하고 박사학위까지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부모들과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할가?

불현듯 15년전 그날, 전국수학과학경연을 며칠 앞두었던 그날의 일이 어제일처럼 선히 떠올랐다.

그처럼 아름다던 문제집을 간고분투하며 자체로 다물고 마지막 한문제가 남았을 때였다.

선생님은 그 한문제를 그날 하루과제로 주었다.

전날부터 고심하다가 끝내 풀지 못한 기하문제였다.

《오늘은 이 문제를 꼭 풀어야 해요. 그래야 저녁에 집에 갔다가 며칠후 떠나지요?》

《예! 풀겠습니다.》

나는 집에 간다는 소리에 사기가 나서 대답했다. 하루종일 이 한문제야 못풀라싶었다.

수많은 삼각형들, 수많은 보조선들, 수많은 점들... 고심의 흔적은 벌써 수십장을 어지럽혔다.

벌써 한것이 지나갔다. 결코 시간이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었다.

오후가 되자 나는 점점 안달이 나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돌아와 나의 풀이장을 하나하나 검열해 보았다. 천천히 머리를 짓는 선생님의 얼굴에는 실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아직 실머리를 찾지 못했군요. 어느 한가지 경우도 가까이 접근한것이 없고 완전히 외판곳에서 헤매고있어요.》

《예에?》

나는 손땀이 탁 풀려나가고 말았다.

《선생님, 전 할수 있는것 다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제 힘으로는...》

《무슨 소릴해요?》

선생님은 엄하게 꾸짖었다.

《지금껏 그 많은 문제들을 자체로 풀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겠다는거예요?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주저앉겠는가 말이에요.》

나는 한숨만 꺼지게 내쉬었다.

밖에서는 눈보라소리가 우-우-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저물어가는 해가 마지막빛을 진하게 뿌려주었다.

(오늘저녁엔 집으로 가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로구나. 그런데 밤을 새운들 내가 이 문제를 풀수 있을가.)

삼각형의 정리들, 공식들, 평행4변형의 성질, 2등변3각형의 성질, 같은 자리각과 엇각의 관계법칙들을 가능한껏 다 리용해보았는데도 허튼데서 헤맨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종단 말인가? 선생님은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있었다.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 어느덧 황혼마저 꺼져버리고 짙은 어둠이 창밖을 내리덮었다. 눈보라도 더욱 세차게 불어쳤다.

저녁상을 물리자 선생님은 밥상을 앉은뱅이책상 옆에 가져다 붙여놓고 마주앉았다.

《자, 오늘저녁은 이 문제를 풀기전에 학범이도 선생님도 잠을 잘수 없어요. 물려설 생각은 말구 단단히 잡도리하구 달라붙어야 해요. 지금까지 배운 기하학의 내용들을 다시한번 훑어보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시도해보자요.》

그렇다. 다른 출로는 없었다. 나는 전혀 다른각도에서의 출발점을 찾기 위해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따금 번개치듯 무엇인가 뇌리를 치면서 실마리가 잡힐듯 하였다. 그래 부지런히 도형을 그리고 선을 긋고 따져보면 역시 조건에 맞는 중간선이 아니었다.

밤은 깊어갔다. 속이 바글바글 두부장끓듯하고 이마의 코등에 빠직빠직 진땀이 내돌았다.

(야- 기하는 기가 막혀서 못한다더니 정말 안되겠어. 이러다간 날이 새겠는데.)

조바심이 나서 만년필방아를 찢던 나는 애원의 눈길로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선생님은 말없이 고개를 저을뿐이었다.

또다시 한숨을 쉬고 만년필을 꼬나쥐었다.

줄음이 무겁게 달라붙기 시작했다. 누가 말했는지? 세상에 제일 무거운것이 눈섭이라고... 잠시라도 엎디어 눈을 붙이고싶었다.

어느새 끄떡끄떡 고개방아를 찢던 나는 차거운 얼음같은것이 눈에 와닿는바람에 흠칫 놀랐다. 선생님이 찬물에 적신 수건을 눈에 가져다 비벼주며 말했다.

《학범이! 정신차려요. 이 문제를 못풀면 경연에 나갈수 없어요.》

나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문제를 연구했으나 역시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다. 줄음은 사정없이 물

려들었다. 더 견디기 어려웠다.

나는 계습츠레해서 중얼중얼 사정했다.

《선생님, 암만해두 이 문제만은... 자구 래일 풀면...안 됩니까?》

《안돼요. 이제 잠들면 깨지 못해. 학범이를 위해서 시간이 멈춰서 기다리지 않는단 말예요 자, 졸리면 저 옷방에서 하자요.》

선생님은 자꾸만 책상에 어푸러지려는 나를 이끌어 옷방으로 올라갔다. 불을 때지 않은 옷방은 차고 썰렁했다. 선생님은 나를 걸상에 앉히자 책상옆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눈보라가 휘-익 쓸어들어나의 뺨을 때렸다. 숨이 턱 막히는듯 싶더니 온몸이 오싹 떨려왔다.

《아- 추워!》

나는 두팔을 엇갈아 가슴을 부둥켜안으며 소리질렀다. 줄음은 언제 그랬더냐 싶게 말끔 사라져버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보라는 삼시간에 온 방안을 소용돌이치며 찬기운을 끼얹었다.

이젠 창문을 닫았으면 좋으련만 선생님은 찬바람에 눈가루까지 쓸어드는 창가에 그냥 서있었다.

《문제를 풀 때까지 문을 닫지 않겠어요.》

《예?》

나는 눈이 떠꾼해서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내의 바람에 창문을 가리고 선 선생님의 머리칼이 마구 흩날리고 얼굴은 벌써 퍼렇게 질려있었다. 창밖에 선 성난말처럼 길길이 뛰는 눈보라가 선생님의 몸을 물어뜯고있었다.

나는 그만 당황해서 어쩔바를 몰랐다.

《선생님, 이젠 졸지 않겠습니다. ... 문을... 닫을시다.》

그러나 선생님은 머리를 저었다.

《다른 생각 말구 어서 문제를 풀어요.》

나는 속이 울컥해서 머리를 떨구었다. 이젠 내 자신이 추운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아니, 추위를 느낄경황도 못되었다. 선생님은 내가 문제를 풀 때까지 온몸에 찬바람을 맞으며 그냥 창가에 서있을 잡도리니 말이다. 저러다 감기리도 들면...

마음이 조급하게 달아올랐다. 빨리 풀어야겠는데... 선생님이 한마디만 힝겨주면 얼마나 좋으랴!

《선생님, 딱 한마디만... 대주십시오.》

나는 갑자르다 끝내 말하고야 말았다. 눈물이 글썽해서 간절히 애원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아까보다 더 엄하게 질책했다.

《그렇게 도움을 바라니까 풀릴게 뭐예요? 자체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절대루 경연에 올라갈수없어요.》

나는 이때처럼 선생님이 원망스러워본적이 없었다. 수백수천문제중에 이 한문제를 못푼다고 경연에 못올라간단 말인가? 중앙경연에 꼭 이 문제가 나오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어째서 제격 풀

수 있게 한마디귀뜸을 못해주는것인지?...

나의 속마음을 헤아려본듯 선생님은 다시 말했다.

《학범이가 이 한문제를 끝까지 푸는가 못푸는가 하는것은 앞으로 과학탐구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운명적인 문제예요. 선생님도 학범이한테 풀이방법을 대주면 편안히 설줄 몰라서 이렇게 같이 밤을 새우겠어요? 난 학범이가 꼭 이 문제를 풀수 있다고 믿기에 이렇게 기다리는거예요. 이 한문제때문에 학범이가 경연에서 1등할수 있는것도 2등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앞으로 학범인 현대과학의 최첨단에서 세계적인 패권자가 될 큰 목표를 내걸어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가슴이 후터워오름을 느끼며 선생님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폭 꺼져든 불이며 눈확, 나무껍질처럼 터슬터슬 말라터진 입술, 바람에 나뭇기는 머리키락...

나는 눈물이 쏟아지는것을 뺨 문대며 만년필을 지그시 틀어쥐었다. 그리고 피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속다짐했다.

(기어이 내 힘으로 풀테다.)

출발점... 새로운 출발점...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출발하자면 어느 고리를 쥐어야 할가?

(가만! 지금까지 나는 선만 가지고 씨름질하지 않았는가? 선이 아니라 각을 리용해보면 어떨가? 그리고 랑면의 두점이 아니라 삼각형아낙의 공간속의 한점을 찾아보자.)

문제의 두변이 붙어있는 두 밑각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던 나는 섬광처럼 번쩍 뇌리를 치는 생각에 줄자와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삼각형의 두 밑점에서 랑쪽의 각들을 똑같이 나누는 2등분선을 쪽쪽 그어보았다. 사립점이 생겼다. 그 점에서 밑변에 대한 평행선을 그었다.

그 점에 의해 나누어는 중간선의 두 부분과 그와 이웃한 4각형의 두변의 길이를 따져보던 나는 심장이 꿈틀하는 충격을 느꼈다. 다음순간 미칠듯 한 기쁨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줄달음쳤다.

나는 튕겨나듯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그리고 여전히 창문을 등지고 선 선생님의 모습을 뚫어지게 마주 보았다. 어느덧 나의 눈굽에 물기가 핑-고여들었다. 나는 알지 못할 충동에 떠밀려 맵짠 바람이 불어드는 창문을 소리나게 닫으며 선생님의 품에 안겨들었다.

《선생님, 풀었습니다.》

선생님은 말없이 나를 품안에 꼭 껴안아주더니 나직이 속삭였다.

《용해요, 학범이!》

나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멀리에서처럼 들으며 선생님의 품을 파고들었다.

《선생님!》

선생님은 내 두손을 꼭 쥐어 자지 품속에 끌어넣

었다.

《추웠지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창문을 가려주어서...》

그다음 우리는 말없이 한동안 그대로 서있었다.

이튿날 평양으로 올라간 나는 전국각지에서 모은 수학강자들을 물리치고 단연 1등을 하였다.

선생님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장기출장》갔던 아저씨가 먼저 돌아와 기다리고있었다.

×

편안 젓빛안개, 청신한 공기, 미풍에 실려오는 상쾌한 꽃향기...

묘교의 새벽길이다.

정든길 랑옆으로 가쁜히 뻗어간 울타리에는 개나리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양어장둘레의 버드나무 아지에는 연록색잎이 실실이 드리웠다. 머리위의 뽕뽕라나무우듬지들에서 뽕뽕-쪼르르 새들이 우짖는다. 새벽 노을을 반사하여 금빛으로 번쩍이는 유리창문들에서는 금시라도 랑랑한 굴소리, 노래소리가 울려나올듯싶다.

추억의 노를 저으며 천천히 구내길을 걷던 나는 마침내 나의 수삼나무를 찾았다. 졸업식날 내가 심은 그 애기나무... 그때 나의 키에 닿을가말가했던 키는 벌써 3층교사를 지나 하늘을 찌르고있었다.

《학범이, 이 나무는 하늘의 별을 따려는 학범이의 녀이예요. 난 앞으로 이 나무가 자라는것을 보면서 학범이의 모습을 그려보겠어요.》

교문앞에서 작별하며 하시던 선생님의 말씀...

그랬다. 나는 그때 수삼나무를 땅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심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줄기를 어루머듬으며 목메여 속삭였다.

(수삼나무야! 고맙다! 내 마음속에 네가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성공이 있을수 있었겠니?)

문득 뒤에서 발자국소리가 울려온다. 가까이에서 멈춰선다. 확실적인 예감에 천천히 돌아섰다.

까만 치마저고리에 하얀 동정...

윤기흐르던 머리칼은 희여지고 매출하던 얼굴에는 가로세로 실주름이 잡혔다.

허나 검고 그윽한 두눈엔 세월이 흘러도 변할수 없는 녀이, 식을수 없는 정열이 빛발치고있다.

나는 비로소 나의 마음속에 녀으로 새겨진 저 수삼나무가 다름아닌 선생님이였음을 깨달았다.

《왔구만요, 학범이!》

《선생님!》

우리는 감격에 넘쳐 뜨겁게 두손을 움켜잡았다.

《약속은 하지 않았어도 우린 이렇게 수삼나무밑에서 만났지요? 선생님!》

《난 학범이가 꼭 성공하고 여기로 오리라 믿었어요!》 선생님은 행복의 미소를 짓고 나를 바라보았다.

## 《어린 싹을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하오.》

주체26(1937)년 가을 어느날 쉼라피모비츠는 잡지 《쑤베트문학통보》에 실린 한 신인의 소설을 평론한 평론가 짜라프브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나이며 학력, 창작년한을 묻고난 일흔네살의 로작가는 《날카롭고 정확하고 논리정연한 분석력을 가지고 쓴 동무의 평론을 나는 주의깊게 읽군 하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30대의 젊은 평론가는 자기의 평론에 아직 미숙한점이 많다고 겸손하게 대답하였다.

쉼라피모비츠는 그에게 오늘 그가 쓴 신인들의 작품평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동무가 쓴 평론을 여러번 읽어보았소. 그리고 동무가 평한 소설도 읽어보았소. 물론 나도 이 소설이 구성이나 묘사 등에서 나타난 부족점에 대해서 지적한 동무의 평은 긍정하오. 현대 동무는 이 작가가 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거든.》

《저 무슨 말씀인지?...》

《동무가 쓴 평론에서 신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느낄수가 없었소. 동무가 무자비하게 혹평한것처럼 그렇게 보잘것 없는것이 아니요. 그 작가 역시 그렇게 재간이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짜라프브는 아직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하면서 쉼라피모비츠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동무는 이 작품의 단점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캐고들었지만 장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소.》

《의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평론가의 사명을 비평이라고 한 벨린스끼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벨린스끼는 칼날같은 평론가로 소문났지만 그는 혹평속에서도 신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있는 평론가였소. 그는 푸르게네브와 네크라소브가 문단에 처음 나섰을 때

그들의 작품을 비평하면서도 그 재능의 싹을 얼마나 귀중히 여겼는지 모르오. 푸르게네브가 벨린스끼를 자기 창작의 정신적기동으로, 네크라소브가 그를 평생의 은인으로 여긴것이 무엇때문이었소? 그들은 벨린스끼의 지도가 없었더라면 로씨야문단을 빛내인 문호로 되지 못했을거요.》

꾸짖는듯 한 그의 말에 짜라프브는 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소설의 구성과 묘사가 좀 서툰건 사실이요. 그러나 그 작가는 신인이 아니요? 그가 어떻게 중견작가들이 쓴것과 같은 완성된 작품을 쓸수 있겠소. 단점을 보기전에 장점을 불췌 알아야 하오. 이 소설에는 인간과 생활을 새롭게 탐구하고 모색한 신인작가의 노력이 깃들어있지 않소.》

그는 절절하면서도 뜨겁게 말하였다.

《평론가는 한눈으로는 장점을 보고 다른 눈으로는 단점을 보는 두눈을 가져야 하오. 신인과 관록있는 작가가 쓴 작품에 대한 평은 달라야 하오. 이름있는 작가의 작품일수록 냉혹하게 평하는것은 좋지만 신인의 작품에 대해서는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평해야 하오. 말하자면 작가를 아끼고 작품을 살리는 립장에서 말이요.》

그러면서 그는 고리끼가 신인들의 재능을 키워주기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여러가지로 이야기해주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이 평론가는 신인들과 그의 작품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할줄 알아야 하오.... 난 동무가 신인작가들의 작품속에 파묻혀있는 재능의 싹을 제때에 발견하고 키워줄줄 아는 품성을 가진 평론가가 되기를 바라오. 그래야 진정으로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있소.》

그들은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앞으로 서로 힘을 합쳐 재능있는 작가들을 키워가자고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